

신 군 자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사회학적 고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맥락에서 -

200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전 현 심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사회학적 고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맥락에서 -

신 군 자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 년 5 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전 현 심

인 준 서

전현심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오늘날 세계화의 물결아래 신자유주의로 인해 시민사회의 공공 생활영역이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성인교육 부문에서는, 인간자본의 시각에서 교육과 훈련의 시장화로의 추세가 점점 더 지배적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에서, 성인교육 본래의 기능을 되살려내어 사회적 목적의 가치들을 실현할 교육을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보다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를 지향하는 성인교육으로서 능동적 시민성 교육에 관심을 갖고, 그 이론적 기초를 형성해보려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먼저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배경 맥락으로서 사회변화, 시민사회, 사회운동과 관련하여 성인교육을 논의하였다. 그런 다음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이론적 기초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논거들을 제시함으로써,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이론적 맥락을 구성하였다. 끝으로 우리 사회의 시민사회단체 민주시민 교육을 중심으로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현실을 살펴보고, 그 잠재력을 전망하고,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변화를 위한 성인교육이 위치해 있는 성인교육의 전통은 무엇인가?

둘째, 성인교육은 사회변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시민사회와 성인교육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시민사회에서 요구되는 성인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운동과 성인교육의 관계는 어떠한가?(사회운동들에서의 성인교육의 성격은 어떠한가?)

넷째, 사회적 목적의 전통에 입각한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이론적 기초요소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실제로서,

시민사회단체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논거는 무엇이며,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전망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들에 관련하여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교육의 발전 흐름을 살펴볼 때, 성인교육은 두 가지 본질적인 기능을 갖는 것으로 정리된다. 하나는 사회·경제적 발전에 작용하는 경제적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더 나은 사회에 대한 비전을 창출하고, 사회 정신을 향상시키는 것을 추구하는 사회적 및 도덕적 기능이다. 이는 성인교육을 지속시켜온 두 가지 전통이다. 사회적 목적에 입각한 전통을 살펴보면, 성인교육은 사회적 변혁에의 기여자였고, 또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하다.

둘째, 사회변화와 성인교육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성인교육이 직접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입장과 교육이 사회변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변화를 위한 실천행위인 프락시스에 있어서 교육과 변화는 변증법적 관계에 놓여있기에, 교육은 사회변화 과정의 통합적 부분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 비판적인 성인교육자들은 시민사회를 급진적인 학습과 사회변화의 특전의 영역으로 간주한다. 시민사회에서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통하여 상호작용하고, 문화와 정체성을 창조한다. 사회운동과 그리고 그 동반자적인 NGO들은 국가와 시장의 개입으로부터 시민사회를 보호한다. 이러한 시민사회 보호 과정을 통하여, 사회운동은 시민사회 민주화를 돕고 그럼으로써, 시민사회는 시민성 발휘의 자리가 된다.

사회운동과 성인교육과의 관계를 보면, 성인교육은 근본적인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핵심인 사회의식을 개발함으로써 사회운동에 기여한다. 사회운동은 시민사회 주체인 개인이 사회 환경을 인식하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합적 행위에 참여하는 행동이다. 사회운동은 적극적인 실천으로 체화되는 성인교육 과정인 것이다.

넷째, 능동적 시민성이란 참여적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권한 강화(empowerment)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율성, 책임, 협력, 그리고 창의성을 학습하고 실천할, 기회들을 요청한다. 능동적 시민성은 참여, 의사소통, 공정성과 같은 권리주체로서의 자질을 갖추고서 시민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다. 시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살아갈 생활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인식을 변혁의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기 위한 역량이 능동적 시민성이다.

인간생존의 기본 조건들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생존을 위해 단지 적응하려는 차원이 아닌, 시민이 주체가 되어 사회현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실현하도록 하는 교육이 능동적 시민성 교육이다. 능동적 시민성 교육은 시민들의 정치사회 현실 인식 및 개선에 대한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는 교육이다. 능동적 시민성 교육은 민주적 시민사회운동에 기여한다. 사회운동에서의 학습과 실천행동은 능동적인 시민성을 위한 성인교육의 정수이다.

80년대 후반 이후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운동의 대의에 호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성인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영역을 발전시켰다.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시민들의 정치사회 현실 인식 및 개선에 대한 능동적 참여 촉진에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능동적 시민성 함양을 통해 시민사회운동에 기여하는 능동적 시민성 교육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교육 현황 분석에서, 시민사회단체의 66.9%가 최근 20년 사이에 설립되어 1980년대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 내부의 혼란이 내재함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우선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인식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무엇보다도 민주시민교육의 이론적 취약성이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시민성을 실제경험으로서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방식의 문제가 제기된다.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은 능동적 시민성 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하기

에, 교육의 장 안에 간혀서는 안되며, 사회운동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의 대부분 시민운동가들이 스스로를 교육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운동가나 조직가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운동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성인교육 기능을 고려할 때, 활동가들 또한 스스로를 성인교육자로 간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진정한 시민사회의 실현을 위한 역동적 기제로서 성인교육의 잠재력이 시사된다. 능동적 시민성 교육은 사회변혁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성인교육이다.

한편에서 평생학습이 세계자본주의 세력에 의해 인간자본 시각에서 교육과 훈련으로 추동되고 있긴 하지만, 진정한 학습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 일에 관련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목적의 전통을 되살려 시민사회 구성원들에게 보다 더 능동적인 시민성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성인교육에 요청된다 하겠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과 연구문제	5
3. 연구방법론	6
4.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8
II.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배경 맥락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11
1. 성인교육 논의의 기초	11
2. 사회변화를 위한 성인교육	18
1) 성인교육	18
2) 사회변화와 성인교육과의 관계	30
3) 사회변화를 위한 성인교육	34
3. 시민사회, 사회운동과 성인교육	40
1) 시민사회와 성인교육	40
2) 사회운동과 성인교육	50
III.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이론적 맥락 구성	61
1. 능동적 시민성 교육 논의의 배경	61
2. 능동적 시민성의 개념	65
3.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교육	77
1) 능동적 시민성의 요소	77

2)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교육의 전통	81
3)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	88
4) 사회운동에서의 능동적 시민성	99
4. 능동적 시민성 교육을 위한 합리적 논거	101
IV.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현실과 전망	107
1. 능동적 시민성 교육 실제로서의 민주시민교육	107
2.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109
1)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110
2)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	115
3.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전망	119
V. 요약 및 결론	121
1. 요약	121
2. 결론 및 제언	126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차

< 표 1 > 성인교육 논의를 위한 분석 틀	17
< 표 2 > 성인교육의 목적 및 목표	24
< 표 3 > Arvidson과 Stenøien의 구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의 비교	54
< 표 4 > 각 시민성 유형에 따른 성인학습의 특성	98
< 표 5 > 시민사회단체 분야별 분포	112
< 표 6 > 시민사회단체 중 시민사회 부문 단체 분포	112
< 표 7 > 분야별 시민단체의 설립연도	113

그림 목차

< 그림 1 > 성인교육 및 그 사회적 실시 정도의 분류도식	27
< 그림 2 > 성인교육 프로그램 유형 분석모형	29
< 그림 3 > 초기 3분모델	42
< 그림 4 > 후기 4분모델	43
< 그림 5 > 사회의 변화와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필요성	64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사회는 경제를 비롯하여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계화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다.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경제적 논리로서 접근되는 세계화의 물결은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중심적 이념과 원리의 헤게모니를 초래하였다. 세계적인 자본주의의 위기 타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국가 주권은 약화되고, 시민사회의 공공 생활영역은 축소된다. 점점 더해 가는 공공서비스의 사영화(privatization), 노동시장의 분화에 따른 실업문제, 계층간 빈부격차의 증폭, 생태환경의 파괴, 무력감으로 인한 인간 소외의 심화까지 시민사회를 잠식하는 많은 현상들이 초래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위한 자율화, 사영화, 개방화 등의 논리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성인교육 부문에서도,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인 고부가가치의 지식 노동 수행을 위한 인력개발형 평생학습이 두드러진다. 인간자본의 시각에서 교육과 훈련의 시장화로의 추세가 점점 더 지배적이 되고 있다.

평생교육의 이념이 인본주의적 학습사회론에서 학습경제론 혹은 경제적 가치 중심의 논의로 수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비판적인 논의에서는,¹⁾ 세계적으로 수렴되고 있는 평생교육 담론의 특징으로서 ‘생존’의 논리와 평생교육 논의의 ‘탈정치화’를 든다. 즉 변화라는 끝없는 위협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가 평생교육의 중심 가치로 대두됨으로써, 교육 논의에서 사회적·정치적 논의는 퇴색된다. 국가나 사회, 지역사회보다 우선

1) 손준중, 평생교육 담론의 세계적 수렴현상에 대한 비판적 논의, 평생교육학연구, 제7권, 제2호, 2001, pp.177-199.

개인이 살아야 다음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개인주의 논리가 강조된다.

그러나 교육이 개인의 적응, 개별적 능력을 통한 생존의 강조나 또는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인력개발에 머무를 수만은 없다. 교육이 사회를 인간화하고 보다 더 나은 사회로 변화시켜가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성인교육은 그 기원이 학교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노동자·농민들의 자발적 학습운동이라는 민중의 자발성에서 비롯되듯이, 현 상태에 초점을 두는 교육을 넘어서는 사회변혁을 위한 교육으로서의 실천적 노력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1990년 이후로 사회변화를 위한 성인교육의 전망은 상당히 달라졌다. 동유럽사회주의의 몰락, 소비에트연방의 해체, 베를린 장벽의 와해 등과 같이 사회변혁에 대한 전망을 상실시키는 사건들이 속출하는가 하면, 한편 경제논리에 의해 생활공간을 위협하는 세계화를 저지하고 세계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자발적인 사회운동들이 일고 있다. 1999년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 3차 각료회의를 압박한 세계의 NGO들, 2001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제1차 세계사회포럼, 같은 해 자마이카 오코 리오에서의 선언, 그리고 가장 최근의, 참가한 한국 시민운동 팀이 G. W. Bush 낙선캠페인을 펼쳤던 인도 뭄바이에서의 제4차 세계사회포럼 등이 모두 그러한 움직임들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서 1987년 중반이후 시민사회영역이 확대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의미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성인교육 영역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물결 속에 침해받는 시민사회의 공공 생활영역을 회복하려는 움직임과 성인교육과의 관계에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 동안 우리의 성인교육학 분야에서는, 현 사회 현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에 관련하여 성인교육을 그다지 활발히 연구해오지 못했었다. 한국의 사회교육은 단지 그 필요성이나 기능의 강조 또는 현실적 요구의 충족에만 치중해

음으로써 교육적 측면에서 사회변화를 선도하거나 그에 대비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을 형성하지 못했었다 즉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참가, 사회교육권의 확보, 나아가서는 시민운동, 여성운동, 환경보호운동, 소비자보호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지역사회주민운동 등과 연결되는 보다 폭 넓은 다원화된 사회교육으로 확대되지 못하였다.²⁾

사회정의, 사회·경제적 평등, 보다 더 나은 세계에 대한 비전을 핵심가치로 하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성인교육 연구 및 실천의 노력들보다는 오히려 사적인 전문주의 성인교육(adult education professionalism) 중심의 연구와 실천들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므로 인간자본론의 평생학습 일변도가 아닌, 사회적 목적의 가치들을 구현하는 성인교육에 대한 많은 연구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³⁾

성인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공간은 시민들이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삶을 영위하는 비제도적 생활세계이다. 최근에 들어서 비로소 이러한 시민의 생활세계에 대한 재인식에서 표출되고 있는 사회운동들과 관련하여 성인교육을 논의하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90년대 중 후반이후 등장하고 있는,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에 관련한 성인교육 연구들은 크게 이론적인 논의⁴⁾와 사회운동단체가 주관

2) 권두승, 한국사회교육의 변천에 관한 사회학적 분석,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1, pp.156-157.

3) 한승희는 우리 평생교육학계에서 성인기초교육, 노인교육, 여성교육, 노동자교육 등의 소외계층교육 그리고 인권·평화·환경 등의 시민사회교육에 대해 무관심하여 왔으며, 이전의 국가제도화로 표상되는 평생교육 지향을 넘어서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하는 노력으로서 시민사회영역에 관련한 연구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제기한다 (한승희, 시민지식연대: 사회교육의 새로운 역할,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평생교육학연구, 제6권, 제2호, 2000b, pp.129-158).

4) 한승희, 북미 성인교육의 보수주의적 배경과 비판적 성인학습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이론, 제10권, 제1호, 1996; 한승희, 전환기에 선 한국 성인교육연구- '비판적 성인학습론'을 지향하며, 평생교육연구, 제3권, 제1호, 1997; 한승희, 성인교육의 비판적 담론과 한국사회교육연구,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평생교육연구, 제4권, 제2호, 1998; 한승희, 평생교육: 실천담론의 전개와 그 쟁송지대적 성격,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평생교육학연구, 제6권, 제1호, 2000a; 한승희, 전개논문, 2000b.

하는 교육기관에서의 교육활동을 다룬 사례연구⁵⁾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전통적으로 성인교육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시민사회운동과 시민사회단체의 교육적 역할과 역량에 관련하여 성인시민교육을 논의하고 있는 연구들⁶⁾에서는, 민주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적 시민사회운동에 기여하는, 시민들의 정치사회 현실 인식 및 개선에 대한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민교육은 능동적 시민성 교육이다. 그런데 시민사회 성숙을 위한 성인시민교육 논의에서는 정작 시민운동단체 민주시민교육에서 형성시키고자 하는 능동적 시민성에 관련한 성인교육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인시민교육에 전망을 제시하는, 사회변화 노력으로서 성인교육 즉 능동적 시민성 교육에 대한 이론 형성의 노력은 빈약한 상태에 있다 하겠다.⁷⁾

따라서 사회변화를 위한 성인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성인교육을 시민사회

5) 엄기형, 한국 사회운동조직의 교육프로그램 성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6; 김미란, 시민사회단체의 시민교육 현황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김창엽, 시민운동단체의 사회교육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성낙돈, 한국 민주주의의 시민교육 평가: 참여사회 아카데미의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제6권, 제1호, 2000; 홍익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아태평화재단 정책연구 시리즈 99-13호, 2000; 신진주, 한국의 성인 정치시민교육 프로그램 분석,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김근혜, 한국시민운동단체의 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2; 양희준, 시민운동단체 교육활동 사례연구: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2.

6) 이해주, 민주시민성과 사회교육의 관련성, 사회교육학연구, 제3권, 제2호, 1997; 이해주, 사회참여를 위한 성인시민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평생교육학회·경남대학교 사회교육원 주최, 제1회 평생교육워크숍 자료, 2002년 8월21일-23일; 성낙돈, 시민단체 민주시민교육의 발전과제, 성인교육학회, 안드라고지, 제4권, 제1호, 2001; 정은주, 민주시민교육의 이념과 방향성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3.

7) 한국시민교육협의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특히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별 면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의 이론적 체계가 확립되지 못했음이 크게 지적되고 있다. 즉 현행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민주시민교육의 이론적 취약성을 들고 있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이 불명확하며, 따라서 교육기관에 따라 내용과 방법의 편차가 심하고, 교육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해진다는 지적이다(한국시민단체협의회,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 2001., <http://members.kr.inter.net/kccm>).

와 사회운동의 맥락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사회변화를 위한 성인교육 대안으로서 능동적 시민성 교육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진정한 시민사회의 실현이 시민운동의 주체로서의 시민의 능력 함양에 달린 것인 바, 시민성을 위한 교육이 그 실현의 역동적 기제가 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주체로서의 개인이 사회 환경을 인식하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합적 행위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사회적 실천행동으로 체화되는 시민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능동적 시민성 형성을 위한 성인교육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하겠다.

2. 연구의 목적과 연구문제

이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 시작되고 있는 시민사회 성숙을 위한 성인시민교육 논의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은, 능동적 시민성 형성을 위한 성인교육 연구의 필요성에 착안한다. 즉 시민사회 형성 과정에서 출현한 진보적 성인교육들을 능동적 시민성교육으로 포괄하는 이론적 정립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이 연구는 사회변화를 위한 성인교육 노력으로서의 주요 개념 및 범주로서 능동적 시민성 교육을 제기한다. 그리하여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이론적 기초를 형성해보려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살펴보게 될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변화를 위한 성인교육이 위치해 있는 성인교육의 전통은 무엇인가?.

둘째, 성인교육은 사회변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시민사회와 성인교육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시민사회에서 요구되는 성인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운동과 성인교육의 관계는 어떠한가?(사회운동들에서의 성인교육의 성격은 어떠한가?)

넷째, 사회적 목적의 전통에 입각한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이론적 기초요소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실제로서,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논거는 무엇이며,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전망은 어떠한가?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목적의 성인교육 입장에서, 시민사회와 사회운동과 관련하여 능동적 시민성 교육을 논의하기로 하겠다. 먼저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형성 배경으로서 사회변화, 시민사회, 사회운동과 관련하여 성인교육을 논의한다. 다음으로 사회운동에 연계되는, 능동적 시민성 형성을 위한 성인교육의 이론적 맥락을 구성한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사회의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실제로서,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교육 살펴보고,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잠재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론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위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저서 및 연구물들에 대한 검토, 분석을 주로 하였다. 우리 사회 능동적 시민성 교육 실제로서의 시민사회단체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은 각종 통계자료 및 조사결과보고서들에 기초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용어들로는 성인교육, 사회적 목적의 성인교육, 사회변화를 위한 성인교육, 능동적 시민성 형성을 위한 성인교육

(즉 능동적 시민성 교육), 그리고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실제로서 분석된 민주시민교육이 있다. 이 용어들에 대한 연구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교육: 성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으로서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모두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정의될 수 있다. 성인교육은 성인들이 능력을 개발하고, 지식을 확장하고, 기술적 혹은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키거나 자신의 요구 및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학습과정들의 총체로서 정의된다.

2) 사회적 목적의 성인교육: 사회적 및 도덕적 전통의 성인교육 맥락에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성인교육이다. 보다 더 나은 공정한 세계에 대한 비전을 핵심 가치로 하는, 사회변화에 있어서의 성인교육의 역할, 사회적 행동화에 초점을 두는 교육을 사회적 목적의 성인교육으로 규정한다.

3) 사회변화를 위한 성인교육: 성인들을 현 상태에 적응시키는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인간조건의 기본 조건들을 위협하는 사회 현상 속에서 사회변화의 대항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초점을 두는 성인교육을 사회변화를 위한 성인교육이라 규정한다. 이 교육은 사회적 목적에 입각한 성인교육 전통에 자리한다.

4) 능동적 시민성 형성을 위한 성인교육: 시민사회에서 능동적으로 대항할 수 있기 위한 능동적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형성하는 성인시민교육이다. 시민사회의 주체로서의 개인이 사회 환경을 인식하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합적 행위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사회적 실천행동으로 체화되는 시민성인교육을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교육이라 규정한다. 능동적 시민성 형성을 위한 성인교육은 사회변혁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교육으로, 사회운동 속에서 그리고 사회운동을 통하여 일어나는 학습이다.

이 연구에서는 용이한 문장 구성을 위해,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교육 즉 능동적 시민성 형성을 위한 성인교육을 능동적 시민성교육으로 간략히 표현한다. 이 연구는 성인교육 맥락에서 능동적 시민성 함양에 관련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기에, 능동적 시민성교육에는 ‘성인교육’으로서의 능동적 시민성교육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 하겠다.

5) 민주시민교육: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각종 사회현상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비판 능력을 함양시키는 동시에 적극적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다. 민주시민교육은 국가부문에 대한 시민사회의 형성과정과 함께 성장하면서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의 가치, 이념, 사고, 행동 등을 형성함과 아울러 그들간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해나가는 교육의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80년대 중후반 이후 급격히 성장하여, 변화된 한국사회 현실에서 사회운동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성인교육적 기능을 해온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을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실제로서 간주한다.

4.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이 연구는 능동적 시민성 교육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형성하려는 노력으로서 비롯되었다. 그리하여 관련 있는 주제들로서 사회변화, 시민사회, 사회운동, 성인교육 그리고 능동적 시민성 교육이라는 넓은 범위의 주제들을 하나의 논문 속에서 정리해내려다 보니 정밀하지 못한, 산만한 논문구성을 보이고 있다.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배경 맥락의 논의에서, 사회운동과 성인교육을 논의할 때 연구 범위의 제약상, 구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 각각에서 실시되는 성인교육 실천들(민중교육/시민교육)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비교·논의하지 않았다. 사회운동으로서의 성인교육: 성인교육운동 역시 개략적인 논의에 그쳤는데, 이는 교육자체가 사회운동이 되는 즉 민중교육운동이라는 또 하

나의 연구과제로서 조명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이론적 맥락 구성에서,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주요 개념들 및 범주들을 통하여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이론적 기초요소들을 제시하고,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합리적 논거들을 정리하였으나, 능동적 시민성 교육 분석틀 형성에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능동적 시민성 교육 실제로서, 기존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된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이 과연 얼마나 능동적 시민성 교육에 근접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민주시민교육 문제점 분석을, 한국시민단체협의회가 실시한 조사⁸⁾결과에 기초한 자료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한 민주시민교육 기초조사⁹⁾결과에 기초한 연구에 의지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와 연구가 기초해 있는 조사들의 경우, 그 조사대상 표집을 주로 『한국민간단체총람』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대량의 시민사회단체를 추출해내고 있다. 추측컨대 여기서 추출된 많은 수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사회운동에 직접 관계하는 능동적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들만으로 표집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하겠다. 즉 보수 지향의 온건한 성격을 지닌 시민사회단체, 친사회운동적 시민사회단체등 다양한 성격의 단체들이 혼합된 표집대상으로서의 시민사회단체가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 조사 결과에 기초한 분석은 분석 결과의 타당성의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시민들의 직접 참여에 의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민주시민교육을 분석하지 못한 것을 연구의 제한점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8) 한국시민단체협의회에서 실시한 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 시민사회단체 표집은 『2000한국민간단체총람』과 「진보네트워크」에 등록된 단체들 가운데서 지역별로 16개 광역시도별 단체 비율을 고려하여 비례할당 하였으며, 분야별로는 「2000한국민간단체총람」의 분류기준에 근거한 18개 분야와 자원봉사센터를 추가한 총20개 분야가 비슷한 비율이 되도록 동수할당 하였다.

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사업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 기초조사의 경우, 표집된 조사 대상은 2003년 ‘시민의 신문사’에서 발간한 『한국민간단체총편람2003』을 참고로 하여 선정된 전국 1000개의 시민사회단체였다.

한편 이 연구를 통하여, 평생학습 시장 중심의 지배적인 성인교육 경향의 균형을 되찾고자 그 사회적 역할을 촉구하는 성인교육 담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사회운동에 관련한 성인시민교육의 연구 및 실천 노력의 토대가 되는, 기초 연구로서 자리매김 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노력은 결국 우리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성장과 사회운동의 활성화를 성인교육 부문에서 돕는 일이 될 것이다.

Ⅱ.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배경 맥락: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1. 성인교육 논의의 기초

제 유형의 성인교육 논의의 기초로서, 사회와 관련한 교육의 역할, 성인 교육에 있어서 교육활동의 초점, 성인교육의 두 전통을 형성해온 경제적/사회·도덕적 기능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 사회 유지/사회 변화

사회와 관련하여 교육의 역할을 크게 사회질서 유지와 사회 개선·변화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교육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현 사회질서를 긍정하고, 현 상태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한다. 하지만 교육이 사회개선·변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사회가 지닌 문제, 모순들에 착안하여 사회를 개선·진보시킬 동력으로서의 교육을 요청한다.

정치적 및 사회적 변화가 가속화되는 이 시대에, 성인교육자들은 성인들을 현 상태에 적응시키는 역할자로서의 범위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즉 사회변화의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가야 할 것이다.

Nordhaug¹⁰⁾은 성인교육에서 기존의 사회질서체제에 대한 입장이 거부인가 혹은 지지인가와 그리고 그 지향하는 바가 집단지향이나 혹은 개인지향이나를 중심으로 분류도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 > 참조).

10) O. Nordhaug, Adult education in the welfare state: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commi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5(1), 1986, pp.45-57.

◎ 학습자 개인/사회문제

성인교육에 있어 교육활동의 초점은 학습자 개인 혹은 사회 문제에 두어져왔다.

학습자개인에게 초점을 두고자하는 사람들은 성인교육의 일차적 사명이 개인적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개인적 변화가 성인교육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라는 입장¹¹⁾에서, 성인교육 정의의 토대를 개인에 대한 위임과 개인적 변화과정에 둔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개인과 기업가의 자유 가치를 반영한다.¹²⁾ 성인교육에서 학습자개인에 대한 초점은 이러한 윤리에서 나온다. 학습공학, 자기지도적 학습, 개인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지향의 교육이 그러한 경우이다.

사회문제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은 사회 조건을 형성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이 성인교육의 요점¹³⁾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새로이 정의되고 있는 성인교육이 사회적 목적을 회복하고 있다고¹⁴⁾말한다. 민주주의 형성에 있어, 성인교육은 개인 학습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학습자들이 단합하도록 꾀한다. 즉 학습자들이 개인적인 의제들을 협동적인 계획과 집단적인 행동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데¹⁵⁾ 그 목적을 둔다. Griffin은 성인교육에서 개인에 초점을 두는 이데올로기를 지닐 수 있지만, 오늘날 국가와 기업이 성인학습의 궁극적인 형을 결정짓는

11) P. T. Beatty, The undeniable link: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and individual change, In M. W. Galbraith and B. Sisco eds., *Conversation Controversies in Challenging Times: A Call for Action*, New Directions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No.54. (San Fransisco: Jossey-Bass, 1992), p.23.

12) S. D. Brookfield, The epistemology of adult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n: A cross-cultural analysis, In B. P. Bright ed., *Theory and Practice in the Study of Adult Education: The Epistemological Debate* (London: Routledge, 1989), p.150.

13) T. W. Heaney, *Adult Education: From Center Stage to the Wings and Back Again*, Information Series No. 365(Columbus, O.H.: ERIC Clearinghouse on Adult,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1996), p.13.

14) Ibid.

15) Ibid.

주요한 역할을 함¹⁶⁾을 지적한다. 그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성장 및 변화의 의미와 가능성을 형성하는 역사적, 경제적 및 문화적 요인들에 대한 사회적 감각¹⁷⁾이 결여되어 있음을 일깨운다. Ilsley는 개인요구들에 부응하는 것은 성인교육의 임무태만이라고 본다. 그는 개인주의 그 자체로는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불평등과 사회적 부조화를 변화시키는데 충분하지 않다¹⁸⁾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성인교육이 능동적인 사회적 성격을 띠는 것을 요구하며, 현 상태에 도전하고 사회변화를 일으키고자 시도한다. 하이랜드 교육·연구센터, 변혁적 연구네트워크, 비판적 문해프로그램, 해방적 성인교육 형태들이 그러한 경우이다.

Magendzo는 개인에 초점을 두는 성인교육과 사회에 초점을 두는 성인교육을 사회 이동을 위한 교육과 사회 동원화를 위한 교육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회 이동(social mobility)을 위한 교육은 생산 활동을 위한 훈련을 그 일차적 기능으로 한다. 사회이동은 개인들 혹은 집단들이 보다 더 상위의 계층으로 사회적 사다리를 오르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정부체제는 교육을 사회이동 이데올로기를 촉진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다. 예를 들어, 직업 입문 단계의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회사관리자가 되려는 포부를 지닐 수 있다.¹⁹⁾

사회 동원화(social mobilization)를 위한 교육은 정의로운, 민주적 사회를 이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시민들을 권한 강화(empowering)하는데 관심을 둔다. 이 교육의 일차적 목표는 사회구조(the social fabric)

16) C. Griffin, A Critical perspective on sociology and adult education, In J. M. Peters and P. Jarvis, and Associates eds., *Adult Education: Evolution and Achievements in a Developing Field of Study* (San Fransisco: Jossey-Bass., 1991), p.273.

17) Ibid., p.268.

18) P. J. Ilsley, The undeniable link: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and social change. In M. W. Galbraith and B. Sisco eds., op. cit., p.30.

19) Salomón Magendzo, Popular education i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 Educations for social mobilization?, *Harvard Educational Review*, 60(1), February 1990, p.49.

의 재형성이다. 이 교육은 사회 분열을 저지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 개인들, 집단들,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들간의 연계를 이루고자한다.²⁰⁾

사회 이동(social mobility)과 사회 동원화(social mobilization)의 목표는 상반된다. 사회 이동의 목표는 개인이 한 사회계층에서 다른 사회계층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때때로 집단 혹은 계층에의 소속에 관련된 그의 정체감을 잃어버린다. 반면, 사회 동원화의 목표는 집단 내에서의 개인의 역동에 관련되는 정체감과 집단 가치들을 강화하는 것이다.²¹⁾

평생학습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중요한 이론적 입장이 존재한다. 하나는 신자유주의이념에 대해 정당성을 지니는 인간자본론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에 대한 사회민주적 접근에 관련되는 인본주의이론이다. 인간자본론은 교육을 시장과 인간자본에의 투자 면에서 얘기하며, 교육을 경제의 필요에 따라 축소시킨다. 평생학습은 역사적으로 교육을 개인과 민주시민의 시각에서 고찰하는 인본주의적 입장에 훨씬 더 가깝게 연관되어 왔다.²²⁾

오늘날 생존의 문제가 평생교육의 중심 가치로 대두됨으로써 교육적 논의에서 사회적·정치적 가치는 퇴색되고 대신에 개인주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²³⁾ 개인이 생존하기 위해 평생 동안 배움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며, 무엇을 배워야 하는 가라는 교육적·사회적 가치는 가볍게 다루어진다. 국가나 사회, 지역사회보다 우선 개인이 살아야 다음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학습요구와 책임이 철저히 개인주의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자기주도적 학습, 개인의 학습동기, 자율성, 자발성 강조는 물론이고 교육에 대한 책임 등에 있어서 개인이 그 중심에 있게 된다.²⁴⁾ 이러

20) J. Bengoa, La educación para los movimientos sociales [Education for social movements]. *Proposiciones* 15, pp.12-41 In Salomón Magendzo, op. cit, p.50

21) Salomón Magendzo, *Ibid.*, pp.50-51.

22) S. Walters, Lifelong learning within higher education in South Africa: Emancipatory potential,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45(5-6), November 1999, pp.575-587.

23) S. J. Ball, Labor, learning and the economy: A 'polity sociology' perspective, *Cambridge Journal of Education*, 29(2), pp.195-206, 손준중, 평생교육 담론의 세계적 수렴 현상에 대한 비판적 논의, 평생교육학연구, 제7권, 제2호, 2001, p.182에서 재인용.

한 개인주의적 평생교육은 개별적 능력을 통한 생존을 강조함으로써 그 성격상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²⁵⁾

◎ 경제적 기능/사회·도덕적 기능

성인교육의 발전 흐름을 살펴볼 때, 성인교육은 두 가지 본질적인 기능을 갖는 것으로 정리된다. 하나는 사회·경제적 발전에 작용하는 경제적 기능이 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보다 더 나은 사회에 대한 비전을 창출하고, 사회 정신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도덕적 정언명령으로 하는 사회적 및 도덕적 기능이다. 이는 곧 성인교육을 지속시켜온 두 가지 전통으로 얘기될 수 있다.

성인교육의 경제적 기능의 역할과 입장은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노동력 재생산으로서, 많은 숙련된 기술자들을 요구하는 사회체제에서 노동력은 과학적이고 문화적인 현대화된 지식을 지닐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동력의 재생산은 사회적 재생산의 본질적 조건으로, 성인교육은 노동력 재생산의 본질적 조건이 된다. 둘째, 과학 및 기술공학의 발전을 실현시키는 것이라 하겠는데, 성인교육은 청년교육보다 보다 더 빨리, 더욱 광범위하게 실시되며, 그리고 보다 더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에, 과학 및 기술공학의 발전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과학 및 기술공학의 발전 과정을 통해 노동 수준이 향상되며, 새로운 생산품들이 개발되고, 그리고 그 품질이 향상된다. 셋째, 과학적 경영관리 촉진으로서, 성인교육은 경영관리 인사들에게 경영 대상 인사와 기술자들에 관한 전문적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생산 증대의 중요한 요인인 과학적 경영관리를 가능하게 한다.²⁶⁾

24) 손준중, 상계논문, p.182.

25) 상계논문, p.183.

26) Xuan Cheng Xun, Explorations of the two essential functions of adult education and its evolution in China, *The Adult Education Quarterly*, 44(2), Winter 1994, 103-108.

한편, 사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성인교육의 사회적 혹은 도덕적 기능의 역할과 입장은 세 가지이다. 즉 사람들에 대한 교육, 훈련대상자의 자질 향상, 그리고 사회적 선전을 들 수 있다. 첫째, 대중의 교육 수준은 문명화의 수준을 결정한다. 성인학습자들의 이데올로기, 도덕적 및 지적 발달은 젊은 세대에게 영향을 미친다. 성인학습자들은 가정내의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지도자들이다. 그들의 정치적 관심은 직접적으로 사회적 문명화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성인교육의 발달은 사회에서 무지와 타락을 줄이고, 국가정신의 능동적 진보를 촉진한다. 둘째는 훈련 객체의 자질 향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수 및 훈련 능력이 성인교육의 유일한 목표로서 여겨지고, 그리고 그 도덕적 기능이 소홀히 여겨진다면, 이는 인간조건的重要한 요소를 누락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계속적인 도덕적 및 정치적 교육을 통해서만이 반성적 사고가 길러질 수 있다. 즉 성인교육에서 도덕적 및 정치적 교육을 함으로써 성인학습 참여자들은 그들의 힘을 인식하게 되고, 그들의 학습기회를 잘 활용하고, 장애들을 벗어 던지며, 그리고 학습과제를 순조로이 끝마칠 능력을 개발한다. 사회적 혹은 도덕적 기능의 교육의 셋째는 선전(propaganda)이다. 성인교육 특히 문화적 교육은 사회적 선전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다. 성인교육 교재, 자습책, 및 잡지들은 분명한 사상적 입장을 견지하여 서술되기에, 이들은 대중, 따라서 국가적 풍토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선전을 하는 셈이다. 그리고 성인교육자들의 사회적 행동들은 성인교육의 직접적인 범위를 넘어선다. 특히 현재 사회 속에서의 변화에 자극된 지적인 교류는 그들의 재능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만드는데, 따라서 그러한 재능은 사회전체의 정신적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²⁷⁾

이상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 표 1 >로 정리해 볼 수 있다.

27) Ibid.

< 표 1 > 성인교육 논의를 위한 분석 틀

	사회	개인
경제적 기능	과학·기술공학 발전을 위한 교육 국가경쟁력, 기업 경영훈련·고용 유연성을 위한 교육 인적자원개발, 제도적 전문주의 교육	개인의 생존(지속적 고용가능성)을 위한 교육 사회 이동을 위한 교육
사회·도덕적 기능	보다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를 위한 교육 사회 동원화를 위한 교육 참여민주주의·시민사회 강화를 위한 능동적 시민성 교육	인본주의적 입장의 교육(개인의 권한 강화·시민 형성) 실직자·기능적 문맹인·노숙자를 위한 사회복지 모형에서의 교육

경제적 기능을 행하는 성인교육에서, 성인교육 활동의 초점이 개인에 있는 경우와 사회에 있는 경우 드러나는 교육현상들은 서로 무관하지 않다. 기업의 고용의 유연성을 위한 교육, 인적자원개발과 제도적 전문주의 교육은 개인의 생존을 위한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 즉 이러한 교육들을 통하여 개인은 지속적 고용가능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사회이동을 피하고자 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적 조건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 받을 필요성이 강조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주변적인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사회·도덕적 기능을 행하는 성인교육에서 드러나는 교육현상들 또한 서로 무관하지 않다. 인간을 자본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가치를 강조하는 인본주의적 입장은 사회민주적 접근으로 이어진다. 개인의 권한강화는 참여민주주의·시민사회 강화를 위한 교육과 관련된다. 하지만 실직자·기능적 문맹인·노숙자를 위한 사회복지모형에서 택하고 있는, 개인적 요구에 부합하려는 성인교육프로그램들은 오히려 현 상태를 유지하고자 실시된다. 따라서

현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에서 사회에 초점을 두는, 사회변화를 위한 능동적인 성인교육을 요청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 문제에 초점을 두고서 사회·도덕적 기능을 실현하는 성인교육에 관심을 둔다. 이러한 사회적 목적의 입장에서, 사회변화를 위한 성인교육으로서 능동적 시민성 교육을 논의한다.

2. 사회변화를 위한 성인교육

사회변화를 위한 성인교육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로서 먼저 성인교육에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1) 성인교육

성인교육 논의의 기초로서 성인교육의 개념, 목적 및 목표, 그리고 성인교육 전통과 관련한 성인교육 연구모형들을 살펴볼 수 있다.

(1) 성인교육의 개념

성인교육의 개념은 그렇게 명료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다.

연대기적 연령 및 사회적 지위를 기초로 하는 규범적인 개념인 ‘성인기(adulthood)’ 분석에 기초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정적, 도덕적으로 성숙 발전해가는 성인이 자발적인 과정을 통해 ‘가치있고 보람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²⁸⁾으로 보인다. 이는 인문주의 철학의 입장으로, 이러한 개념에 따르게 되면 인문주의적이지 않은 직업교육, 여가교육 등과 같은 교육은 성인교육과 구별된다.

28) R. W. Paterson, *Values, Education and the Adult* (Bost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8).

Lawson은 성인의 교육(education of adults)과 성인교육(adult education) 양자를 구별한다.²⁹⁾ 그는 성인들의 교육은 성인들이 참여하는 모든 형태의 학습활동이며, 성인교육은 규범적인 것이라고 규정하여, 성인들의 모든 학습활동을 총칭하는 미국식 성인교육의 활동을 거부한다. 말하자면 전자를 광의의 성인교육 그리고 후자를 협의의 인문적 성인교육으로 볼 수 있다.

영국에서 '성인의 교육'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성인교육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영국에서 '성인교육'이란 개념은 중산층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교양교육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왔는데, '성인의 교육'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오히려 민중을 지향하는 교육으로서의 민중교육(popular education), 노동자교육(workers education) 등의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³⁰⁾ 미국에 있어서는 1920년대에 들어서 미국성인교육협회가 조직되고, 그에 의해서 자유교양교육에 중점을 두는 좁은 의미에서의 '성인교육(adult educatio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카네기재단의 개입과 1924년 이후의 성인교육의 보수화 현상은 상당부분 시장메카니즘에 민감한 기능주의에로 환원시켰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은 가정교육, 민중교육, 그리고 대학확장교육 등이었다. 이 중에서도 미국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개념들은 민중교육과 확장교육이었다.³¹⁾

일반적으로 성인교육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총칭한다. 즉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모두를 포함한다. 영국적 맥락에서 성인교육(adult education)은 특별히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직업교육은 배제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성인의 교육

29) K. H. Lawson, *Philosophical Concepts and Values in Adult Education* (Nottingham, England: Barnes and Humby Ltd., 1975).

30) 한승희, 전계논문(1998), p.35.

31) H. W. Stubblefield and J. W. Rachal, On the origins of the term and meanings of adult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dult Education Quarterly* 42(2), 1992, pp.106-116.

(education of adults)은 자유교양교육 중심의 성인교육뿐만 아니라 직업계속교육까지도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후에 생성되었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이러한 구분을 넘어서 성인교육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체로 1976년 유네스코 회의에서의 정의 즉 ‘성인교육은 내용, 수준, 방법 및 형식성, 비형식성에 상관없이 성인에 적용되는 모든 교육적 과정을 설명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³²⁾ 여기서 교육적 과정은 충분한 인간발달과 독립적인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발달에의 참여 두 시각에서 성인들의 태도 또는 행동상의 변화를 야기한다.³³⁾

1997년 UNESCO가 설정한 정의에 의하면,³⁴⁾ 성인교육은 성인들이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지식을 확장하고, 그리고 기술적 혹은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그들 자신들을 자신의 요구 및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형식적인 혹은 그렇지 않은 학습과정들의 총체이다. 성인학습은 형식교육과 계속교육, 비형식학습 그리고 무형식학습과 우연적 학습을 총망라한다. 성인교육은 성인들과 지역사회공동체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경제에서, 문화에서 그리고 전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수행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공동체들 속에서의 시민들의 공존, 관용, 및 정보를 갖춘 창의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성인들과 지역사회공동체들이 앞에 놓인 도전들에 직면하여 사회와 그들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성인의 학습’은 성인계속교육의 영역을 포괄하며, 성인계속교육은 이 중에서 고등교육 영역에서의 전일제 학습을 제외한 다른 모든 형태의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성인계속교육은 초기교육 이후의 성인의 계속교육 및 비형식, 무형식교육에 중점을 둔다고 볼 수 있다.³⁵⁾

32) 김중서 외 3인 공저, 평생교육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0), p.13.

33) UNESCO, Recommendation of the Development of Adult Education,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19th session, Nairobi, 26 November, 1976.

34) CONFINTEA V, The Hamburg Declaration on Adult Learning,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ult Education, Hamburg from 14-18 July, 1997.

35) 한승희, 전계논문(1997), pp.103-104.

우리나라에서는 이전부터 ‘성인교육’이라는 말 대신 ‘사회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이는 1949년 사회교육법의 제정으로 사회교육이라는 말의 법적 개념을 규정한 일본으로부터의 영향이라고 보겠는데,³⁶⁾ 그로 인해 ‘성인교육’과 함께 용어 사용의 혼란을 불러일으켜 온 것이 사실이다.

사회교육은 넓은 의미에서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유아교육도 포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로서는, 유아교육을 제외한 학교 외 교육을 말한다. 즉 의무교육 이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과 성인들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좁은 의미에서의 사회교육은 흔히 성인교육과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한국적 상황에서 ‘사회교육’은 그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특성들로 인해 단지 ‘학교 밖 교육의 총칭’이라는 사전적 의미로서보다는 “민중교육, 노동교육, 문해교육 등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영역을 관통하는 인본주의적 민중지향성에 의거한 독특한 접근법을 특징으로 하는 성인교육활동의 한가지 조류”³⁷⁾로서 간주될 수 있다. 사회교육의 본질은 민중의 요구에 기초한 민중 자신들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공통된 집단적 요구에 기초한 교육목적의 달성은 당위적이다.³⁸⁾ 즉 사회교육은 개인중심이라기 보다 집단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교육인 것이다.

성인교육에 대한 정의는 그 철학적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 즉 행동주의자들은 교육적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인의 행동변화라고 정의하며, 급진적 성인교육자들은 문화내의 사회·정치적 모순에 대한 대중들의 의식을 진작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그리고 인본주의적 본질주의적 성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인의 내적인 성장과 발달로서 정의한다.³⁹⁾

36) 이규환, 사회교육론 (서울: 배영사, 1992), pp.18-19.

37) 한승희, 전개논문(1998), p.36.

38) 이규환, 사회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개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7), p.361.

39) G. G. Darkenwald and S. B. Merriam, *Adult Education: Foundations of Practice*, 백종역 역, 성인교육의 이론과 실제(서울: 덕성여자대학교 출판부, 1986), p.51.

이상에서와 같이, 성인교육 개념 정의는 일반적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른 기준에서 정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인교육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으로서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모두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규정한다.

(2) 성인교육의 목적 및 목표

성인교육의 개념은 역사적 맥락과 이념지향성을 띠고 있기에, 성인교육의 목적 및 목표는 철학적 관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성인교육의 철학적 관점에 따라 그 목적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자유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있는 성인교육의 경우 가치있는 지식의 전수와 지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인본주의·실존주의적 관점에 선 성인교육은 인간존재로서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자의 자아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끝으로 진보주의적 관점의 성인교육에서는 개인적인 성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질서에 대한 책임있는 시민으로서 성숙됨과 동시에 문명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세계 속의 시민으로서의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⁴⁰⁾

Bryson은 성인교육의 목적을 인문교양적·업무적·관계적·교정적·정치적 목적의 다섯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그 후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성인교육의 목적을 제시해 왔는데, 이를 Bryson의 분류를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¹⁾(< 표 2 > 참조).

첫째로 인문교양적 목적은 인문학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학습을 통해 인문적 교양을 증진시키는데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목적의 성인교육에서는 지식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고 믿으며, 교육받은 사람을 기르는 데

40) 한상길, 사회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1995).

41) S. B. Merriam and R. G. Brockett, *The Profession and Practice of Adult Education: An Introduc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97), pp.17-22.

서 성인교육의 가치를 찾는다. 여기에 동의하는 학자로는 Bryson 외에도 Grattan, Rachal 등이 있으며, Darkenwald와 Merriam은 이를 ‘지성의 연마’로 표현하였다. 특히 Rachal은 인문교양적 목적과 함께 학문적 목적을 별도로 나열할 정도로 이 부분의 목적을 강조하였다.

둘째로 업무적 목적은 직업적 준비, 경력개발, 개인적·사회적 향상, 생산성 촉진 등으로 함축된다. 이러한 목적의 성인교육은 직무 준비, 직무 훈련, 경영관리훈련 등으로 나타나며, 이는 대부분 인간자원개발(HRD)로 묶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목적에 대하여 Apps는 경력 개발로, Beder는 생산성 촉진으로, Darkenwald와 Merriam은 인간성장으로 표현한 바 있다.

셋째로 관계적 목적은 개인의 발달, 개인의 자아실현, 인간관계의 개선에서 성인교육의 가치를 찾는다. 이 경우 성인교육에서는 인간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며, 효과적인 관계 발달을 돕고, 리더쉽 훈련을 제공하며, 자기 존중감 향상과 자아실현 효과를 촉진하려 한다. 또한 가정, 가족, 여가에 관한 학습 등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한 목적에 대하여 Grattan은 정보 제공 및 여가 오락으로, Darkenwald와 Merriam은 개인적 자아실현으로, Apps는 인간 발달로, Rachal은 자조(self-help)로, Beder는 인간 성장 고양으로 표현하였다.

넷째로 교정적 목적은 기초 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갖추도록 교정 또는 보상하는 성인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에 내포된 성인교육은 문해에 관련된 성인기초교육 프로그램, 성인고교과정 이수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기초기술개발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한 목적에 대하여 Apps는 교정적 목적으로, Rachal은 보상적 목적으로 표현하였다.

다섯째로 정치적 목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시민적·사회적 책임, 문화적 비판과 사회적 행동 등을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이주민들을 위한 시민성교육, 사회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적인 포럼 등이 있다. Liveright는 이 범주의 목적을 시민적 및 사회적 책임으로, Beder는 좋은 사회질서 지지와 유지, 변화의 촉진 등으로 표현하였다. 보다 더 급진적인 견해를 가진 학자로 Apps는 문화적 비판과 사회적 행동으로, Darkenwald와

Merriam은 사회변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성인교육의 목적은 성인들을 현 상태에 적응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도록 급진적인 교육적 노력들을 포함하게 된다.

< 표 2 > 성인교육의 목적과 목표

Bryson (1936)	Grattan (1955)	Liveright (1968)	Darkenwald and Merriam (1982)	Apps (1985)	Rachal (1988)	Beder (1989)
인문교양적	인문교양적	-	지성의 연마	-	인문교양적	-
업무적	직업적	직업적	개인적 / 사회적 향상	경력개발	직업적	변화 촉진
관계적	정보제공 / 여가 오락	자아실현 / 개인과 가족	개인적 자아실현	개인적 발달	자조 (self-help)	인간성장 교양
교정적	-	-	-	교정적	보상적	-
정치적	-	시민적 / 사회적 책임	사회 변혁	문화적 비판과 사회적 행동	-	좋은 사회질서 지지와 유지
-	-	-	조직의 효과성	-	-	생산성 촉진
-	-	-	-	-	학문적	-

출처: Sharan B, Merriam & Ralph G. Brockett, *The Profession and Practice of Adult Education : An Introduction*, San Francisco : Jossey-Bass Inc., 1997, p.19.

(3) 성인교육의 두 전통에 관련한 성인교육 연구모형

성인교육의 발전 흐름을 살펴볼 때, 성인교육은 두 가지 본질적인 기능을 갖는 것으로 정리된다. 하나는 사회·경제적 발전에 작용하는 경제적 기능이 고, 다른 하나는, 보다 더 나은 사회에 대한 비전을 창출하고, 사회정신을 향상시키는 것을 추구하는 사회적 및 도덕적 기능이다. 이는 성인교육을 지속시켜온 두 가지 전통이다.

이와 같은 두 성인교육 전통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인교육 연구모형들을 살펴볼 수 있다.

Quigley는 성인교육에 대한 사회정책들이 철학적 지향을 반영하고 있음을 분석하여 성인교육 관련 정책 모형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⁴²⁾

첫째는 시장모형(the market model)이다. 이는 행동주의 철학에 의해 뒷받침되며, 북아메리카에서 지배적인 모형이다. 시장모형은 교육정책을 통해 경제적 활력을 불러일으키는데 관심을 갖는 것으로, 전문주의 교육(professional education)에서부터 직업적 문해(work-place literacy)에 이르기까지 직업주의 성인교육(adult education vocationalism)을 지지·촉진하는 교육정책들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는 개인주의와 최소의 정부 개입을 특징으로 하며, 기초교육,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에 있어 측정 가능한 준거에 기초한 책무성(accountability)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장모형은 성인교육을 포함하는 공적 기금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중재들에 있어 경제적 생산성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그 토대로 하고 있다.⁴³⁾ 자본주의 패러다임이 성인교육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사회정의(social justice)를 하층의 사회성원들이 더 많은 수입과 물질적 재화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등식화하는 것이며, 그리고 사회적 위치(social position)는 경제적 위치인 것으로 등식화하는 것이다. 다른 영향은, 성인교육이 주로 학습자의 비용부담으로 실시되기에, 성인교육은 기업가적, 기술적, 및 시장추구적 사업이 되는 것이다.⁴⁴⁾

두 번째 모형은 진보주의-자유주의적 복지모형(progressive-liberal welfare model)이다. 이 모형에서는 사회의 그리고 개인의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능동적이고 직접적인 정부의 개입이 옹호된다. 그 예로서, 미국의 1930년대의 뉴딜 정책과 1960년대 중반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이 모형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엔 도전을 받게 된다.

42) B. A. Quigley, To shape the future: Towards a framework for adult education social policy research and 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2(2), 1993, pp.117-127.

43) H. Beder, Dominant paradigms, adult education, and social justice, *Adult Education Quarterly*, 37(2), 1987, p.107.

44) Ibid., pp.105-113.

그러나 오늘날 성인교육이 사회에서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능동적인 사회적 의제를 지닐 것을 요청하는 사람들⁴⁵⁾은 실직자, 기능적 문맹인, 노숙자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에서 이러한 사회복지모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충분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현 상태를 유지하고자 실시된다고 비판한다. 그들은 오히려 현 사회조직에서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시도되는, 현 상태에 도전하는 능동적인 성인교육을 요청한다.

세 번째는 사회적 재분배 모형(social redistribution model)으로서, 이는 사회변화를 주장하는, 보다 더 해방자적인, 사회적 재건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북아메리카 밖에서 더 우세한 이 모형은 대항체제모니적(counter-hegemonic) 실천행동을 요청하는 개혁주의자들, 즉 지역사회에 기초한 이데올로기들에서부터 나아가 사회문제들에 대하여 계급투쟁적 접근을 택하는, 전통적인 사회경제적 재구성에 이르기까지의 성인교육 실천에서 나타난다.

Nordhaug은 노르웨이의 성인교육을 역사적으로 분석함에 있어, 성인교육에서 기존의 사회질서체제에 대한 입장이 거부인가 혹은 지지인가와 그리고 그 지향하는 바가 집단지향이나 혹은 개인지향이나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분류도식을 제시한다⁴⁶⁾ (< 그림 1 > 참조).

여기서, I 은 사회질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서, 정치적 교육 및 급진적 저항을 포함하는 계급투쟁이 해당된다. II는 사회질서를 개인적 차원에서 거부하는 것으로서, 종교적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 III은 사회질서체제 유지에 초점을 두고서 주로 비문해자, 이주민, 죄수들에게 집단

45) P. M. Cunningham, International influences on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In J. M. Peters and P. Jarvis, *Adult Education : Evolution and Achievements in Developing Field of Study*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91), pp.347-380; C. Griffin, A critical perspective on sociology and adult education, In J. M. Peters, P. Jarvis, and Associates eds., *Adult Education: Evolution and Achievements in a Developing Field of Study*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91), pp.259-281.; K. Rubenson, The sociology of adult education, In S. B. Merriam and P. M. Cunningham eds., *Handbook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89), pp.51-69.

46) O. Nordhaug, Adult education in the welfare state: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commi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5(1), 1986, pp.45-57.

적으로 성인교육이 실시되게 되는 사회정책이 해당된다. 그리고 IV는 성인교육이 사회질서체제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고서 개인지향적으로 실시되는 경우이다. 여기서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이익이며, 그리고 강좌들은 순전히 상업적인 목적에서 제공된다. 여기서 집단적인 차원에서 사회질서를 거부하는 I 과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질서를 거부하는 II는 사회 개선, 변화, 나아가 변혁을 지향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질서 거부	사회질서 지지
집단 지향	I	III
개인 지향	II	IV

출처: O. Nordhaug, Adult education in the welfare state: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commi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5(1), 1986, pp.45-57.

< 그림 1 > 성인교육 및 그 사회적 실시 정도의 분류 도식

Paulston과 Altenbaugh는 성인교육을 성인교육 프로그램의 목표가 사회변화를 지향하는 정도면(높음, 중간정도, 낮음)에서와 그리고 성인교육 프로그램 통제면(프로그램을 개인이 통제하느냐 혹은 형식체제가 통제하느냐)에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고 있다⁴⁷⁾ (< 그림 2>참조).

아래 < 그림 2 >에서, 유형1은 기업체, 정부, 군대 등의 형식체제에서 체제 향상과 더욱 높은 효율성을 위해 실시되어온 전통적인 성인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사회의 균형 상태에서의 훈련을 예로 들 수 있다. 유형2는 개인적 성장, 자아실현 그리고 여가생활에 초점을 두고 실시되는, 소비자지향적 성인교육 프로그램이다. 유형1과 2는 사회개혁에 기여하는 정도가 목표 수준에서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다.

47) P. Paulston and R. Altenbaugh, Adult education in radical U.S. social and ethnic movements, In T. Lovett ed., *Radical Approaches to Adult Education: a Reader* (London: Routledge, 1988), pp.114-137.

그리고 유형3은 개인의 의식고양과 투쟁의 실천을 위하여 성인교육이 실시되는, 인간해방을 위한 투쟁을 지지하는 급진적 인본주의 성인교육 프로그램이다. 그 예로서 ANC,⁴⁸⁾ ETA,⁴⁹⁾ 블랙팬더당,⁵⁰⁾ Weatherman⁵¹⁾등에서의 성인교육이 있다. 유형4는 성인교육이 형식체제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중국, 쿠바, 이란, 니카라과, 베트남 등의 혁명적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급진적 구조주의적 성인교육이다. 유형3과 4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재구성을 위한 의제들을 지닌다.

사회변화를 지향하는 목표 수준면에서 중간 수준인 유형5는 대규모의 점진적인 사회변화를 추구하여 집단적으로 실시되는 개혁주의 성인교육이다. 그 예로서 소비조합운동, 시민권운동, 여성운동, 평화운동, 노동운동 등에서 성인교육이 있다.

Cunningham은 최근의 분석에서, 성인교육이 “강력한 내포적인 참여민주주의 형성이라는 비전을 상실”⁵²⁾하였다고 기술한다. 오히려 성인교육은 연방 수준의 정책에서 나타나듯이, “전문주의와 현재 상태의 사회적 재생산에 관련해 있다”⁵³⁾는 것이다.

48) 아프리카민족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를 말한다. 1912년 요하네스버그의 아프리카인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던 ‘남아프리카 원주민민족회의’가 1923년 ANC로 개명되었다. 아프리카인의 권리옹호를 목적으로 저항적 민족운동을 전개한다.

49) ‘자유조국 바스크(Euskadi ta Askatasuna)’조직을 말한다. 1959년에 결성된 ‘자유조국 바스크(ETA)’는 스페인내 바스크족들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며 납치, 폭파, 테러를 벌여 온 민족종족주의 테러조직이다.

50) Huey P. Weton과 Bobby Seale에 의해 1966년에 결성된 저항단체이다. 블랙팬더당은 캘리포니아의 흑인지역, 오클랜드의 거리에서 시작되었다. 백인이 지배하는 미국사회에서 평등한 대우와 기회로부터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모순들에 반응하였다. 이데올로기에 있어 프란츠 파농, 말콤 엑스, 마오쩌둥의 영향을 받았다.

51) 공산주의자 남녀들로 이루어진 미국 반체제 지하 혁명조직(Weather Underground Organization)을 말한다.

52) P. M. Cunningham, U.S. educational policy and adult education: Social control; social demand; and professional adult educator participation, *Conference Proceedings of the 36th Annual Adult Education Research Conference* (Edmonton, Alberta, Canada: University of Alberta, 1995), p.86.

53) Ibid., p.87.

		성인교육 프로그램 통제	
		개인	형식체제
사회변화를 위한 성인교육 목표	높음	<p>유형 3 급진적 인본주의 성인교육 프로그램 인간해방을 위한 투쟁 (ANC, ETA, Black Panders, Weatherman 등)에서의 성인교육</p>	<p>유형 4 급진적 구조주의 성인교육 혁명적 사회(중국, 쿠바, 이란, 니카라과아, 베트남 등)에서의 성인교육</p>
	중간	<p>유형5 개혁주의 성인교육 대규모의 점진적인 사회변화를 추구하여 집단적으로 실시되는 노력들(소비조합 운동, 시민권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평화운동 등)에서의 성인교육</p>	
	낮음	<p>유형 2 소비자지향적 성인교육 프로그램 개인적 성장, 자아실현, 레크레이션, 여가생활 등 개인적인 자기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교육 강좌들</p>	<p>유형 1 전통적인 성인교육 프로그램 정부, 기업체, 군대 등에서 체제의 향상과 더 높은 체제 효율성을 위해 실시되는 훈련</p>

출처 : P. Paulston and R. Altenbaugh, Adult education in radical U.S social and ethnic movements 1988, T. Lovett ed., *Radical Approaches to Adult Education : a Reader* (London : Routledge, 1988), p.119.

< 그림 2 > 성인교육 프로그램 유형 분석모형

본 연구는 광의의 성인교육 개념에 입각, 사회적 및 도덕적 전통의 성인교육 맥락에서 사회변화를 지향하는 성인교육에 관심을 갖는다. 즉 성인들을 현 상태에 적응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기보다는, 인간생활의 기본 조건들을 위협하는 사회 현상 속에서 사회변화의 대행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초점을 두는 성인교육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사회변화와 성인교육과의 관계

사회변화란 용어는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것은 기존의 사회질서 안에서의 변화 즉 기존의 사회제도에서 어떤 것을 중단하거나 혹은 파괴하는 소극적인 변화 예를 들면, 자연환경의 훼손, 번식률의 감소, 범죄의 증가와 같은 과정들에서부터 그러한 현상에 관련되는 사회운동 활동들에 이르기까지를 말할 수도 있고, 한편 기존의 사회질서 자체의 변화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사회변혁을 의미할 수도 있다. 적극적인 사회변혁은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사회질서를 변혁하기 위해 보다 더 공정한, 자유롭게 하는 그리고 민주적인 실천행동을 통하여 사회를 변혁하려 시도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갖는다.

이러한 기존의 사회질서 안에서의 변화에서부터 사회질서 자체의 변혁에 이르기까지의 사회변화에 미치는 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 즉 사회변화와 성인교육의 관계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성인교육을 사회변화와 관련하여 논의함에 있어, 우선 성인교육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성인교육이 직접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주장들을 살펴볼 수 있다. Paulston과 Altenbaugh는 핀란드이주노동자대학(Finnish Labor Colleges)과 블랙팬더당(the Black Pander Party)에서의 여러 가지 성인교육 형태를 논의함에 있어, 급진적 사회운동들 속에서의 성인교육은

문해와 같은 기본적 기능을 가르치거나 혹은 소비자협동조합 또는 건강센터를 운영하는데 관계했을 뿐 교육자체가 사회변화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며, 사회운동 행동들이 사회변화로 연결되는 급진적인 성격을 보인 것이라고 결론짓는다.⁵⁴⁾

Mayo는 Paulston과 Altenbaugh의 견해에 동의한다.⁵⁵⁾ 그는 성인교육은 그 과정에서 그리고 그 내용이 아무리 해방적이라고 할지언정, 성인교육 그 자체로서 사회를 변혁하지는 않으며, 사회변혁으로 인도한다⁵⁶⁾고 말한다.

Zacharakis-Jutz 또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성인교육을 그 자체의 사회운동인 것으로 보고 있는 인식을 잘못된 것으로 여긴다. 명백히 교육은 그 자체로의 사회운동일 수가 없으며, 오히려 교육은 사회운동 내에서의 지식을 형성시키는 권력도구인 것이라고 주장한다.⁵⁷⁾

그러나 Hall은 성인교육에 대한 정치경제적 견해를 고려하면, 성인교육이 사실상의 어떠한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있어 수단적인 도구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⁵⁸⁾ 그는 관여, 참여, 정치적 행동은 성인교육에 있어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것은 수세기에 걸친 근본 원리라고 진술한다.

Cunningham은 사회변화가 교육을 통해 실행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반응에 있어 낙관적이다. 그녀는 성인교육자들이 성인들이 그들의 고유한 지식을 창조하고, 보급하고, 정당화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사고하고 하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정도만큼 사회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⁵⁹⁾ 이른

54) R. G. Paulston and R. J. Altenbaugh, op. cit., p.134.

55) M. Mayo, When does it work? Freire's pedagogy in context, *Studies in the Education of Adult*, 25(1), 1993, pp.11-13.

56) Ibid., p.4.

57) J. Zacharakis-Jutz, Highlander Folkschool and the labor movement, 1932-1953.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31 940).

58) B. Hall, Continuity in adult education and political struggle, *Convergence*, 11(1), 1978, pp.8-15.

59) P. M. Cunningham, The adult educator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R. Brockett ed., *Ethical Issues in Adult Education* (New York: Teachers Press, 1988), pp.133-145.

바 교육은 사회변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⁶⁰⁾는 입장이다.

교육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비전을 가졌던 Nyerere는 그의 에세이 ‘자조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self-reliance)’에서 교육에 대한 그의 생각을 표현한다. Nyerere는 자유, 정의, 평등을 위한 사회적 및 경제적 조건을 형성하는데 있어 그들 스스로와 그리고 그들 자신의 자원에 의지하는 보통 사람들의 능력으로서 자조(self-reliance)를 들고 이를 위한 교육을 논의한다. 그에게 있어서, 학문적인 ‘책을 통한 학습’과 전통적인 ‘삶과 행동을 위한 학습’ 양자를 포괄하는 교육은 아프리카 사회주의의 세 가지 기본원리 즉 평등과 인간존엄에 대한 존중, 생산되는 자원의 공유, 모든 사람들이 일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착취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실현에 있어 핵심요인인 것이다.⁶¹⁾

O'Sullivan은 교육 실천행동에 기초하여 사회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사회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⁶²⁾

Holford는 성인교육은 민주적인 사회진보 운동에 기여하는 하나의 대의라고 여긴다. 그리고 사회운동으로서의 성인교육의 쇠퇴로 성인교육운동의 개념이 점점 더 지속되기 어려워졌지만, 사회운동과 연관된 성인교육 활동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남아 있다고 본다.⁶³⁾

이상의 주장들을 참고하면, 사회변화와 성인교육과의 관계는, 성인교육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다고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이 시사된다. 즉 사회변화와 성인교육은 따로 분리시켜 논의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

60) C. A. Torres, *The Politics of Nonformal Education in Latin America*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90), p.ix.

61) I. Martin, Education, self-reliance and socialism, *Adult Learning*, 14(5), January 2003, p.28.

62) D. O'Sullivan, *Social Commitment and Adult Education* (Cork: Cork University Press, 1989).

63) J. Holford, Why social movements matter: Adult education theory, cognitive praxis, and the creation of knowledge, *Adult Education Quarterly*, 45(2), 1995, pp.95-111.

Horton과 Freire는 교육과 사회변화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즉 Horton은 교육이 조직화(organizing)를 가능하게 만들지만, 조직화와 교육은 관심이 서로 다르고, 강조점이 서로 다르며, 그리고 그가 속했던 하이랜더는 그가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다고 말한다.⁶⁴⁾ 한편 Freire는 우리가 동원화(mobilizing) 혹은 조직화(organizing)의 과정에 있을 때, 그 과정은 또한 교육적 문제(educational problem)로서 인식되게 되며, 그리고 교육 없이 조직화는 불가능하며, 바로 조직화 과정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⁶⁵⁾라고 하여 사회변화를 위한 혁명적 실천행위 즉, 프락시스에 있어서 교육과 변화의 변증법적 관계를 포착한다.

이러한 Freire의 입장은 우리나라 시민운동단체 교육활동 사례연구⁶⁶⁾에서, ‘시민의식의 함양’과 ‘조직화’가 분리되어 사고될 수 없으며, ‘시민의식의 함양’은 ‘조직화’의 결과를 낳고, ‘조직화’는 ‘시민의식’의 발전을 담보한다는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다.

사회변화와 성인교육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양자의 상호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인식을 토대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변화에 미치는 성인교육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성인교육에서 무엇을 지향하여 교육하고 있는가에 관련하여서만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⁶⁷⁾이라고 하겠다. 다만 분명한 것은 교육 그 자체가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육은 사회변화 과정의 통합적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함은 물론이라는 사실이다.

64) M. Horton and P. Freire, *We Make the Road by Walking: Conversations on Education and Social Change*, B. Bell, J. Gaventa, and J. Peters, eds.,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90).

65) Ibid.

66) 양희준, 전계논문, p.97.

67) T. Lovett ed., op. cit., pp.300-302.

3) 사회변화를 위한 성인교육

실천 분야로서 성인교육의 발달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 서로 다른 운동에 연관되어 이루어져왔다. 즉 하나는 사회변화 혹은 사회적 행동화에 관련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 및 경제적 개발을 강조하는 것이다.

북아메리카와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다 더 개발된, 기술을 연마하고, 지식을 갖춘 개인을 양성함으로써 강력한 경제에 기여하는 교육을 신봉해 왔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현 상태에 초점을 두고 있고, 반면 그 패러다임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변적인, 일탈된, 혹은 결여된 존재로 간주한다. 교육자들 자신은 요구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보다 더 효율적이고, 숙련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정통하도록 훈련된다.⁶⁸⁾

한편 사회적 행동화에 대해 초점을 두는 전통이 있어 왔다. 즉 성인교육이 사회변화를 야기하는 데 있어 그 전통이 드러난다. 성인에 대한 교육은 사회적 활동이지 훈육(a discipline)이 아니며 그것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성인교육은 사회적 변혁에의 기여자였고, 또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하다.⁶⁹⁾ 사회를 변혁하는데 관심을 갖는 성인교육 유형으로서, 변혁적인 성인교육, 세계교육, 평화 및 가치교육, 지역사회개발교육, 사회정의교육, 민중교육 그리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질서를 위한 성인교육, 해방적 성인교육 등이 있다.⁷⁰⁾ 이러한 전통에 입각해 있는 성인교육을 사회적 목적의 성인교육(adult education of the social purpose)⁷¹⁾이라

68) S. B. Merriam and R. G. Brokett, op. cit., p.248.

69) P. M. Cunningham, Making a more significant impact on society, B. A. Quigley ed., *Fulfilling the Promise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New Directions for Continuing Education*, No.44 (San Francisco: Jossey-Bass, 1989) p.40, quoted in S. B. Merriam and R. G. Brokett, Ibid., p.248.

70) M. Hart, Critical theory and beyond: further perspectives on emancipatory education, *Adult Education Quarterly*, 40(3), 1990, pp.125-138; T. Heaney, When adult education stood for democracy, *Adult Education Quarterly*, 43(1), 1992, pp.51-59; J. Mezirow, Understanding transformation theory, *Adult Education Quarterly*, 44(4), 1994, pp.222-232; W. A. B. Gregory, op. cit.

71) R. Johnston, Adult learning for citizenship: towards a reconstruction of the

일컫는다.

사회적 목적의 성인교육은 오랜 시간에 걸친 풍부한 전통과 그리고 광범위한 다양한 맥락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 목적의 성인교육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개인들에게 제공하는데, 그리고 특히 노동 계층의 구성원들에게 민주적인 사회에서 충분히 역할을 수행하거나 또는 급진적인 사회변화를 야기하고자 사회의 불평등과 불의를 위협하는 지적인 도구를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⁷²⁾ 사회적 목적의 성인교육은 민중교육, 지역사회교육, 급진적 성인교육, 프레이리 성인교육, 사회적 행동교육 그리고 비판적 교육의 서로 다른 관심 및 전통들과 의미 있게 중복된다. 사회적 목적의 성인교육은 교육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정의, 더 큰 사회적 및 경제적 평등, 비판적 민주주의의 고양, 보다 더 나은 공정한 세계에 대한 비전을 핵심 가치로 한다. 사회적 목적의 성인교육은 그 목표들에 있어, Freire에 의하면 ‘세계를 변혁하기 위한 세계에 대한 반성이자 곧 행동인 것’⁷³⁾ 즉 프락시스를 우선한다. 이러한 가치들과 목표에 연관되는 활동 방식들로서 비형식성과 자율성에 대한 관심, 위계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한 활동, 문제를 제기하는, 쟁점에 기초한, 비판적인 학습의 전개, 대화와 신뢰 형성,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 보장이 중요하다⁷⁴⁾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목적의 성인교육 전통에 비추어 보면, 북아메리카의 성인교육은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서만큼 현 체제를 변혁하고자하는 급진적인 전통을 형성해오지 못했었던⁷⁵⁾ 것이 사실이다. 물론 북아메리카의 성인교육

social purpose trad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8(3), May-June 1999, pp.175-190.

72) R. Fieldhouse, Tradition in British university adult education and the WEA, In C. Duke ed., *Liberal Adult Education: Perspectives and Projects* (Warwick: Continuing Education Research Centre, University of Warwick, 1992), pp. 11-14.

73) P. Freire, *Pedagogy of the Oppressed* (Middlesex: Penguin, 1972). p.28.

74) R. Johnston, op. cit., p.176.

75) H. Beder, Purposes and philosophies of adult education, In S. B. Merriam and P. M. Cunningham eds., *Handbook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89), pp.37-50.

은 성인들을 근본적으로는 민주적 자본주의사회에 적응시키는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적 목적의 성인교육 입장에 대해 점점 더 자각해 가고 있다. Cunningham은 협소한 시각의 낙관주의적 성인교육에 도전하는, 북아메리카 내외에서의 해방적인 성인교육 즉 하이랜더 교육연구센터, 변혁적 연구네트워크, 비판적 문해프로그램들과 같은 그러한 형태들이 성인교육의 온당한 사명에 관한 담론을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⁷⁶⁾고 주장한다.

Beck⁷⁷⁾이 현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주제로 탈전통화를 들듯이, 사회적 목적의 전통 역시 항상 변화하고 있다.

오늘날 사회적 목적의 성인교육 전통들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면, 최근 개인적 성장 개념에 초점을 둔 자격주의와 그리고 자격인정제의 팽배로 인해 심화되는 개인적 학습과 집단적 참여사이의 긴장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활정치, 즉 이전에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었던 가족, 양육, 건강, 식량, 성적인 특성, 신체에 관련되는 정체성과 생활양식에 관한 생활 결정의 정치에 점점 더 초점을 두게 됨으로써 부상하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상호접점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에 관여하기 위한 성인교육의 역할과 범위를 재고해볼 필요가 있는 점이다.⁷⁸⁾

Lovett은 성인교육자들이 복잡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불평등한 그리고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직면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및 도덕적 문제들과 투쟁하는, 사회변화를 위한 운동과 성인교육을 연결시키는

76) P. M. Cunningham, International influences on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In J. M. Peters and P. Jarvis eds., *Adult Education: Evolution and Achievements in a Developing Field of Study*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91), pp.347-380.

77) U. Beck, A. Giddens, and S. Lash, *Reflexive Modernization* (Cambridge: Polity, 1994), pp.184-197.

78) 한승희는 평생교육의 핵심이 학습에서 자격증으로 전화되고 있는, 평생교육의 왜곡적 제도화를 우려하여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다. 즉 평생교육 담론 안에서 다시 기억하고 부활해내야 하는 이념적 지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것을 다른 식으로 표상화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표상화는 시민사회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다(한승희, 전개논문, 2000a, p.17).

전통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⁷⁹⁾고 제기한다.

사회변화를 위한 성인교육의 이러한 재출현은 지배적인 경제 원리에 입각한 성인교육에 도전을 가한다. 그 교육 형태가 어떠한건 간에 사회변화를 야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성인교육은 공통되게 어떤 특정한 신념 혹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⁸⁰⁾

사회변혁을 위한 성인교육의 목표들에는 정의, 평화, 민주주의, 온정, 정신성, 대화, 존중 및 존엄이라는 공통된 가치들이 있다.⁸¹⁾ Toh와 Cawagas는 핵심가치들 즉 정의, 공유하기(하나의 세계를), 온정, 대화, 삶/희망에 대한 관심갖기, 사적인 평화, 구조적인 폭력, 인권, 문화적 연대, 군사화, 그리고 환경보호의 문제들을 표명하는 정신성을 제시한다.⁸²⁾

이와 같이 사회변화를 위한 성인교육 전통이 되살아나고 있는가 하면, 한편으론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기업들의 부의 창출자로서, 기술공학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들과 노하우를 창출하기 위해 적합한 교육에 대한 요청을 배경으로 평생학습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평생학습은 오늘날 인간자본시각에서 세계적으로 교육과 훈련의 시장화를 추동하는 핵심 개념이 되고 있다.

대체로 자본 축적의 첨병인 기업과 고용주는 교육의 결과로서 노동력의 질에 대하여 늘 불만이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노동력의 육성을 학교 등의 공공 영역에 떠맡기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술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새로운 기술의 습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노동력의 지속적인 평생 재훈련을 강조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국제적 정부기구의 역할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평생교육을 통한 기술형성이 ‘평생고용가능성’

79) T. Lovett, ed., op. cit., p.xv quoted in S. B. Merriam and R. G. Brokett, op. cit., p.249.

80) S. B. Merriam and R. G. Brokett, Ibid., p.249.

81) W. A. B. Gregory, *Emancipatory Adult education and social movement theory*, the degree of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berta, Edmonton, Canada, 1997, p.15.

82) S. H. Toh and V. F. Cawagas, *Peaceful Theory and Practices in Values Education* (Quezen City: Phoenix Publishing House, Inc., 1990), pp.vii-xi.

을 보장한다는 슬로건 아래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의도가 은폐되어 있다고 주장한다.⁸³⁾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의 성인교육은 그 기원으로서의 사회운동 및 자발적 사회조직활동에서부터 변질되어 이제는 공공 영역에서의 시장논리 아래에서 상품화 전문화된 서비스산업의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⁸⁴⁾

Ilsley는 성인교육이 개인적 요구들에 부합하려 드는 것은 성인교육의 임무태만이라고 여겨, 개인주의적 성인교육 자체로는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불평등과 사회적 부조화를 변화시키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⁸⁵⁾ 그는 많은 성인교육자들이 노동자의 평등, 시민의 권리, 평화와 정의, 생태적 공평성을 비롯한 많은 비전들을 믿고 있다고 본다. 그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비판적 사고를 수용하지만,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치적 계획들을 확충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삼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성인교육의 비전은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사회의 비전과 상호 연결되어 있기에,⁸⁶⁾ 성인교육자들의 사회정의와 평등을 위한 노력은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수 시각을 가진 사람들, 노조 지도자들, 페미니스트들 및 평화운동가들과 같은 전통적인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여지를 마련해준다⁸⁷⁾라고 보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개인적 적응 및 경제 발전 그리고 사회적 기여와 변화라는 성인교육의 두 가지 전통을 살펴볼 때, 시민정신 함양을 통한 사회 개혁을 의도하는 후자의 논리가 개인적, 경제적 욕구 충족의 원리보다 더욱

83) 손준중, 전계서, p.184

84) B. Hake, Remaking the study of adult education: The reliance of recent developments in the Netherlands to the search for disciplinary identity, *Adult Education Quarterly*, 42(2), 1992, pp.63-78; 성낙돈, 시민단체 민주시민교육의 발전 과제, 성인교육학회, 안드라고지, 제4권, 제1호, 2001.

85) P. J. Ilsley, op. cit.

86) A. Tough, *Crucial Questions about the Future*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1) quoted in Paul J. Ilsley, 'The Undeniable Link :Adult Education and Social Change',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평생교육연구, 제3권, 제1호, 1997, pp. 155-166.

87) Paul J. Ilsley, Ibid.

사회진보에 닿아 있음은 물론이라 하겠다. 이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 성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의 역동적 특성은 그 사회적 동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⁸⁸⁾이라는 보고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성인이 정치적으로 평등한 존재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주체성을 수립해나가는 사회를 민주 사회라고 한다면, 시민을 위한 성인계속교육에의 관심은 그 자체가 민주 사회의 본질적 특성이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회적 행동화를 통해 사회변화를 꾀하려는 성인교육을 표현하는 주요한 개념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①“협동적 학습(Collaborative Learning)”⁸⁹⁾개념, ②“권력”(Power) 개념, 성인학습자로서의 민중들 스스로에 의한 ③“지식 창출(Knowledge)”⁹⁰⁾개념, ④성인학습자 개인 혹은 집단들 스스로 자신들의 생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강화(Empowerment)”⁹¹⁾개념, ⑤사회적 억압을 변화시키기 위한 집단적 행동으로 이끄는 사회적 실천행위 즉 “프락시스(Praxis)”⁹²⁾개념, ⑥반성과 행동을 사회적 행동화어로 연결시키고 있긴 하나, 성인학습자들이 스스로의 경험을 해석하는 시각(perspective)의 변화 혹은 변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변형이론(Transformative Theory)”⁹³⁾을 들 수 있겠다.

88) A design for democracy: an abridgment of a report of the adult education Committee of The British Ministry of Reconstruction, commonly called “The 1919 Report”, with and instruction, “The Years Between”, by R. D. Waller, (London: Max Parrish, 1956), p.149 quoted in R. W. K. Paterson, *Values, education and the adult*, 1979., 김수일 역, 평생교육 (서울: 양서원, 1989), p.284.

89) M. K. Smith, *Local Education: Community, Conversation, Praxis*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1994).

90) E. Hamilton and P. M. Cunningham, Community-based Adult Education, In S. B. Merriam and P. M. Cunningham, eds., *Handbook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San Francisco: Josey-Bass Publishers, 1989), pp.439-450; R. Johnston, “Really useful knowledge” 1790-1850: Memories for education in the 1980s, In T. Lovett ed., *Radical Approaches to Adult Education: a Reader* (London: Routledge, 1988), pp.3-34.

91) E. Hamilton, *Adult Education for Community Development* (New York: Greenwood Press, 1992).

92) M. Newman, *Defining the Enemy: Adult Education in Social Action* (Sydney: Stewart Victor, 1994).

93) J. Mezirow,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San Francisco:

이상에서 사회적 목적의 성인교육 전통 맥락에서, 사회변화를 위한 성인교육을 논의하였다. 교육은 사회변화 과정의 통합적 부분이기에, 사회변화를 위한 성인교육의 역할은 본래적 기능인 것이다. 시장화되어 가고 있는 평생학습 맥락에서, 그 본래적 기능을 되살려내어 궁극적인 평생교육 목적을 실현할 성인교육으로서 능동적 시민성 교육을 제기한다. 이러한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교육은 시민사회에서 사회운동과 관련되어 실현된다.

3. 시민사회, 사회운동과 성인교육

능동적 시민성 교육이 실현되는 장(場)이 되는 시민사회, 사회운동에 관련하여 성인교육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시민사회와 성인교육

최근 시민사회에의 관심이 일반적으로 부상되어 왔으며, 그러한 부상은 또한 성인교육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비판적인 성인교육자들은 시민사회를 급진적인 학습과 사회변화의 특전의 영역으로 간주한다. 곧 시민사회는 민주적 투쟁, 사회운동 그리고 정치적 변화에 가담하기 위한 지점으로서 간주된다.

Jossey- Bass Publishers, 1991); J. Mezirow, Transformation theory and cultural context: A reply to Clark and Wilson, *Adult Education Quarterly*, 41(3), 1991, pp.188-192.

(1) 시민사회

시민사회에서 요구되는 성인교육의 역할에 관해 규명하기에 앞서, 시민사회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현대 사회는 여전히 안팎의 위기로 가득 차있으며,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문제인 인간의 소외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 사회주의라는 체제는 무너졌지만 현대사회를 인간화하여 사람 살 만한 곳으로 만들도록 하는 다양한 대안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주목받게 된 것이 ‘시민사회’라는 개념이다.⁹⁴⁾

시민사회의 개념을 살펴보면, 시민사회는 일차적으로 서구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등장한 역사적 개념이다. 시민사회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찾을 수 있으나, 근세 초기에 도시의 상공업자가 주축이 된 “시민사회”가 등장하면서, 시민 그리고 시민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활발해졌다.⁹⁵⁾ 특히 제3세계의 재민주화, 동구권 국가사회주의의 몰락, 서구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의 등장을 경험하면서, 사회진보의 관점에서 시민사회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논의가 부활하였다.⁹⁶⁾

시민사회론을 살펴보면, 진보적인 입장에서 시민사회개념은 Gramsci와 Habermas의 논의를 통하여 전개되고 있다. Gramsci는 Marx의 시민사회론이 보여준 경제환원론을 부정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로도 환원될 수 없는 시민사회를 논의하고 있다. Gramsci가 인식한 시민사회는 물질적 생산 과정인 경제 영역에 속하지도 또한 국가에 의한 통제나 영향을 받지 않는 조직으로서 시민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직으로 구성된다. 또한 여기에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의사소통 수단을 포함한다. 관료조직 외의 자발적인 결사체는 시민사회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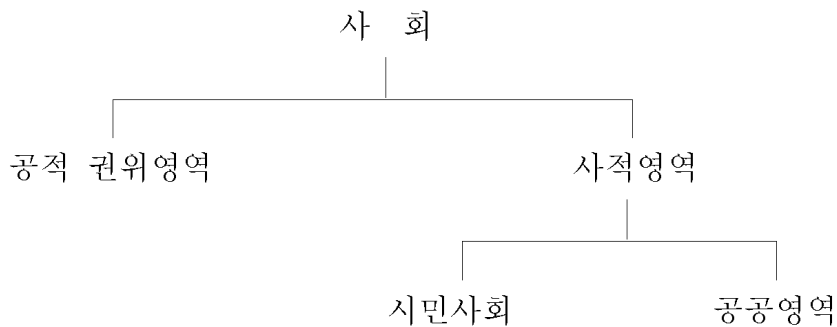
94) 하일민, 시민사회의 철학 (서울: 한길사, 1995), pp.24-28.

95) 조영달 편, 한국시민사회의 전개와 공동체 시민의식 (서울: 교육과학사, 1997), pp. 99-100.

96) 유팔무·김호기 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서울: 한울, 1995), p.80.

97) 상계서, pp.92-93.

시민사회에 관한 최근의 논의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론적 조류는 Habermas의 비판이론이다. Habermas는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공공영역(public sphere)”을 개념화하여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논하였다. 그는 사회를 크게 국가의 ‘公的 권위영역’과 시민사회 및 공공영역으로 이루어진 ‘私的 영역’으로 구분한다(< 그림 3 > 참조).⁹⁸⁾



< 그림 3 > 초기 3분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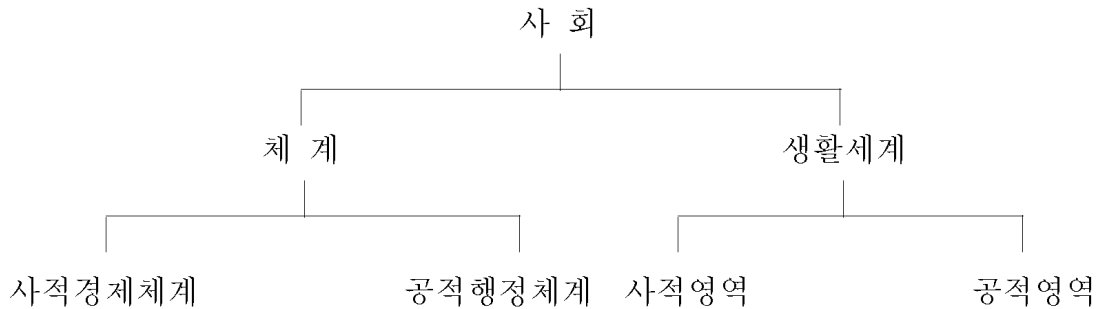
시민사회가 상품교환과 사회적 노동의 영역인 부르조아 소가족 영역을 의미한다면, 공공 영역은 초개인적으로 구조화된, 사회적 개인간의 행위와 의사소통 영역을 의미한다. 국가와 사회의 엄격한 구분에 기초한 자유주의적 공공영역은 19세기 말에 와서 국가와 개인들의 사적 영역에 개입하는 이른바 사회국가 혹은 복지국가의 출현, 그리고 정당이나 노조와 같은 거대 사회조직의 발달에 따른 국가와 시민사회의 재결합으로 인해 급속히 축소되어 결과적으로 사멸되었다.⁹⁹⁾

Habermas는 최근에 공공영역 대신에 생활세계(life world)를 도입하여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영역을 논의하고 있다. Habermas는 세계

98) J. Habermas,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1962, p.30, trans. by T. Burger,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The MIT Press, 1989, 조영달 편, 전게서, p.113에서 재인용.

99) 조영달 편, 상게서.

가 체계(system)와 생활세계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¹⁰⁰⁾(< 그림 4 > 참조).¹⁰¹⁾



< 그림 4 > 후기 4분모델

Habermas에 의하면, 체계는 관찰자의 관점에서 특정한 행위자의 행위가 체계의 유지에 기능적으로 유의미한 행위의 체계이다. 경제활동이나 관료적인 조정행위가 대표적인 예이다. 생활세계는 행위자의 관점에서 사회통합 (social integration)의 기반으로서 합의에 대한 해석적 이해가 이루어지는 일상영역이다. Habermas는 생활세계가 3가지 구조적 요소인 문화, 사회, 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상황에 대한 상호적인 이해와 동의는 문화적 전통의 공유를 통해서 가능하다. 개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조정하는 것은 연대적인 사회집단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하다. 이것은 문화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연대의식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의 공유와 연대의식의 형성은 심리적인 정체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¹⁰²⁾

비판이론에서는 개인적 자유와 권리를 시민사회의 규범적인 차원으로 간주한다. 비판이론의 시민사회론은 문화의 상품화를 통한 생활세계의 식민화

100) J. Habermas, Public sphere, in Steven Seidman ed., *Jurgen Habermas on Society and Politics: a Reader* (New York: Beacon Press, 1981), pp.113-118, 유팔무·김호기 편, 상계서 p.96에서 재인용.

101) 조영달 편 전계서, p.114.

102) 유팔무·김호기 편, 전계서, pp.95-97.

와 복지국가로 대변되는 전체사회의 관료화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서 생활 세계의 제도적 토대인 시민사회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 이론에서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약화 혹은 시민사회의 종속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¹⁰³⁾

시민사회는 아주 미묘한, 시험받는, 다층적인 개념이다. 현대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변화와 통합을 꾀하면서, 동시에 그 동안 매몰되었던 개인의 자유,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장하기 위해서 이 둘이 만나는 자리에 대해 거듭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¹⁰⁴⁾ 그 자리는 국가부문 외의 광범한 합의와 동의를 찾아가는 헤게모니의 각축이 벌어지는 “시민사회”¹⁰⁵⁾이며, 동시에 개인들이 모여 살면서 나날의 삶의 체험을 나누고 의사소통을 통해 공공성을 만들어가는 “생활세계”¹⁰⁶⁾이다.

Habermas는 시민사회 부문이 전체적으로 새로운 역사적 구성으로 다시 회복되어 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Habermas에 따르면, 시민사회는 사회의 문제들이 어떻게 사적인 생활 부문에서 공명되고, 반작용들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공적 부문으로 전이되는지에 초점을 맞춘, 그러한 다소 자발적으로 출현하는 연맹, 조직, 및 운동들로 구성된다.¹⁰⁷⁾

한국의 경우 시민사회의 성장은 국가권력과의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국가의 권력에 저항하는 비합법적인 조직이나 결사를 통하여 국가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이 이러한 투쟁을 대표하고 있다.¹⁰⁸⁾

광복이후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기간에 걸쳐 우리사회는 권위적 정부의 일방적 지배와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예측의 상태를 유지하여 왔다. 물론

103) 상계서, p.97.

104) 하일민, 전계서.

105) A. Gramsci, *Zu Politik, Geschichte und Kultur*, Ostberlin: Reklam. 정유성, *사람-삶-되살림2: 새로운 교육문화 사회운동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8), p.74에서 재인용.

106) J. Habermas,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2 Bde.(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1). 정유성, 상계서, p.74에서 재인용.

107) T. Maruatona, Adult education and the empowerment of civil society: the case of trade unions in Botswana,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8(6), November 1999, pp.476-491.

108) 유팔무·김호기 편, 전계서, p.114.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로부터의 요구는 간단없이 지속되었으나, 그러한 요구는 한시적인 성과에 그치다가 다행히 1987년에 이르러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총공세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정부가 탈권위주의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서 시민사회는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¹⁰⁹⁾

문민정부의 탄생이후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사회운동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과거의 사회운동이 주로 군부정치 철폐를 통한 민주주의의 수립이라는 단일한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오늘날 사회운동은 계급문제나 통일문제와 같은 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운동뿐 아니라 교통문제, 교육문제, 소비자문제, 환경문제 등 생활세계를 둘러싼 작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중심으로 확산되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¹¹⁰⁾

구조적으로 시민사회의 영역은 국가의 공적인 영역과 개인들의 사적인 생활 사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양한 조직들이 자리하고 있다. 시민사회를 다른 영역과 구별짓는 확연한 경계가 있으며 이 안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주체들은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존재이며 또한 이들의 활동은 국가에 의해 보장된다. 또한 시민사회내의 주체들은 그들의 포괄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자유 그리고 집단의 자유가 보장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자유는 “생활세계의 식민화”라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¹¹¹⁾

시민사회의 위기는 바로 시민사회의 바탕을 이루는 ‘생활세계’가 화폐와 권력을 매개로 조정되어 규격화된 관계가 지배하는 ‘체계의 과도화’로 그 지평이 결정적으로 축소되고, 사회질서도 교환관계의 조직에 따라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이 제도화는 경제논리가 지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따라 사회 안의 정당성은 그 기반이 없어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체

109)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 이론 (서울: 한길사), 1993.

110) 조영달 편, 전개서, p. 347.

111) 상계서, pp. 101-102.

계는 사회문화적인 영역에까지 침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생활세계의 자율적 공공성이 치명적으로 침해받는다. 이것이 바로 “생활세계의 식민화”이다.¹¹²⁾

이러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저지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존속을 위한 일차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자발적 사회운동이 활성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진보적 학자들이 시민사회 및 시민운동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 것은 1980년대 중반이후, 민주화운동의 성과로서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체제 내에서 점진적 개혁을 통해서 변화를 모색하는 온건한 시민운동이 주도권을 획득하게 된 것과 맞물려 있다. 이는 곧 정치적 민주화가 시민사회의 발전 없이는 불안정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진정한 시민사회의 실현이 시민운동의 주체로서의 시민의 능력 함양에 달린 것인 바, 시민성을 위한 교육이 그 실현의 역동적 기제가 됨은 물론이다.

(2) 시민사회의 성인교육

여러 연구자들¹¹³⁾은 시민사회가 권한강화를 위해 설계된 효과적인 성인

112) J. Habermas, *Ibid.*, p.293. 정유성, 전게서, p.75에서 재인용.

113) F. Young, *The political economy of adult education and development: The case of Botswana 1966-1991*, Thesis submitted for the Doctor of Philosophy at the University of Hull, 1995.; P. J. Kaizer, *Culture, Transnationalism and Civil Society: Aga Khan Social Services in Tanzania* (London: Praeger, 1996).; H. S. Bhola, *Adult education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the case of South Africa*, *Adult Basic Education and Training Journal*, 1(1), 1997, pp. 69-84; G. Ramirez, *Strengthening civil society and democracy: challenges for adult education in Latin America.*, *Issues in the Education of Adults: Global Transformation and the Education of Adult*, 8(15), 1997, pp.173-185.; M. Welton, *Civil society as theory and project*, In D. Wildemeersch, M. Finger and T. Jansen eds., *Adult Educa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Reconciling the Irreconcilable?*, No.36 (New York: Peter Lang, 1997).

교육 제공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Gramsci에 의해 표명된 시민사회 개념은 세계 모든 지역에 있는 NGO 씨클들에서 점점 더 사용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국가에 대해 독자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지니고 운영되는 연합, 클럽, 가족구조, 문화조직 등과 같은 그러한 제도와 인간 구성의 전체를 의미한다.¹¹⁴⁾ 시민사회는 교회, 노조, 각종 협회들을 비롯한, 개인들 그리고 단체들이 공통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연합된 자원조직체들을 의미한다. 국가 및 일반 사회에서 광범위한 정체를 지니는 시민사회는 가정, 경제 그리고 국가 사이에 놓인 개인적 및 문화적 관심들을 대변한다.¹¹⁵⁾

시민사회에서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통하여 상호작용하고, 문화와 정체성을 창조한다. 사회운동과 그리고 그 동반자적인 NGO들은 국가와 시장으로부터의 개입으로부터 시민사회를 보호한다. 이러한 시민사회 보호 과정을 통하여, 사회운동은 시민사회 민주화를 돕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시민사회는 시민성 발휘의 자리가 된다. 시민사회의 활동들은 종종 무형식적 및 비형식적 성인교육의 보기들이다. 즉 성인교육은 시민사회 창조 및 유지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지닌다.

1900년대에 걸쳐, 성인교육은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그 역할이 변화해왔다. 성인교육은 이전의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봉사하는 역할에서 이제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려는 대행자가 되었다.¹¹⁶⁾

Pöggeler에 따르면, 성인교육은 시민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수준의 정치 제도들에서 계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114) B. Hall, Learning and global civil society: Electronic networking in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Canadian Adult Education and Training*, 3(3), 1993, p.11.

115) B. Elsey, Voluntarism and education as civil society and the third way for personal empowerment and social change,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2(1), 1993, pp.3-16.

116) Jr. M. Bron, Democracy building and adult education: The case of Russia, In *The Future of Lifelong Learning* (Festschrift zum 75. Geburtstag von Franz Pöggeler)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02), pp.317-330.

수 있다. 성인교육은 시민들의 정치적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필수적인 매개체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인교육은 시민들에게 관료들의 정치적 결정과 행동에 대한 비판적 관찰 또는 제고를 할 수 있도록 고무할 수 있다. 그리고 성인교육은 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는 국가를 그리고 한정되게는 정치체도를 개혁하기 위한 개념들을 논의하는데 영감을 줄 수 있다.¹¹⁷⁾

Welton은 시민사회 개념이 성인교육에 커다란 전망을 제시한다고 보며, 성인교육의 운명은 시민사회의 운명에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¹¹⁸⁾ 그는 사회운동과 시민사회에 있어서 성인교육의 정치적 포부들에 관련하여 내포의 정치, 영향의 정치, 개혁의 정치를 언급하며, 성인교육자들은 자율적이고 그리고 원기 왕성한 시민사회를 수호하는데 위임될 것이라고 진술한다.¹¹⁹⁾

성인교육 전문가들이 그 이론 및 실제에 있어, 기초적인 도덕적 및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민주적 참여, 형평 그리고 공적인 논의를 포함하는 시민사회에로의 실행을 위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시민사회의 개념은 특정한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 재출현하였다. 오늘날 시민사회 개념은 세계화 맥락에서 언급된다. 세계화-시민사회의 연관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세계는 지금 그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음을, 즉 이전의 근대화패러다임에서 새로운 세계화패러다임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문적인 논의들에서 시사되는, 이러한 세계화패러다임이 지닌, 국가와 시장에 대한 함축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1)오늘날 경제는 명백히 세계적인, 다국적인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¹²⁰⁾

117) Ibid., p.317.

118) M. Welton, Civil society as theory and project, In D. Wildemeersch, M. Finger and Jansen, T. eds., *Adult Educa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Reconciling the Irreconcilable*, No.36 (New York: Peter Lang, 1997).

119) Ibid., p.317.

120) B. Hall, Adult education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global economic change, In P. Wangoola and F. Youngman eds., *Towards a Transformative Political Economy of Adult Education: Theoretical and Practical Challenges* (Dekelb,

(2)경제의 세계적인 성질에 기인하여, 국가정부(the Nation-State)는 이제 더 이상 경제에 대한 통제에 있어 정치력을 갖추지 못한다.¹²¹⁾

(3)경제 문제들을 통제하기 곤란해진 국가정부의 약화에 따라 이제 성인 교육자들이 시민사회의 영역을 살펴야만 한다.¹²²⁾

(4)시민사회에 있어서 주된 행위체들은 사회운동들과 NGO들이다.

(5)경제의 세계화, 국가정부의 약화, 그리고 시민사회의 대두로 인하여, 우리는 또한 세계시민사회와 세계NGO의 관점에서 사고하기 시작해야만 한다.¹²³⁾

이러한 함축점들 가운데 특히 (3)과 (4)의 시민사회 성인교육 관련 내용들을 고려해볼 때, 전지구적 생활세계에서 현실 사회 조건의 변화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화를 지향한 성인교육이 요구된다.

여러 가지 다양한 민주적 지향의 사회운동들 그리고 이에 관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구성원들 및 참여자들에게 보다 더 능동적인 시민성을 준비시키고자 분투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시민운동단체들은 시민운동 자체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 뿐 아니라 시민운동의 대의에 호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영역을 발전시켰다.¹²⁴⁾ 한국에서 시민사회의 성인시민교육은 90년대 후반에 시민단체들이 자주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적 의식과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면서 민간주도의 시민교육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¹²⁵⁾ 80년대

IL:LEPS Press., 1996). pp.105-126.

121) P. M. Cunningham, The social dimension of transformative learning, *PAACE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1998; O. Korsgaard, The impact of globalization on adult education, In S. Walters ed., *Globalization, Adult Education and Training: Impacts and Issues* (London: Zed books, 1997),pp.15-26.

122) M. Welton, In defense of civil society: Canadian adult education in the conservative times, In S. Walters ed., *Ibid.*, pp.15-26.

123) B. Hall, op. cit., pp.5-24.

124) 성낙돈, 시민단체 민주시민교육의 발전과제, 성인교육학회, 안드라고지, 제4권, 제1호, 2001, p.83.

125) 성낙돈, 전계논문(2000), p.191.

말 이후 90년대로 이어진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과정에서,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은 사회변화를 지향한 적극적인 시민의식화와 시민 참여를 목표로 하는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겠다. 즉 생존을 위해 기존의 사회체제에 단지 적응하려는 차원이 아닌, 현실 사회 조건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실천적 행동 능력을 갖춘 적극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역할을 해온 것으로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운동과 성인교육

성인교육자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끌고 있는 시민사회의 한 측면은 사회운동의 대두와, 사회운동 속에서 그리고 사회운동을 통하여 일어나는 학습이다.¹²⁶⁾

사회운동과 성인교육의 관계를 사회운동 속에서의 성인교육의 성격과, 사회운동 자체가 지니는 교육적 성격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운동 자체로서 형성되어온 성인교육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1) 사회운동

기존의 사회제도에서 어떤 것을 중단하거나 혹은 파기하는 소극적인 변화 혹은 기존의 사회질서 자체의 변화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노력들은 사회운동으로 언급된다.¹²⁷⁾ 사회운동은 보다 더 공정한, 자유

126) M. Finger, New social movements and their implications for adult education, *Adult Education Quarterly*, 40(1), 1989, pp.15-21.; M. Welton, Social revolutionary learning: the new social movements as learning sites, *Adult Education Quarterly*, 43(3), 1993, pp. 152-164.; M. Newman, Locating learning in social action, In *Social Action and Emancipatory Learning* (Sydney: School of Adult Education, UTS, 1995).

127) A. Scott, Political culture and social movements, In J. Allan, P. Braham and

롭게 하는 그리고 민주적인 실천행동을 통하여 사회를 변혁하려 시도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이다. 사회운동은 사회적 조직화를 목적으로 한 여러 가지 형태의 집단적인 행동을 포괄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운동은 제도화되지 않는다. 그것은 특정한 혹은 널리 확산되어 있는 불평불만에서 비롯되는 자발적인 사회저항으로부터 야기된다. 이러한 사회운동은 때때로의 대중동원화와 느슨한 조직 구조, 돌발적인 활동 그리고 부분적으로, 기존의 확립된 체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사회변화를 야기하려는 시도라는 특성들을 지닌다.¹²⁸⁾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두 대표적인 사회학 이론으로서 기능이론과 갈등이론이 있다. 기능이론에서는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중심 문제로 질서유지를 통한 사회유지라는 논리를 전개한다. 한편 갈등이론에서는 사회를 개인간 및 집단간의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의 연속으로 본다. 갈등이론에서는 끊임없는 사회의 변동이 사회의 속성이다. 따라서 사회운동은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힘으로서 간주된다.

사회운동에 대한 두 사회학적 패러다임 가운데, 기능주의에서는 사회운동 활동을 의례적이지 않은, 예외적인 것으로 분류한다. 사회운동 행위는 제도적 정당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그 상당히 예측할 수 없는 자발적인 성격으로 인해 규율 혹은 규범에 의해 지배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배질서를 붕괴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비이성적인 폭발이라고 간주된다. 반면에 신맑스주의 이론은 경험적으로 그리고 규범적으로 말해서, 사회적 재생산과 안정정보다는 사회운동을 통한 사회적 변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Boggs는 현대 사회운동들이 착취와 지배의 강제에 대항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적 평등, 그리고 평화적인 국제 관계를 보장하려는 역사적인 시도의 부분들로서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질서의 펼쳐지는 모순들에 자리한다고 묘사한다.¹²⁹⁾ 이러한 사회운동의 기점은 서구 산업혁명이후로, 그리고

Lewis, P. eds., *Politics and Economic Forms of Modernity* (Cambridge: Polity, 1990), p.132.

128) Ibid.

129) C. Boggs, *Social Movements and Political Power*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86), p.3.

그 여파로서의 제3세계의 전통사회 파괴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대안적 사회 운동을 통해 이어져왔다. 즉, 그것은 후기 산업사회 속에 매몰된 민중의 생활세계에 대한 재인식이며, “포스트”의 열풍이 가져오는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지나친 강조 속에서 자칫 공동선(共同善)의 개념마저 무너져버리는 것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를 포함한다.¹³⁰⁾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각종 사회운동과 비정부조직 즉 NGO들은 국내외에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해가고 있다. 오늘날 사회운동과 NGO들은 시민사회의 기본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2) 사회운동에서의 성인교육

사회운동과 성인교육의 관계에 있어, 우선 사회운동에 기여하는 성인교육을 논의할 수 있다.

성인교육은 민주적 사회진보 운동에 기여하는 하나의 대의¹³¹⁾인 것이다. 개인적 개발, 기술 및 직업적 훈련이라는 재생산적 성인교육 실천에 관계하는 성인교육자들의 반대편에 급진적인 성인교육자들이 있다. 대부분의 급진적 성인교육의 주요한 목적은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이다.

급진적 성인교육은 개혁주의적 및 혁명주의적 접근 모두를 포함한다. 급진적 성인교육자들은 맑스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그리고 사회개혁과 같은 그러한 수많은 이데올로기적 시각에서 그 목표를 접근시킬 수 있다. Giroux, McLaren, Apple, Bowles 와 Gintis와 같은 그러한 비판적 교육학의 지지자들은 모두 급진적 성인교육의 서로 다른 면들을 촉진시킨다.¹³²⁾

130) 한승희, 전계논문(1997), p.114.

131) J. Holford, op. cit.

132) W. A. B. Gregory, Emancipatory adult education and social movement theory, the degree of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berta, Edmonton, Canada, 1997, pp.13-14.

보수적인 성인교육의 토대가 되는 합의이론에 비교해볼 때, 급진적인 성인교육은 갈등이론에 기초해 있다. Evans는 사회에서 그리고 교육사회에서 어떠한 교육자들이 급진주의자일 수 있는지를 묘사함에 있어, 자원의 재분배에 찬성하는 성인교육자들은 명확히 급진주의자라고 제시한다.¹³³⁾

사회를 변혁하는데 관심을 갖는 급진적 성인교육 유형으로서, 변혁적인 성인교육, 세계교육, 평화 및 가치교육, 지역사회개발교육, 사회정의교육, 민중교육 그리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질서를 위한 성인교육, 해방적 성인교육 등이 있다.¹³⁴⁾

전통적으로, 급진적 성인교육자들은 이른바 구사회운동이라 불리우는 즉, 사회변화를 위한 일차적 조직 형태들인 노동조합과 노동계급정당에 기대한다. 그러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이러한 구사회운동은 점점 더 복지국가제도로 통합되게 되었다. 종종 이러한 구사회운동들은 형식적으로 그리고 비형식적으로 보다 더 높은 생산성과 평화적 형태의 저항을 위해 실질적 보험 및 의료와 같은 제도화된 혜택과 보다 더 높은 임금 형태의 더 큰 물질적 혜택으로 맞바꾸어진다고 주장된다. 제3세계 자본주의국가들에서 구사회운동은 제국주의가 물러간 후 우익 군사정부에 의해 파괴되었다. 1960년대에 주로 시작되는, 새로운 타협의 정치(국가 혹은 경제에 무관심한) 그리고 새로운 구성(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경우, 새로운 중류계층 그리고 제3세계 자본주의 국가들과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경우, 노동계급 조직들 밖의 존재들이 해당됨)으로 보이는 조직 형태들이 사회변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항자들로써 출현하였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지배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제모형의 연관된 출현으로, 이러한 신사회운동이 가속화되었다. 신사회운동들은 그들이 국가와 경제 사이의 혹은 밖의 사

133) B. Evans, *Radical Adult Education: A Political Critique* (New York: Croom Helm, 1987), p.6.

134) M. Hart, Critical theory and beyond: further perspectives on emancipatory education, *Adult Education Quarterly*, 40(3), 1990, pp.125-138; T. Heaney, When adult education stood for democracy, *Adult Education Quarterly*, 43(1), 1992, pp.51-59; J. Mezirow, Understanding transformation theory, *Adult Education Quarterly*, 44(4), 1994, pp.222-232; W. A. B. Gregory, op. cit.

회적 공간으로서의 시민사회에서 활약한다고 주장한다. 신사회운동들은 그들이 시민사회를 민주화하고 그리고 시민사회를 국가와 경제로부터의 개입에서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고를 전개하여 많은 사람들은 Gramsci의 시민사회 개념을 불러 일으켰다.¹³⁵⁾

노동자들의 운동 및 기타 구사회운동들은 산업화의 시대에 나타났으며 그리고 복지국가에 강하게 속해있다. 신사회운동들은 산업사회의 종식에 결부된다. 다음의 < 표 2 >에서 나타나듯이, 사회운동 양자는 사회의 본질에 대해서로 다른 조망을 보이며, 지식과 사회 참여에 대한 견해에서 차이를 보인다.

Arvidson과 Stenøien은 구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을 다음과 같이 비교 분석하고 있다.

< 표 3 > Arvidson과 Stenøien의 구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의 비교

비교의 준거	구사회운동	신사회운동
사회적 조망	복지 국가 경제 성장, 확장, 공평한 분배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망한다.	위험사회(Beck) 경제 성장과 확장은 민주적으로 분배된 위험(예:환경오염)을 조성한다고 조망한다. 위험에 대한 의식은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러므로 지식에 대한 통제가 핵심이라고 본다.
지식 과정 혹은 지식 환경	형식교육체제에 대한 요구가 변화하며, 구사회운동들에서 자체적 교육기관과 교육 형태들을 형성한다.	운동자체가“인지적 프락시스”의 형태이다 (Eyerman과 Jamison,1991)라고 본다.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	대의민주주의 지도자와 선출된 대표들간의 위계적 의사소통	직접참여민주주의 지도자와 선출된 대표들간의 수평적 관계

출처: J. Holst, Social movements and civil society: Implications for radical adult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degree of Ed, D. dissertation,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Dekalb, Illinois, 2000, p.135.

135) J. Holst, Social movements and civil society: Implications for radical adult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the degree of Ed, D. dissertation,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Dekalb, Illinois, 2000.

하지만, Holst는 Arvidson과 Stenøien의 비교가 적합하지 못한 정치경제적 분석에 기초하여 잘못된 이분법을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 즉 운동의 두 유형 어느 것에서건 한 쪽의 특성으로서 제시된 요소들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신사회운동 뿐만 아니라 구사회운동 또한 인지적 프락시스¹³⁶⁾로 볼 수 있으며, 시민권운동, 평화운동과 같은 그러한 신사회운동 역시 구사회운동이 그래왔듯이, 그 나름의 교육기관을 형성해 왔다. 또 구사회운동이 건강, 안전 문제 등의 불평등한 분배로 보여지는 것에 도전하듯이, 신사회운동 또한 사회적 자원의 공평한 분배를 요청해왔다. 그리고 구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 모두 대의적 및 직접적 형태의 민주주의 양자 모두를 주창하고 이행해왔다고 하는 것이다.

Spencer는 노동운동(구사회운동)이 성인교육의 공간(a site)으로서 무관하며, 신사회운동의 요청으로 잊혀지기 쉽다라는 관념에 반박한다. 그는 노조가 노동 민중들을 위한 비직업적 사회적 목적의 성인교육의 단일한 가장 중요한 제공자로 남아있다¹³⁷⁾고 주장한다.

Castells는 사회운동들을 현대 사회 속에서 두드러지는 도시 현상인 것으로 묘사한다. 그는 도시 사회운동들을 분석하여, 사회운동의 조직이 대부분 순전히 ‘도시의’ 즉, 주거, 교육 그리고 집단시설과 같은 노동력의 재생산 과정의 단위에 관련되는 조직이고, 개혁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계급투쟁의 정치적 혹은 경제적 측면으로 연결되지 않는다¹³⁸⁾고 주장한다.

136) “인지적 프락시스”란 사회학자인 Ron Eyerman과 Andrew Jamison이 성인교육과 사회운동 간의 관계 분석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개념이다. 사회운동들은 그 정체성이 역사적 상황으로 자리한 정치적 및 문화적 맥락에서, 사회운동가들과 그들의 반대자들 간의 상호작용들에 있어 언표(발언되어 표출됨)될 때, 운동가들의 의식으로부터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이는 이른바 인지적 프락시스(cognitive praxis)라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조건형성된다. 그들에 따르면, 사회운동은 인지적 프락시스의 이행인 것이다. 그리고 인지적 프락시스의 요소인 지식과 사회적 정체성의 형성이 사회적 학습의 과정인 것이다. 여기서 Eyerman과 Jamison은 인지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지만, 프락시스 용어 그 자체에 구현되어 있는 교육과 행동간의 변증법적 시각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137) B. Spencer, Old and new social movements as learning sites: greening labor unions and unionizing the greens, *Adult Education Quarterly*, 46(1), 1995, pp.31-42.

138) M. Castells, Urbanization and social change: The new frontier, *The Challenge*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이론가들¹³⁹⁾은 신사회운동들이 사회를 변혁하는데 교육을 이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적 변혁에 중점을 두는 교육 형태에 관계된다고 주장한다.

물론 신사회운동들이 항상 직접적으로 계급관계를 표출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사회운동들은 개혁에 있어, 선거 정치에 있어, 제도들 내에서 및 제도에 저항하는 투쟁들에 있어 나타나듯이 명백히 문화적 상징 형성을 훨씬 넘어선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NGO의 현황에 관련한 연구¹⁴⁰⁾에서 시사되듯이 신사회운동의 주역들인 NGO들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사회변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근본적인 사회변화는 구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의 동맹을 통해서 도래할 수 있을 것이기에, 따라서 양자를 연계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지배적인 노조철학으로서 지역사회 조직화, 환경주의, 그리고 성(gender) 및 인종적 평등의 주제들을 노동운동에 투입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회적 노조주의¹⁴¹⁾는 곧 그러한 노력의 경우라 할 것이다.

Howlett과 Linds는 구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의 동맹의 움직임을 전망

of Social Change, 1991.

139) L. Arvidson and J. Stenøien, Knowledge and democracy: Old and new social movements as learning environments in the post-war welfare state, In P. Remes, S. Tøsse, P. Folkenerone and B. Bergstedt eds., *Social Change and Adult Education Research: Adult Education in Nordic Countries* (Jyväskylä, Finland: Institute of Educational Research, University of Jyväskylä, 1997), pp.209-226, cited in J. Holst, op. cit., p.134. ; B. Bergstedt, Postmodern learning process—the composition of knowledge in new social movements, In *Social Change and Adult Education: Adult Education Research in Nordic Countries, 1990/1991*, (Norway: University of Norway, 1992), cited in J. Holst, op. cit. ; M. Finger, New social movements and their implications for adult education, *Adult Education Quarterly*, 40(1), 1989, pp.15-22.

140) 김영래, 김혁래, 한국 비정부조직(NGO)의 현황과 과제(한국정치학회 국회학술발표회 제출원고), 시민운동정보센터 자료실. <http://www.kngo.net>

141) J. Holst, Ibid., p.33.

있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Howlett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서 움직여야만 한다고 본다. 민중들 및 부문별 사회운동 조직들에 대해 부문적인 분석에서 광범위한 구조적 분석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단지 이론적 논쟁을 통해서만 행해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보다 더 상당한 계급의식 또는 사회의식을 개발하는 것이 근본적인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주장한다.¹⁴²⁾

이러한 사회운동에서의 성인교육을 살펴볼 때, 노조, 지역사회(공동체), 및 사회운동가들의 노력에서 이루어져온 많은 이전의 성인교육은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고자 실시되는 사회운동들의 부분을 이루어왔다.¹⁴³⁾ 이는 사회운동들에서의 성인교육이 평화적인 사회변화 과정에서 수행할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고 실천해왔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성인교육과 사회운동의 관계에서, 사회운동 자체가 교육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시민사회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고 성숙하게 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은 결국 그 자체로서 교육적인 활동이다. 오늘날의 시민운동은 “시민들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합적 행위”인 만큼 “시민들이 그러한 집합적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와 사회에 대해 학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¹⁴⁴⁾ 사회운동들은 본래 교육적이다. 즉 사회운동은 사람들이 동기유발 되도록 하며, 그리고 동기유발은 성인교육 학습 및 참여에 있어 핵심인 것이다. 따라서, 평화운동, 여성운동, 그리고 환경운동 등은 성인교육의 강력한 형태들이라고 하겠다.¹⁴⁵⁾

Dykstra와 Law는 사회운동에서 하는 일의 대부분이 세미나, 워크숍, 티치

142) D. Howlett, Social movement and development education, In C. Depass, J. L. McNeil and M. Zachariah eds., *New Challenges for Development Education in Canada in the Nineties*, 20(1), 1991, p.129.

143) T. Lovett, Adult education and Working class, In D. O'Sullivan, *Social Commitment and Adult Education* (Cork: Cork University Press, 1989), p.42.

144) 최장집, '한국의 민주화, 시민사회, 시민운동,' 참여사회 창간호, 1995., p.17, 정유성, 전제서, p.78에서 재인용.

145) W. A. B Gregory, op. cit., p.150.

인(teach-ins), 전단 배포와 같은 그러한 본래적으로 교육적인 것들이지만, 또한 시, 음악, 탄원, 피켓 및 신생 문화와 정치로 가득한 생활 감각이 있다고 주장한다.¹⁴⁶⁾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인교육은 민주적 사회진보 운동에 기여하는 하나의 대의로서, 근본적인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핵심인 사회의식을 개발함으로써 사회운동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사회운동은 시민사회의 주체로서의 개인이 사회 환경을 인식하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합적 행위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실천으로 체화되는 성인교육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운동과 성인교육과의 관계는, 사회운동이 성인교육의 장(사회운동 참여 활동이 성인교육 기능을 수행함으로써)이자 또한 동시에 그 성인교육의 결과로서의 장(성인교육을 통해 형성된 사회의식을 실천하는 사회운동에 참여하게 됨으로써)이 되는 관계에 놓여있다고 하겠다.

(3) 사회운동으로서의 성인교육: 성인교육운동

성인교육은 그 원천이 사회운동으로서 비롯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성인교육의 토대가 되는 역동은 학교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노동자·농민들의 자발적인 학습운동이라는 민중의 자발성에서 비롯된 사회운동으로부터 나왔다. 성인교육은 단순히 사회변화를 반영할 뿐 아니라 사회변화의 능동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Paulston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실시되는 적응적인 성인교육과 대조되는, 해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사회운동으로서의 성인교육을 제시한다.¹⁴⁷⁾ 그는 사회운동으로서의 성인교육을 비혁명적인 사회에서 기존 사

146) C. Dykstra and M. Law, Popular social movements as educative forces, In M. Hyams ed., *Proceeding of the 35th Annual Adult Education Research Conference* (Knoxville: University of Tennessee, 1994), p.122.

147) R. G. Paulston, Education as anti-structure: Nonformal education in social and

회의 문화화, 불평등, 인종차별, 경제적 착취, 그리고 구조적 폭력 등에 대항하는 집단적인 노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여겨, 서구사회 특히 19세기 중반에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국민운동(folk movement)을 지적하고 있다. 이 사회운동은 비혁명적인 방법으로 사회구조의 불평등한 현상을 감소시키고 하층계급 구성원들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인교육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현존의 사회구조와 대립되는 사회운동과 개혁주의적인 사회운동 모두를 사회가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구조적, 대항구조적(anti-structure) 실체로서의 인간을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사회운동으로서의 성인교육의 의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⁴⁸⁾

미국의 성인교육에서는 노동자 계급의 자생적 학습운동에 기반한 영국의 성인교육이나 자유농민의 의식화로서의 북유럽의 성인교육운동과는 다르게 새로이 미국사회에 진입하는 이민자들을 어떻게 하면 미국적 자본주의 및 중류사회 헤게모니 아래에 종속된 주류 문화 속으로 흡수할 것인가 하는 교화과정 및 기술주의적인 관점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농민들의 주도성은 집단적 역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주로 개인주의적인 차원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북미에서 자생적 민중으로서의 성인교육의 뿌리를 복원하고자하는 노력들이 적지 않았는데, 존 듀이의 사회철학이 가져다 준 실험정신과 각종 지역공동체운동을 중심으로 한 린드만(Lindman)이나 호울(Houle), 하트(Hart) 등의 실천성은 거시적이고 사회역동적인 맥락에서 성인교육의 집단적 역동성을 되살리고 있다.¹⁴⁹⁾ 캐나다의 경우 20세기초부터 프론티어칼리지(Frontier College)운동, 노동자교육협회(WEA)운동, 협동주의로 대표되는 안티고닉시운동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칠레에서는 정부체제에서 선호되는 개인적 사회이

ethnic movements, *Comparative Education*, 24(1), 1980.

148) Ibid., p.65.

149) 한승희, 전계논문(1996), p.195-198.

동 이데올로기의 도구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재형성을 주요 목표로 하는 사회적 동원화를 위한 교육이 NGO들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사회적 동원화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Social Mobilization)’¹⁵⁰⁾은 정의로운, 민주적 사회를 이룩하는데 있어 시민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능력을 부여하는데 주력한다. 이는 칠레의 문화적 및 정치적 발달에 있어 가난한 사람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의도하는 것으로, 민중교육프로그램들에 가담한 비정부조직체 활동가와 지역사회교육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적 맥락에서, 특히 초기의 성인교육은 인본주의에 기초한 민중교육운동이었으며, 그것은 주로 민중교육, 노동교육, 문해교육 등의 ‘민중의 생활세계에 대한 지식인의 개입’으로 표현되었다.¹⁵¹⁾ 그리고 이 현상, 특히 인본주의적이며 민중지향적인 성인교육활동을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교육이라 불려왔다.

이와 같이, 성인교육은 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진보운동에 기여하는 성인교육 본래의 사회적 기능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민중의 생활세계가 가지는 자율성을 억제해온 지배 이데올로기적 체계, 기술적 통제로부터의 강요를 넘어서려는 성인교육운동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는 사회변화의 역동적 기체로서의 사회운동은 그 자체가 교육적 활동임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사회운동에의 참여가 곧 성인교육 활동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이러한 사회진보운동에 기여하려는 성인교육의 역동성은 곧 하나의 사회운동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150) Salomón Magendzo, op. cit.

151) 한승희, 전개논문(1998), pp.27-28.

Ⅲ.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이론적 맥락 구성

이 장에서는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이론적 맥락을 구성해보고자 한다. 먼저 능동적 시민성 교육이 논의되는 배경요인들을 살펴보고, 그런 다음 능동적 시민성의 개념, 요소, 교육 전통,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 사회운동에서의 능동적 시민성을 논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을 토대로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합리적 논거들을 제시함으로써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이론적 기초를 형성해보고자 한다.

1. 능동적 시민성 교육 논의의 배경

후기산업사회는 지식이나 정보 아이디어 등이 창출되고 보급되는 과정과 결과에 따라 힘의 원리가 형성되는 지식기반사회로 얘기된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지식기반경제의 부의 창출자로서, 기술공학을 통해 새로운 기술들과 노하우를 창출하기 위해 적합한 교육 개발이라는 압력아래 인간자본을 요청한다. 다른 한 편에서는 사회경제적 발전이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그 결과가 지구공동체를 위협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권력과 부패, 기아와 빈곤, 전쟁과 폭력, 자연 훼손과 파괴 등 인간에게 위협한 요소들¹⁵²⁾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에 대한 이러한 불확실한 전망과 위협 요소들을 고려할 때, 성인

152) 인간의 미래에 대한 이와 같은 불확실한 전망은 Beck의 소위 '위험사회' 개념과 연결시켜 고려할 수 있다. 이 위험한 상태는 '기술적으로 지배할 수 없고,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며, 윤리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지구적 위험요인은 네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① 부(富)로 인한 생태적 파괴, ② 빈곤으로 인한 생태적 파괴, ③ 대량 섬멸 무기의 확산 그리고 비록 역동적인 성장 과정이 도입되었지만, 경제적·정치적 개발의 실패로 인하여 민주적인 복지국가로 나아가지 못한 과정을 의미하는 ④ '후속 개발' 실패의 결과를 들 수 있다(허영식, 지구촌시대의 시민교육, 학문사, 1999, pp.89-94).

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1990년 이후로 사회변화를 위한 성인교육의 전망은 달라졌다.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자본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자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노선을 강요받고 있다. 세계화가 신자유주의적 경향으로 흐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과거 민중들의 투쟁과 노력을 통해 쟁취한 국민국가 내의 사회보장 기능과 경제관리 기능은 파괴되고 점차 유명무실해져 간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민주주의의 적(敵)이라는 항변도 이런 이유에서 제기되고 있다¹⁵³⁾.

세계적인 자본주의의 위기 타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국가 주권은 약화되고, 시민사회의 공공 생활영역은 축소된다. 점점 더해 가는 공공서비스의 사영화, 실업, 계층간의 빈부격차, 생태환경의 파괴, 그리고 무력감으로 인한 인간 소외의 심화까지 시민사회를 잠식하는 많은 현상들이 초래되고 있다.

한편 각종 시민사회운동과 NGO는 조직화가 진행되면서 국가와 시장이 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를 위한 대안적인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논리에 의해 생활공간을 위협하는 세계화를 저지하고 세계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자발적인 사회운동들이 일고 있다. 1999년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 3차 각료회의를 압박한 세계의 NGO들, 2001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제1차 세계사회포럼, 같은 해 자마이카 오코리오에서의 선언, 그리고 가장 최근의, 참가한 한국 시민운동 팀이 G. W. Bush 낙선캠페인을 펼쳤던 인도 뭄바이에서의 제4차 세계사회포럼 등이 모두 그러한 움직임들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서 1987년 중반이후 시민사회영역이 확대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의미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시민세력이 새롭게 부각된다. 시민세력의 정치적 실현이라 할 시민 참여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 강한 민주주의로

153) 허영식, 전계서(1999), p.77.

서 강조된다. 변화하는 세계에서 성인들은 집단이기적 행동으로서가 아니라 시민단체로서 지역, 교육, 환경 등의 문제에 공동으로 개입하고 민주공동체 형성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인들을 시민사회의 책임감 있는 정치적 주체가 되도록 지도하는 시민성교육이 요구된다.

현대의 민주공동체는 “자신의 정체성을 일차적으로 민족적·문화적 공통점에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민주적 참여 및 의사소통 권리를 능동적으로 행사하는 시민들의 실천 속에서 찾는다”.¹⁵⁴⁾ 민주공동체의 실현은 규칙과 절차의 제도화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결사체와 사회운동이 활성화됨으로써 이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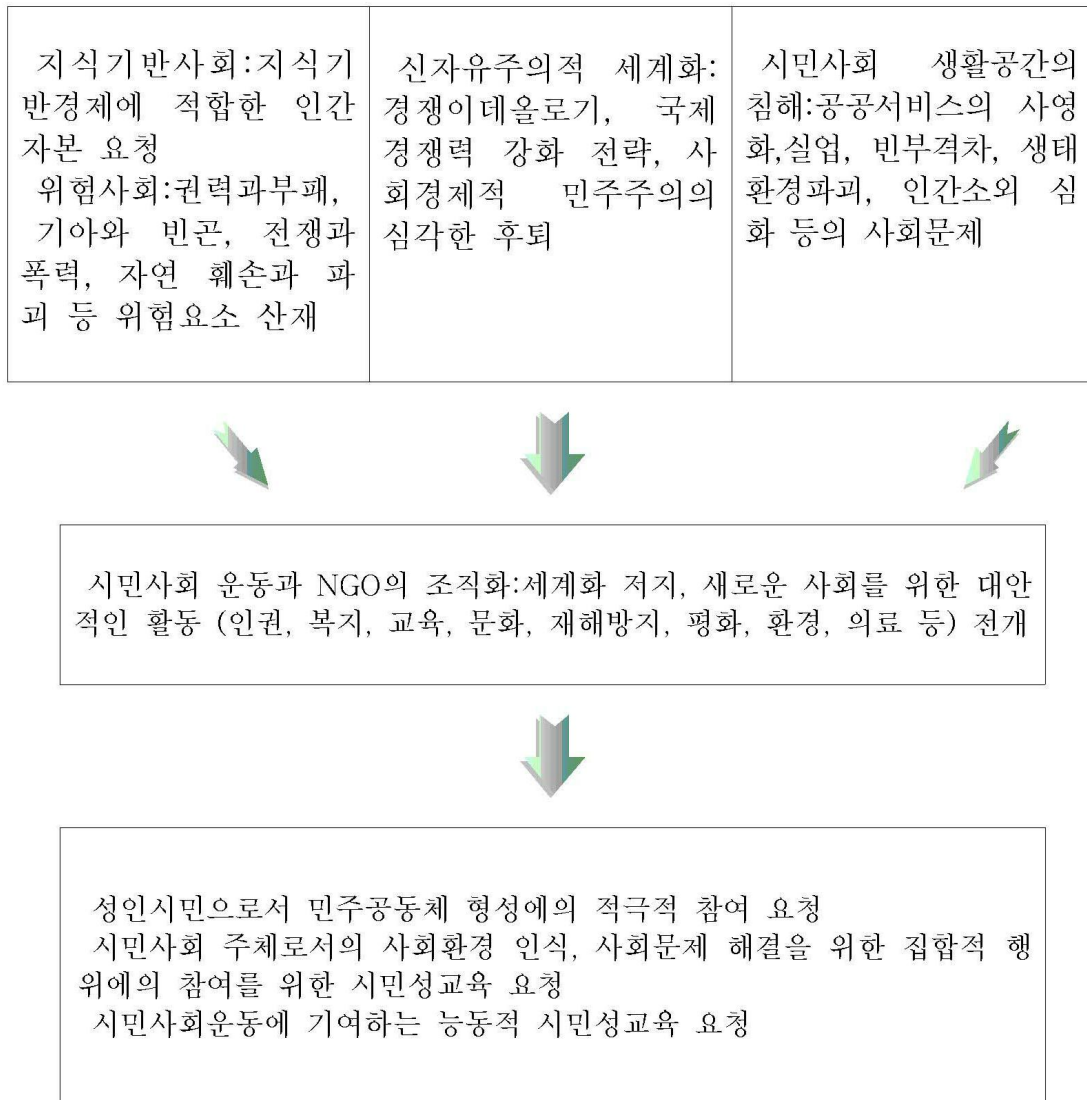
여기서 민주공동체 실현에 요구되는 시민의 덕목은 주어진 생활 상태에서 저절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결속을 낳는 힘으로서의 연대는 대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가까운 사회공간을 위해 나타나며, 사회적으로 범위가 넓은 맥락, 이를테면 제도나 사회전체를 위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연대감은 사람들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통해 생기는 것이다. 자율성을 통한 연대는 현대의 시민 덕목으로서 정의감, 시민, 용기, 판단력을 포함한다.¹⁵⁵⁾

민주주의의 형성은 장기적인 과제이다. 시민사회 형성의 성공적 실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의 정신, 태도 그리고 세계현상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한다. 성인교육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과 방법을 통하여 시민대행자들을 고양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시민들의 정치사회 현실 인식 및 개선에 대한 능동적 참여는 능동적 시민성 교육을 통하여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능동적 시민성 형성을 위한 성인교육은 시민사회의 한 측면으로서의 사회운동의 대두와, 사회운동 속에서 그리고 사회운동을 통하여 일어나는 학습이다. 시민사회운동에 기여하는 능동적 시민성 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라 하겠다.

154) J. Habermas, *Faktizität und Geltung*, Frankfurt/M.: Suhrkamp., 1992, p.636. 허영식, 미래지향적 시민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원미사, 2000), p.22에서 재인용.

155) 허영식, 상계서, p.24.

이상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 그림 5 >로 정리해볼 수 있다.



< 그림 5 > 사회의 변화와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필요성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표출된 능동적 시민성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에서 2002년 6월 처음으로 개최된 월드컵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의 물결로서의 광화문 네거리의 붉은 물결, 2002년 12월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한 두 여중생에 대한 애도와 불평등한 한미협정을 개정하라는 요구에서 진행된 촛불시위 등은 우리사회의 공동체문화를 상징

하게 되었다. 이들은 일반 대중들이 스스로 원해서 모여드는 자발적인 아래로부터의 집회들로 공동체 마당을 만들어가는 공론의 영역으로 자리한다. 특히 후자는 미군의 폭력에 저항하는 시민적 저항의 요소가 평화지향적인 비폭력적 행동으로서의 촛불시위로 표출된 것으로, 이를 1987년 6월 항쟁 이후의 제2의 항쟁으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이후로도 각 사회 문제들에 관련하여 시민들의 공명(共鳴)에서 재현되고 있는 촛불시위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집합적 움직임의 동인(動因)이 곧 능동적 시민성이라고 보겠다. 이러한 시민행동화에 동참함으로써 시민의식화가 진전되고 이와 같이 형성된 사회의식의 실천으로서 사회운동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시민으로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려는 의지와 역량의 표출인 능동적 시민성이 길러진다. 시민들의 정치사회 현실 인식 및 개선에 대한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민교육이 곧 능동적 시민성교육이다.

2. 능동적 시민성의 개념

능동적 시민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관련 있는 시민성 개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시민의 개념을 살펴보면, 시민이라는 용어가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음이 드러난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civitas*와 로마시대의 *civitas*에서 시민은 사적인 측면보다는 도시 혹은 국가의 공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측면이 강조되었다.¹⁵⁶⁾ 라틴어의 *civitas*에서 유래한 시민(citizen)은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지위이며, 시민권은 공동체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공동체에 무관하다는 것은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결격을 뜻하며, 공동체에 참여하는 동안에만 인간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은 곧 좋은 시민이라는 규범성을 함의한다.

156) 조영달 편, 전계서, pp.37-44.

일반적으로 시민을 소극적 시민과 적극적 시민으로 구분할 때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은 적극적인 시민으로서의 삶이다. 전자가 강요와 간섭,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표현과 결사의 권리를 갖는 시민인데 비해 후자는 적극적으로 정치생활에 참여하며 민주주의를 구현하여 공적 삶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시민이다. 그러므로 시민으로서의 삶은 좋은 시민, 능동적인 시민으로서의 삶을 가리키며 이는 헌법적으로 허락된 사회적 지위의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선을 향한 윤리적 책임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이처럼 능동적이고 윤리적인 시민상의 원형은 고대 그리스의 정치공동체인 폴리스의 인간상이며 이는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과 현대의 공동체주의자들의 윤리이론들에서 확인될 수 있다.¹⁵⁷⁾

시민성(citizenship)은 고대 그리스에서 출현한 이래 서구 역사를 움직이는 강력한 추동력이었으며, 그것은 현재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¹⁵⁸⁾ 시민성의 개념은 역사 단계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근대 시민성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서구 역사에 나타난 시민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리스의 공화주의적 시민성, 로마의 개인주의(혹은 보편주의)적 시민성, 중세 봉건제하에서 일부 도시공동체내의 자유로운 시민성 등은 현대 자유주의 시민성의 모태가 되었다.¹⁵⁹⁾

시민성 논의를 이끄는 배경은 자유와 평등과 인간 존중을 이념으로 하는 시민사회의 삶의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인간애를 고양시킬 수 있는 보편적 삶의 방식에의 관심이라 할 것이다. 사회적 환경 안에서의 바람직한 삶의 원칙에 대한 시민성 논쟁의 뿌리에는 시민성에 관한 두 가지 상이한 사고가 작용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기점으로 하는 윤리적 주체로서의 시민의 개념과 근대 시민사회, 특히 자유민주체제임을 내세워서 시민의 존재와 위상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권리의 주체로서의 시민의 개념이 그것이다.

157) 한국교육연구소, 시민성의 이념과 시민교육의 과제, 한국교육연구, 제3권, 제1호, 1996, p.184.

158) 조영달 편, 전개서, p.37.

159) 상계서, p.8.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와 현대의 시민들의 계급적 위상은 크게 차이를 보인다. 고대의 시민들은 생산과, 생계유지를 위한 일상의 노동에서 자유로운 신분의 자유민이었으나 반면에 현대의 시민은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동기에서 탄생하였기 때문에 경제와 정치의 분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존재조건에서 출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공동체주의자들이 시민성을 사적 권리의 추구보다 공동선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의 전통에의 충실을 강조하는 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목적론적 인간의 자아실현의 이상과 무관하지 않다.¹⁶⁰⁾ 사회학적 의미에서 시민성은 공동체로서의 사람의 완전한 멤버쉽을 의미하는 지위(position)이다.¹⁶¹⁾

시민성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정의되든, 그것은 우선 사고를 추상화하고 정교화 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며, 국가와 관련해서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지위라고 할 수 있다.¹⁶²⁾ 시민성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는 민주 사회에서 그 자신의 상황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상황에 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위해 개인이 그 자신을 어떻게 활동시키는 가로 규정될 수 있다.¹⁶³⁾

하지만, 시민성의 정의는 상당히 국가의존적이다. 영국 사회에서 시민성에 관해 말할 때, 그것은 시민 참여, 즉 시민사회의 기관들에의 참여의 의미에서이다. 영국인들은 시민성을 투표와 기타 선거 참여의 형태들보다 오히려 예를 들면, 지방의 자원 협회들에서 일하는 것으로 본다. 그와 같이 영국의 시각에서 보면, 시민성은 시민을 그들의 공동체의 생활에 연결하는

160) 한국교육연구소, 전계논문, pp.184-185.

161) T. H. Marshall,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West Port: Greenwood Press, 1963, 1973) R. Ruzicka, The teacher's role in promoting active citizenship in a transforming society, *Educational Practice and Theory*, Vol.22, No.1, 2000, p.58에서 재인용.

162) 조영달 편, 전계서, p.8.

163) A. Bron, Adult education and the civil society in a comparative and historical perspective, In B. Bron, and M. Malewski, eds., *Adult Education and Democratic Citizenship* (Wroclaw: Wroclaw University Press. 1995).

사회적 네트워크들, 집단들, 조직들 및 자원 협회들에의 관여이다. 정치적 및 공적 문제들에의 주목과 같은 그러한, 시민성의 다른 측면들에 관여하려는 동기화는 좋은 이웃되기에서부터 자선 행하기, 그리고 더 나아가 공식적인 사회정치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비형식적 집단들과 자원 조직체들에의 참여 그리고 시민적 및 공동체적 활동들에의 가담을 통해 강화된다.¹⁶⁴⁾

그리고 헝가리인들에게는 시민사회는 경제적 자율성을 의미하며, 폴란드인에게 있어서는 사회정치적 독자성을, 그리고 체코인들에게는 입헌국가에서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¹⁶⁵⁾ Ruzicka는¹⁶⁶⁾ 전환기의 체코 사회에서 시장경제에로의 복구에서부터 열린 사회에로까지 총망라되는 상황에서, 시민성의 능동적 측면을 드러내기 위한 잠재력과 그 의미는 복합적임을 강조한다. 이는 말하자면, 오랫동안 방기되어 있던 공적 생활에 대한 반감과 그리고 공적 생활을 기피하는 자유로 인해 그러하다. 미국인의 시민성에 대한 견해는 민주주의를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요하는 많은 종류의 행동을 망라하는, 시민 참여의 관점에서 규정짓는 영국인의 견해에 가깝다.¹⁶⁷⁾

Mouffe는 시민성의 민주적 개념이 모든 차이, 다양성, 다원성을 사적인 것에 속하는 것으로 분리시키지 않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함께 구성하는 방식을 찾아야만 한다.¹⁶⁸⁾라고 주장한다. 즉 민주 정치는 특수성과 차이 모두를 위한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Mumbai는 “우리는 평생학습의 목적을 민주적 시민성으로 보고 있으며, 민주적 시민성은 효과적인 경제 개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미약한 사람들의 요구에의 주목과 같은 요인들에, 그리고 우리의 일반 가정, 지구의 부양능

164) I. Crewe, and D. Searing, *Citizenship and civic education*, lecture given at the RSA, London on 21 May 1996.

165) C. A. Pandak, *Rebuilding Civil Society* (Frankfurt: Peter Lang, 1999).

166) R. Ruzicka, op. cit., p.59.

167) J. Merrifield, Finding our lodestone again: democracy, the civil society and adult education, In P. Armstrong, M. Zukas, and Miller, N., eds., *Breaking Boundaries, Crossing Borders*, Proceedings of the SCUTREA 27th Annual Conference (London: SCUTREA, 1997).

168) Robin Usher et al., *Adult Education and the Postmodern Challenge- Learning Beyond the Limits* (New York: Routledge, 1997), p.41.

력에 미치는 산업화 과정의 영향에 관계된다. 시민성의 개념은 지역적 그리고 세계적 맥락에서 개인과 집단을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활동구조에 연결시키는 면에서 중요하다”¹⁶⁹⁾라고 주장한다.

Freire는 민주적 시민성을 문해와 관련지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시민성은 국가 맥락에서 자기 존재의 행사이다. 그것은 사회적 구성이다. 그것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투쟁이나 혹은 시민성을 통해 자신을 강제하는 대중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지배계급은 시민의식을 민주화할 필요가 있다. 문해프로그램은 시민성을 형성하기 위해 정치적 목표들 즉 세계 이해 능력, 사람들의 정치화를 요하는 문제와 사실 간의 관계설정 능력, 세계에 대한 정치적 이해, 지속적인 호기심, 민초집단을 참여시키고, 동원하고, 조직화할 권리를 포함해야 한다. 현실을 변화시키고, 지배를 극복하고, 연대를 계획하고 하는 것은 상식을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¹⁷⁰⁾ 민주주의, 시민성 그리고 민주시민성의 개념은 논쟁적인 것이다. 즉 그 의미들은 정치사에 기초해 있으며, 그리고 시대를 특징짓는 물질적인 조건에 의해 그리고 제기된 담론들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민주주의, 시민성 개념들에 대한 해석은 이론적인 전통과 시각들에 입각하여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 및 시각들에는 사회주의, 민주주의, 다원주의, 포스트모던 시각뿐만 아니라 보수주의, 자유주의, 맑스주의 그리고 페미니즘 시각이 있다.

Giroux는 시민성 개념에 대하여, “민주주의 그 자체와 같은 시민성은 투쟁 지대를 대변하는 역사적 전통의 일부이다. 그것은 공적인 생활의 다양한 형태들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사회적 실천들 그리고 생활화된 경험들 바깥에 자리하는, 초월적인 의미를 갖는 용어가 아니다”¹⁷¹⁾라고 본다.

169) S. Walters, Lifelong learning within higher education in South Africa: Emancipatory potential,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45(5-6), November 1999, pp.575-587에서 재인용.

170) Ibid., pp.575-587.

171) H. Giroux, *Schooling and the Struggle for Public Lif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8), p.5.

만약 시민성이, 사회학적 의미에서 공동체에의 완전한 멤버쉽을 의미하는 지위인¹⁷²⁾ 것이라면, 시민성 이는 그것이 한 특정 집단 혹은 개인이 실제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멤버쉽을 획득하는 조건 속에서 어느 역사적 순간에 성취되어지는 지위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겠다. 이는 Giroux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민주주의 그 자체와 같은 시민성은 역사적 전통의 비판적 요소들을 이루는 지식, 사회적 실천들, 및 가치들의 형태들에 대한 투쟁 영역을 대표하는 역사적 전통의 일부이다. 하지만, 공적 생활의 다양한 형태들을 형성하는 개인들의 생활화된 경험들과 사회적 실천들밖에 놓인 어떤 초월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일단 우리가 시민성 개념을 사회적으로 구성된 역사적 실천이라고 인식하면, 시민성과 민주주의와 같은 그러한 범주는 각 세대마다 문제시되고 그리고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¹⁷³⁾

“민주주의의 의미는 우리의 역사적 선례들에 있어 문제적인 것이었다. 그 의미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와 인간의 가능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이다.”¹⁷⁴⁾ 여기서 시사되는 것은 시민성의 개념이 중요한 투쟁 영역으로서 교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시민성은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고 비판하기 위해 그리고 “인간성의 실현을 저지하고 방해하는 관계들을 타개하기 위해”¹⁷⁵⁾ 사람들을 반성시키고 조직화할 수 있게 하는, 연대 형태들의 발전과 공적 생활의 가능성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에 기초한 대화와 실행의 과정이 된다.

민주사회의 기본적 목표가 모든 시민들을 가능한 한 충분히 문화적, 경제

172) T. H. Marshall,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West port: Greenwood Press., 1973), R. Ruzicka, Ibid p.58에서 재인용.

173) H. A. Giroux, *Schooling for Democracy: Critical Pedagogy in the Modern Age* (London: Routledge, 1989), pp.5-6.

174) R. Hanson, *The Democratic Imagin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85), p.418.

175) D. Kellner and H. O'Hara, Utopia and Marxism in Ernest Bloch, *New German Critique*, 9, Fall 1976, p.22.

적, 정치적 및 사회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민들의 능동적 관여는 사람들이 그들이 직접 미래를 공유할 계획을 취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광범위한 시민성 개념의 일부이다.¹⁷⁶⁾

1997년 유럽위원회보고서에서는,¹⁷⁷⁾ 앞으로 직면할 주된 도전들에 관련하여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학습을 언급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능동적 시민성이란 참여적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권한 강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율성, 책임, 협력, 그리고 창의성을 학습하고 실천할, 그리고 모호성과 반대들에 직면하여 자기 가치와 전문성의 의식을 개발할 기회들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능동적 시민성은, 인간이 그들 자신의 역사 속에 그들을 위치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함에 있어 그들 자신들을 인간 생활 및 자유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려 투쟁하는 행동가로서 현존하게 하는 조건으로서 Giroux가 말하는 이른바 ‘비판적 식자(critical literacy)’¹⁷⁸⁾ 개념과 닿아있다. 능동적 시민성교육을 통해 각자의 목소리, 역사 및 미래를 주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표출되는 그리고 능동적인 것으로서의 식자(literacy)가 형성되는 것이다.

능동적 시민성은 참여, 의사소통, 공정성과 같은 절차적 정의에 따른 권리주체로서의 자질을 갖추고서 시민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다.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살아갈 생활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인식을 변혁의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기 위한 역량이 능동적 시민성이라 하겠다. 사회에서 시민성이 발휘되는 세 영역 즉 시민 영역, 정치 영역 그리고 사회복지 영역들은¹⁷⁹⁾ 심층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시민성의 개념 또한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Turner는¹⁸⁰⁾ 사적 부문과 공적 부문의 구별과 또한 능동적-수동적 차

176) C. Thone, Democratic deficit, *Adult Learning*, 10(3), pp.23-25, cited in C .A. Pandak, *Rebuilding Civil Society* (Frankfurt: Peter Lang, 1999).

177) The European Commission, *Learning for Active Citizenship*, The European Commission, 1997, <http://europa.eu.int/en/comm/dg22/citizen-en.html>.

178) H. A. Giroux, op. cit., p.155.

179) T. H .Marshall, op. cit.

180) B. S. Turner, Outline of a theory of citizenship, *Sociology*, 24(2), 1990,

원을 포함하여, 시민성에 대한 보다 더 급진적인 견해가 능동적이고 공적인 것이라면 반면에 보다 더 보수적인 견해는 수동적이고 사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Turner는 실제적으로 시민성의 네 가지 유형을¹⁸¹⁾ 설정하였다. 즉 공적인 공간에서 행동하는 그리고 위로부터 허용되는 수동적인 민주주의 시민성, 공적인 공간에서 행동하는 그리고 민중들에게서 나오는 혁명적 시민성, 사적인 공간에서 행동하는 그리고 위로부터 허용되는 국민투표적 권위주의 시민성, 그리고 사적인 공간에서 행동하는 그리고 민중들에게서 나오는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시민성이다.

시민성의 개념은 한편으로는 경제세계화로부터의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태론자와 페미니스트들의 사회운동으로부터의 압력 하에 급진적인 재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개념이다. 경제의 세계화와 경제 권역의 조성은 국가주권과 시민성에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강력한 유럽연맹(EU)의 출현은 EU의 시민성과 그리고 회원국가들의 시민성이 서로 다른 시기에 긴장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예이다. 더욱이, 현대 사회에서 페미니즘은 남성적 정부구조, 시장 및 시민사회에 위협을 가한다. 페미니즘은 남성들에게 여성이 이류시민인 가부장적 질서에 대항할 의무와 그리고 평등한 시민성의 사회를 위해 행동할 의무를 받아들이도록 효과적으로 위협한다. 또한 생태운동은 인간외적 존재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생태론자들은 또한 후손의 입장에서 자연과 환경을 옹호한다. 그리하여 생태 환경은 시민성의 지배적 패러다임을 두 가지 방식으로 위협한다. 즉 그것은 국가를 넘어서 세계적 수준으로 그 영역을 확장한다. 또한 그것은 현 세대를 넘어서 확장되며 우리의 사회성의 세대간적 차원과 우리의 도덕적 및 시민성 임무를 고려하도록 요구한다.¹⁸²⁾

페미니스트학자들은 내포적인 시민성 모형이 시민성의 핵심 차원으로서 성차별적이지 않은 ‘배려의 윤리’를 인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¹⁸³⁾ 이제

pp.189-218.

181) Ibid., p.200.

182) S. Walters, op. cit.

183) I. Martin, Citizenship debate asks some awkward questions, *Adult Learning*,

비슷한 논쟁들이 장애우들의 운동 그리고 인종적 소수자와 문화적 소수자의 공동체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것이 의미하는 바는 시민성에 관해 사고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최근에, Heater는 빈곤층과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여, 시민성의 여섯 가지 유형을 제안하였다.¹⁸⁴⁾ 즉 권리 체계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시민적 의무를 이행하는 능동적인 시민, 충분한 권리를 지니고 있지만 그들의 시민적 의무를 이행하는데 무관심한 시민, 지위를 갖고 있지만 차별로 인해 그들의 법적 권리가 거부되는 이등급 시민, 법적 권리를 지니고 있지만 가난 때문에 정례적인 사회적 및 정치적 활동으로부터 배제되는 하류층 시민, 시민은 아니지만 주민이고 그리고 시민성과 연관된 많은 다른 권리들을 누리지만 정치적 권리는 거부되는 거류민, 그리고 시민성 역할의 창안 이후 내내 시민적 평등을 거부당해온 여성들이다.

남성 지배 사회에서, 여성은 그들의 권리인 평등을 계속해서 거부당해 왔기에, Heater가 이들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편 보다 더 수동적이고 그리고 보수적인 시민성 형태들이 우익 정부들에 의해 권장되어 왔고, 그리고 그러한 사회들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실천되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는 사실상 국가가 향상해가지 못하도록 저지하며 그리고 세계화에 직면하여 영향력을 더욱 약화시킨다. 세계적 기업들이 더욱 강력해짐에 따라 우익 정부를 갖는 국가는 그들의 복지 책임을 포기하는 것 같다.¹⁸⁵⁾ 즉 복지 그 자체는 사영화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의 입장은 악화된다.

이러한 세계 시장에서는, 자본주의 체제가 지배적이고 그리고 자본주의 담론이 우세하다. 심지어 사람들이란 보다 더 지식적이고 재정적인 자본을

13(10), June 2002, pp.18-20.

184) D. Heater, *What is Citizenship?* (Cambridge: Polity, 1999), pp.87-88.

185) W. Hampton, Adult education and the active citizen, *International Journal of University Adult Education*, xxix(1), 1990, pp.3-14.; Z. Bauman, *In Search of Politics* (Cambridge: Polity, 1999).

산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인간 자본인 것이다. 이는 공리주의적인 것으로, 인간은 고용될 수 있으면 유용한 것이다. 한편 좋은 시민으로서 간주될 수 있지만, 그러나 복지가 거의 혹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들이 넘쳐나는 사회에서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점점 더 국가는 그 사회적 책임의 보다 더 많은 부분을 잃어가고 있으며 그리고 하부구조의 세계적 세력들이 시민성과 같은 그러한 상부구조의 현상들을 변형시켜가고 있는 것이다.¹⁸⁶⁾

시민성의 정치경제가 아직도 계급, 성 그리고 인종의 면에서 권력의 사회적 분업을 반영하고 그리고 강화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체제적으로 배제시킨다는 사실에 직면하여, 이제 능동적 시민성에 관한 조명은 필연적이다. 진정한 민주적 시민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체가 되는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능동적 시민성을 갖춘 적극적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은 단순한 지식내용으로서 시민성을 가르치기보다는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갖추고서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의사소통, 공정성과 같은 절차적 정의에 따른 권리주체로서의 자질을 함양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의식 있는 능동적인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성인교육은 문화적 다양성, 정체성, 및 서로 다른 주체의 문제를 조명하는 사회 운동들에 관계된다.¹⁸⁷⁾ 사회운동에서의 학습과 실천행동은 능동적인 시민성을 위한 성인교육의 정수이다.

진정한 시민성은 사람들의 정치적 대행기관에 대한 의식, 즉 시민으로서 행동하려는 그들의 의지와 역량을 반영하고 표현한다. 대행기관을 개발하는 것은 또한 성인교육의 중심적 목표이다. 물론, 대행기관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즉 창의적으로, 파괴적으로 혹은 냉소적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 요즘 너무 자주 대행기관 모두가 분노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확실히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능성이기도 하다. 여기서 제시

186) W. Hampton, op. cit., p.10.

187) R. Usher, I. Bryant and Johnston, R., *Adult Education and the Postmodern Challen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7), p.45.

하고자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시민적 덕성은 이의를 제기하는 그리고 만일 필요하다면 분노하는 능력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성인교육은 분노한 사람들이 민주주의와 시민성을 위한 그들 자신의 투쟁에 있어 자원이자 때로는 무기로서 교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시민성 논쟁에 있어, 분노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혹은 창조적인지 파괴적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성 교육은 사람들의 분노의 야누스적 성질을 직면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분노는 그 자체로 변화를 위한 정치적 프로그램들을 산출해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마도 가장 기초적인 정치적 감성이며, 그것이 없이는 희망도 없기 때문에”¹⁸⁸⁾ 시민교육은 분노하는데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물론, 분노를 희망적으로 만드는 것이 교육적 과제다.

이상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시민성, 민주시민성 그리고 능동적 시민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시민성은 사고를 추상화하고 정교화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며, 국가와 관련해서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지위¹⁸⁹⁾를 말한다. 시민성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는 민주 사회에서 그 자신의 상황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상황에 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위해 개인이 그 자신을 어떻게 활동시키는가¹⁹⁰⁾로 규정될 수 있다.

민주시민성은 민주의를 지니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주적 시민이란 ‘민주적 의식에 투철하고, 사회의 민주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사회적 인간’¹⁹¹⁾을 의미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사회의 민주적 건설에 정신적 기초가 되는 민주주의적 세계관을 형성시킨다.

188) R. Turnbull, Editor's review: 'Fanon, pas mort?,' *Edinburgh Review*, 106, 2001, pp.5-11.

189) 조영달 편, 전계서, p.8.

190) A. Bron, Adult education and the civil society in a comparative and historical perspective, In B. Bron, and M. Malewski, eds., op. cit.

191) 이규환, 전계서, p.149.

능동적 시민성은 1997년 유럽위원회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적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권한 강화(empowerment)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율성, 책임, 협력, 그리고 창의성을 학습하고 실천할, 그리고 모호성과 반대들에 직면하여 자기 가치와 전문성의 의식을 개발할 기회들을 요청하는 것이다.

능동적 시민성은, 인간이 그들 자신의 역사 속에 그들을 위치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함에 있어 그들 자신들을 인간 생활 및 자유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려 투쟁하는 행동가로서 현존하게 하는 조건으로서 이른바 '비판적 식자(critical literacy)' 개념과 닿아있다. 능동적 시민성 교육을 통해, 각자의 목소리, 역사 및 미래를 주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표출되는 그리고 능동적인 것으로서의 식자(literacy)가 형성되는 것이다.

능동적 시민성은 참여, 의사소통, 공정성과 같은 절차적 정의에 따른 권리주체로서의 자질을 갖추고서 시민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다.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살아갈 생활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인식을 변혁의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기 위한 역량이 능동적 시민성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시민성, 민주시민성, 능동적 시민성은 그 두어진 초점에 따라서 구분해볼 수 있다. 그러나 용어들이 각각 달리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그 개념들에 있어서 상호 분리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주주의 그 자체와 같은 시민성”¹⁹²⁾에서 시사되듯이, 민주사회의 기본 조건으로서 시민들의 능동적 관여가 광범위한 시민성 개념의 일부라고¹⁹³⁾ 주장되듯이, 이들 세 용어는 그 개념에 있어서 상호 분리될 수 없다. 말하자면, 이 세 용어는 진정한 민주사회 실현이라는 공통된 맥락에 자리하는 시민의 자질·특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겠다.

192) H. Giroux, Ibid.

193) C. A. Pandak, op. cit.

3.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교육¹⁹⁴⁾

능동적 시민성의 개념 외에도,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이론적 기초요소들로서 능동적 시민성의 요소, 능동적 시민성에 관련한 성인교육의 전통, 그리고 능동적 시민성교육에 관련한 연구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1) 능동적 시민성의 요소

능동적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자질로서의 능동적 시민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194) Johnston은 ‘성인교육’ 접근(an adult education approach)은 자율성, 신뢰 및 교육자와 학습자에 대한 존중을 저해하고 학습자들의 비참여를 조성할 위험 속에 놓인다고 하여 ‘성인학습(adult learning)’이라는 용어 사용을 선택한다. 그녀는 점점 더 소비자지향적이고 시장화되는 현실 세계에서, 평생학습은 이제 지배적인 조류가 되고 있다고 본다. 평생학습이 경제적 요구에 따른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긴 하지만, 이는 또한 현대 위험사회의 맥락에서 재조명되는, 사회적 목적에 입각한 전통의 가치들을 구현하는 또 다른 성인학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성인교육(adult education)’으로부터 ‘성인학습(adult learning)’으로의 이동은 또한 사회적 목적을 지닌 성인교육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사회적 목적의 성인교육의 가치들을 성인학습의 세계에 연결시킬 수 있느냐다라고 언급한다 (R. Johnston, op. cit.).

하지만 Preston은 평생학습은 시장에 의해 중재되는 사회통제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에 따르면, “학습”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반성적인, 말하자면 습득된 이해들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에 평생학습은 우리 자신들이 사전에 꾸려진 지식덩어리들에 직면할 수 있게 하는, 노동시장에의 접근 그리고 그 속에서의 우리의 지위 형성을 위한 수행지표들에 대한 시사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의미한다(R. Preston, *Critical Approaches to Lifelong Educ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45(5-6), November 1999. pp.561-574.). 이러한 Preston의 입장에서 보자면, Johnston의 견해와는 달리 ‘성인학습’ 또한 교육산업화의 징후로서의 평생학습과 동일한 맥락에 놓여있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 연구에서 ‘성인교육(adult education)’이라는 용어 사용을 택한다. 최근 교육 담론에서 학습 담론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교육패러다임에서 학습자의 학습주체로서의 자기주도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거나, 교육전문가와 학습자가 위계적 관계에 놓인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패러다임에서도 학습자우성을 보장하는 비형식적 교육활동, 교육자와 학습자의 경험의 상호교류 등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인교육’ 용어 사용을 택한다. 성인학습은 성인교육에 내포되는 개념으로서 간주한다. 그리고 광범위한 사회적 목적의 성인교육 전통에 입각해 있는,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교육을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사용하고자 한다.

Crewe와 Searing은 시민성의 핵심요소들이란 시민 관여와 공적 담론이라고 주장한다.¹⁹⁵⁾ 즉 시민적 관여와 공적 담론을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민적 활동’, ‘능동적인 시민이 되기’, ‘시민적 가담’은 공동체 활동 혹은 사회 활동에의 유의미한 방식으로의 참여를 말하며 그리고 공동체 조직 혹은 사회 조직에의 가담을 말한다. ‘공적 담론’은 공동체 관심들에서부터 정당의 정치적인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공무의 화제들에 대한 때때로의 대화들에서 진지한 숙의에 이르기까지 사적 및 공적 상황들에서의 논의를 말한다.

시민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함양에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을 구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공공적인 일에 의사소통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시민사회의 공동 구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첫째 경우는 대중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반면, 시민사회의 공동 구성은 정보 능력을 넘어서서 시민권을 능동적으로 옹호하고 점점 더 이질적으로 되어 가는 사회에서 공공적인 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¹⁹⁶⁾

이 두 측면을 고려할 때, ‘능동적인’ 공론장과 ‘수동적인’ 공론장의 상호작용 또는 상호보완을 위해 능동적인 시민의 지위와 수동적인 시민의 지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먼저 ‘수동적인’ 시민의 지위와 관련해서 보면, 현대 대중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정치적 참여는 거의 전적으로 간접적인 방식, 즉 대중매체를 통해 중개된다. ‘수동적인’ 시민의 지위가 정치적 공론에의 참가 능력에 중점을 둔다면, 이제 ‘능동적인’ 시민의 지위는 ‘밑으로부터’ 민주 생활을 새롭게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수동적인 시민 역할과 능동적인 시민 역할의 구분 속에는 이미 시민 역할이 ‘관객민주주의’의 한 구성원 노릇 또는 정치적 공론에의 참가 능력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암시되어

195) I. Crewe and D. Searing, op. cit.

196) U. Sarcinelli, Verfassungspatriotismus und politische Bildung, In: Behrmann, G. et al.(Hg.), *Verfassungspatriotismus als Ziel politischer Bildung?*, Schwallbach/Ts.: Wochenschau, S. 55-78. 허영식, 미래지향적 시민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원미사, 2000), p.21에서 재인용.

있다. 여기서 ‘능동적인’ 시민의 지위는 시민사회의 공동 구성에 참여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한편으로 민주적 발의를 강화하고 민주적 공론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정당 국가적 민주주의를 보완 혹은 변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측면은 ‘아래로부터’ 민주적 생활을 쇄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¹⁹⁷⁾

공동체적 맥락에서 능동적인 좋은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개인주의에서 비롯된 권리의 적극적인 추구와는 다른 삶의 지향을 갖는다. 현대의 시민의 법적 기반이 권리의 자유로운 추구를 보장하는데 있긴 하지만, 시민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시민, 즉 공동체의 성원됨을 자각하고 그 책임을 다할 때에 가능하다. 그러므로 좋은 시민에게는 우애와 연대성, 용기와 관용, 박애와 같은 시민적 덕목, 즉 도덕적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시민은 마땅히 공동체의 복지를 구현하는 가치와 그런 가치를 드높이기 위한 헌신적 삶을 사는 시민을 지향해야 한다.¹⁹⁸⁾

Merrifield는¹⁹⁹⁾ 개인들이 좋은 시민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 문제를 규명하는 능력, 다양한 출처로부터 정보를 구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정보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또한 기꺼이 소리 내어 말하려함과 동시에 말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그리고 집단에 참여하는 학습, 차이와 갈등을 함께 다루는 학습을 포함하여 함께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위의 용어대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어떤 특정한 능력들, 확신 그리고 지식을 지닐 것이 요구된다 하겠다.

국가나 권력의 강제에 의해 좌우되는 종속적·수동적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능동적인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이 자신이 요구와 견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광장에 스스로를 참여시켜야 한다. 폭력 대신에 비폭력을, 강압이

197) 허영식, 상계서 (2000), pp.21-22.

198) 한국교육연구소, 전개논문, p.185.

199) J. Merrifield, op. cit.

아닌 설득을 지향하는 절차적 정당성의 보장을 통해 자율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녀야 한다.²⁰⁰⁾

Benn은²⁰¹⁾ 시민성에 요구되는 능력을 분석한 그녀의 논문에서, 능동적 시민성을 촉진하는 요소들로서 다음의 일련의 속성들(능력, 확신, 지식, 아이디어)을 제시한다.

- 다른 사람들과 협상하고 그리고 협력하는 능력
- 차이와 갈등을 다루는 능력
- 다른 사람들에게 건설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능력
- 정보를 구하는 능력(도서관, 전산망, 행정당국, 공적 회의 등에서)
- 아이디어와 의견들을 소리 내어 말하는 능력
- 행동친화적이기 위한 확신
- 독자적인 견해를 갖기 위한 확신
- 만약 옳다고 생각한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위한 확신
- 책임감을 갖기 위한 확신
- 자신들의 목소리가 경청되고 그리고 고려되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기 위한 확신
- 사회가 어떻게 구조화되는가에 관한 지식
- 지방 정부가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관한 지식
- 국가 정부가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관한 지식
- 주요 정당들에 대한 기초적인 아이디어들
- 정치 철학들/이데올로기들에 대한 기초적인 아이디어들

교육체제는 그 가치와 기능, 그 안티테제의 요소로 인해 능동적인 동시에 수동적인 시민성으로 언급되기도 한다.²⁰²⁾ 이러한 상반되는 입장은 사회적

200) 상계논문, p.186.

201) R. Benn, The genesis of active citizenship in the learning society, *Studies in the Education of Adults*, 32(2), October 2000, p.245.

202) R. Bendix, *Nation-Building and Citizenship*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투쟁을 통해 획득된 시민성과 개인적 혹은 집단적 노력 없이, 주로 정부의 기제를 통하여 위로부터 그저 부여된 사실로서 획득된 시민성간의 차이를 이루는 것으로 국한될 수는 없다.

Ruzicka는 능동적인 혹은 수동적인 시민성은 단순히 열린 혹은 폐쇄된 사회에로 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제도화된 부분에 속하는 것 그리고 비제도화된 부분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²⁰³⁾ 아주 대략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동일한 실체의 두 근본적인 측면들의 오랜 기간 동안의 상호관련성의 문제인 것으로 주의 깊게 제시한다.

이와 같이 시민성의 개념은 복잡하고 그리고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기에, 이 연구에서 시민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는 능력들이 합당하긴 하지만 또한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2)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교육의 전통

앞서 살펴보았듯이, 진정한 시민성은 사람들의 정치적 대행기관에 대한 의식, 즉 시민으로서 행동하려는 그들의 의지와 역량을 반영하고 표현한다. 대행기관을 개발하는 것은 또한 성인교육의 중심적 목표이다. 시민으로서의 생활화된 경험들과 사회적 실제들 그리고 그것들이 구현되어온 조건들은 교육정책 및 실천의 전통과 담론의 범위를 형성해왔다. 특히 그것들은 능동적인 시민성을 위한 많은 서로 다른 성인교육 형태들과 실천들에 영향을 미쳐왔다.

시민성을 위한 교육으로서 성인교육은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일관되게 일익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시민학, 정치학 혹은 경제학 교육과정을 기꺼이 선택하는 성인들은 소수이다. 대안적인 접근은 시민성을 내용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민성 기술들을

Press, 1964).

203) R. Ruzicka, Ibid. p.58.

지닌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어떠한 성인학급에서도 학습될 수 있고 따라서 사회에의 보다 더 능동적인 참여에로 전환될 수 있다.²⁰⁴⁾

능동적인 시민성을 위한 성인교육의 전통들은 광범위하게 다양하다. 즉 전통적인 제도 및 위계의 유지에 관련한 경우를 제외하곤, 능동적인 시민성을 위한 성인교육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보수주의 및 실용주의 성인교육 전통이 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성을 위한 성인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성인교육 전통이 있다. 그리고 조직 및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시민성을 위한 성인교육에의 참여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고자하는, 그리고 특히 그들의 회원들이 교육에 그리고 정치적 실행에 관여하는 행동에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진보주의 및 급진주의 성인교육 전통이 있다.²⁰⁵⁾ 어떠한 전통에 입각해있든 간에 모두 그 신봉하는 가치를 통해 특정한 유형의 시민 그리고 시민성을 내포하고 있다.

시민성에 대한 서로 다른 성인교육접근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자유주의적 접근(a liberal adult education tradition)을 살펴보면, 자유주의 가치는 자율성과 사회적 행위자의 잠재력을 강조하는 인문교양 성인교육 전통의 많은 부분을 뒷받침해 왔다. 자유주의적 접근은 자유롭고 합리적인 인간 형성으로 이끄는 학문적 지식에로의 입문으로서의 교육 개념에 기초해 있다.

지식 면에서, 자유주의 성인교육의 ‘그 자체로서의 교육’에 대한 강조는 학문적, 비직업적 교육과정과 실제적, 오락적 교과의 전통적 구분을 제도화 하는데 작용하였다. 이는 교육과정을 지위가 높은 지식과 낮은 지식으로 분류하는 전통적인 구분을 되풀이하는 보수적인 영향을 미친다.²⁰⁶⁾ 그러나

204) The European Commission, op. cit., p. 3. In I. Martin, Citizenship debate asks some awkward questions, *Adult Learning*, 13(10), June 2002, pp.18-20.

205) R. Tobias, op. cit., p.419.

206) A. Rogers, *Adults Learning and Development* (London: Cassell, 1992) cited in R. Usher et als, op. cit.

시민성을 위한 교육에 있어, 그와 같은 지식은 힘이 못된다. 힘은 행동하려는 의지 그리고 행동 기술을 요한다.²⁰⁷⁾

자유주의적 성인교육접근은 교실 영역에 상당히 제한되어 왔다. 이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및 문화적 차원에서의 시민성에 대한 그 관심에 있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인간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식으로 연결시켜내지 못했다. 시민성에 대한 자유주의 접근의 주된 영향은 주로 보수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배타적인 단일성에 기초한 공통문화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을 돕는데 작용하였다.²⁰⁸⁾

자유주의적 입장은 일정한 유형의 함의적인 자유민주주의에서 합리적, 자율적인 시민을 가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주의 성인교육은 보다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조건 및 제약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행위자와 계몽된 주체라는 모더니스트 개념에 너무 많이 의지해 있는 것 같다. 즉 시민성의 불평등한 정치적 및 경제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자유주의의 강조 결과는 “흔히 종속되고 주변화된 집단들의 고통을 표출시키는 자본주의 국가의 능력과 그 시장논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시민성과 개인주의라는 단순한 마음의 세뇌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니다.”²⁰⁹⁾

자유주의 가치는 종종 자본주의의 경제적 요구에 너무 쉽게 압도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주의 성인교육자들은 사실상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현 상태를 유지하는데 주로 기여해온 경향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시민성에 대한 자유주의 성인교육접근이 사회불평등을 조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구조적 요인에 대한 그 인식 부족과 그리고 무비판적인 사회적 행위자에 대한 생각의 고수로 인해 제한되고 부적합한 것이었다면,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성인교육에 대한 대안적인 비판적 접근으로서 급진주의적 접근을 들 수

207) F. F. Ridley, 'What Adults? What Politics?' In *Political Education for Adults* (Leicester: Advisory Council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1983), p.13.

208) R. Usher et als., op. cit., p.31.

209) H. Giroux, *Schooling for Democracy: Critical Pedagogy in the Modern Age* (London: Routledge, 1989), p.55 cited in R. Usher et als, Ibid., p.32.

있다. 급진주의 성인교육접근(a radical adult education approach)은 시민성에 대한 훨씬 더 광범위한 정치적 및 사회적 차원을 거듭 주장해 왔다.

이 접근은 계급,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 재생산에 초점을 두어 왔다. 급진주의 성인교육접근은 교육제도 밖에서 그리고 다양한 사회운동과 연합하여 전개되었다. 급진적인 성인교육자들에는 영국 리버풀의 Ashcroft와 Jackson 그리고 북미의 Coady와 Horton이 포함되는데, 후자의 활동은 시민성, 시민권 그리고 인종적으로 억압받는 집단들의 능동적 참여에 상당히 초점을 두었다.²¹⁰⁾ 하이랜더에서 Horton과 그의 동료들이 지역 주민들의 관심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그에 맞춰 조율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비판을 구성해내는, 지역사회에 기초한 실천을 선호하였다면 반면, 다른 급진주의자들의 성인교육접근은 보다 더 처방적이려는 경향을 띠었다.²¹¹⁾

이 급진주의 성인교육접근은 1970년대와 그 이후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급진주의 성인교육시각은 시민성을 위한 교육에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 하였다.

이 접근은 실제로 유용한 지식에 초점을 두어 자유주의 전통 보다 훨씬 더 근거가 확실한, 민주적이고 능동적인 접근인 것 같다. 하지만 급진주의 성인교육접근은 지역사회의 보다 광범위한, 보다 더 다양한 입장의 시민들의 흥미와 문화를 배제시킬 가능성이 아주 크다. 시민성에 대한 급진주의 성인교육접근은 자유주의 전통과 대조적으로, 사적인 것에 대해 공적인 것에 그리고 인간적인 것에 대해 정치적인 것에 특권을 부여할 것이다. 그리고 공적인 정치 생활에 대한 계급에 기초한 관점은 기업노조, 교회 및 사회주의협회들과 같은 구사회운동의 전통에 뿌리를 둔, 특정 형태의 경제민주

210) S. Brookfield, *Adult Learners, Adult Education and the Community* (Milton Krynies: Open University Press, 1983); J. M. Crane, Moses Coady and Antigonish, In P. Jarvis ed., *Twenties Century Thinkers in Adult Education* (London: Routledge, 1991); J. M. Peters and B. Bell, Horton of Highlander, In P. Jarvis ed., *Twenties Century Thinkers in Adult Education* (London: Routledge, 1991).

211) R. Usher et als, op. cit., p.33.

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엘리트주의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²¹²⁾

다음으로 공동체주의 접근을 들 수 있다. 공동체주의 성인교육접근은 급진주의자들의 비판적인 구조적 분석과 자유주의 성인교육의 보다 더 구체적인 목적을 결합시키려 시도한다.

공동체주의 성인교육접근(a community adult education approach)은 거대 담론과 보편적 진리로부터 이동하며,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간의 변증법적 연계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이는 개별적인 시민의 관심과 포기,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이해, 사회적 다양성과 문화적 다원주의, 공동체에 기초한 지식과 경험의 권한강화적 잠재력에의 관심과 인식 그리고 시민성을 위한 보다 참여적인 교육을 전개시키는 공동체 교육 활동에 초점을 둔다.²¹³⁾

공동체주의에 기초한 성인교육은 지역적 불평등, 문화적 차이, 새로이 착수되는 교육 과정,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학습자 시민들과 함께 나아가는 교육 방식과 대화를 가장 잘 설명하였다. 리버풀에서의 그의 초기 활동에서 Lovett은 Illich와 Freire의 사상에 터하여 성인들을 지역공동체에 참여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후원함에 있어 교육자의 새로운 역할을 요하는, 특히 비제도적이고 비위계적인 “네트워크 접근”²¹⁴⁾을 고안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는 점차 아웃리치 활동에 대한 성인교육 초점을 고양시켰다. 보다 최근에, Ward와 Taylor는 불평등, 말하자면 교육, 성(gender), 인종, 연령 및 지리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사회구조의 측면을 인식하여 사회적 목적의 성인교육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수정하는데 공동체주의 접근을 이용하였다. 그들은 공동체의 특정한 집단들의 실제적인 욕구들을 확인하기 위한 대화 및 심층적인 예비적 기초작업의 필요성과 그리고 전통적인 학문적 주제들 보다는 부상하는 지역적 문제들에 관련되는 공동체에 기초한 제공 이 두

212) Ibid., pp.33-34.

213) Ibid., p.34.

214) T. Lovett, *Adult Education, Community Development and the Working Class* (London: Ward Lock Educational, 1975), cited in R. Usher et als., Ibid., p.35.

가지를 중심적인 지침원리로 택하였다.²¹⁵⁾

공동체주의 성인교육은 차이와 불평등에 직면한 교육 기능에 대해 보다 더 포괄적인 이론을 제공하여 왔지만, 공동체의 생활, 공동체의 목소리, 공동체의 쟁점 그리고 보다 더 상상력 있는 교육 과정에 초점을 둔, 시민성을 위한 보다 더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교육을 위한 잠재력은 자유주의적 전통의 단점들로 인해 여전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 같다.

공동체주의 성인교육에 대해 급진적인 비판자는²¹⁶⁾ 아웃리치방법, 지역사회개발 접근, 그리고 형식적이지 않은 초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동체주의 교육에서 제공되는 교육내용이 종종 자유주의 성인교육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것들과 아주 유사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단지 차이라면 어느 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식된 욕구 혹은 결핍들에 부응하도록 계획된 보상적 혹은 ‘교정적’ 성격의 교육에 대한 더 많은 투자였다.²¹⁷⁾ 실제로, 바로 이러한 상황은 단지 Freire의 의제의 ‘교화’에 이를 뿐인 과도하게 전문화된, 공동체에 기초한 욕구충족적 접근의 결과이며, 그 본질적인 이념적 지지를 벗어난 단순한 방법론의 축소일 수 있다.²¹⁸⁾

215) R. Taylor and K. Ward, *Adult education and the working class: politics, practice and future priorities for community adult education*, In K. Ward and R. Taylor eds., *Adult Education and the Working Class* (London: Croom Helm, 1986), p.172 cited in R. Usher et als, p.35.

216) W. Cowburn, *Class, Ideology and Community Education* (London: Croom Helm, 1985); S. Westwood, *When class became community in adult education*, In A. Rattansi and D. Reader eds., *Rethinking Radical Education* (London: Lawrence & Wishart, 1992); J. L. Thompson, *Learning Liberation: Women's Responses to Men's Education* (Beckenham: Croom Helm, 1993), cited in R. Usher et als, pp. 35-36.

217) J. L. Tompson, *Adult education and the disadvantaged*, In J. L. Thompson ed., *Adult Education for Change* (London: Hutchinson, 1980), cited in R. Usher et als, p.36.

218) P. Allman, *Paulo Freire's: Education approach: a struggle for meaning*, In G. Allen, and I. Martin eds., *Community Education : an Approach for Educational Reform*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1987); S. Westwood, *When class became community in adult education*, In A. Rattansi and D. Reader eds.,

과거에, Jackson은 “도전받아야 하는 것은 그 침묵주의이다. 즉 성인교육이 적응해야하는 상황들에 대해 그저 수용하는 공동체의 개념은 항상 도전에 대한 주의를 전환시키려는 사회정책에서 이용되어 왔다”²¹⁹⁾라고 주장하며, 영국과 미국 모두에서 많은 공동체주의 성인교육의 가정들을 비판하였다.

공동체주의 성인교육은 공동체의 쟁점, 문화와 지식, 그리고 시민성을 위한 보다 더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교육에 대한 초점을 전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주류의 전문주의적 교육에 우선권을 줌으로써 그 전제들을 잘 실현해오지 못했다.

그러므로 신우익 시장화의 영향아래, 공동체주의 교육접근은 종종 개인적 선택들의 조합으로 축소되었고, 그리고 시민성을 위한 교육은 사실상, 지식과 권력이 개별화되고 그리고 사유화된 사람들을 위한 소비자 선택과 권리라는, 보다 더 제한된 연장 그 이상을 의미해오지 않았다.²²⁰⁾ 즉 많은 자본주의적 국가들에서, 공동체주의 지향은 마케팅과 소비자 중심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²²¹⁾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포스트모던 세계에서 시민성과 교육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불확실한 세계에서 시민성에 대해 논의한다.

Aronowitz와 Giroux는 “계몽된 주체라는 모더니스트 개념이 다양성, 유연성, 및 문화적 다원주의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강조와 짝지워질 때, 학습자들에게 권리를 일상의 영역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는, 그리고 공동체를 일차원적인 역사적 및 문화적 담론의 실천을 통합하고 정당화하는데 국한시키지 않는 시민성 교육을 제시한다”²²²⁾라고 주장한다. Giroux에게 있

Rethinking Radical Education (London: Lawrence & Wishart, 1992).

219) K. Jackson, Some fallacies in community education and their consequences in working class areas, In C. Fletcher and N. Tompson eds., *Issues in Community Education* (Lewes: Falmer, 1980), p.42 cited in R. Usher et als, p.36.

220) R. Usher et als., Ibid., p.37.

221) Ibid., pp.36-37.

222) S. Aronowitz and H. Giroux, *Postmodern Education* (Minneapolis, Min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1) p.82.

어 시민성 교육은 서로 다른 정치적,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차원들을 통합한다. 즉 시민성은 정치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를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설명하고 경제 참여의 권리 개념을 전개하는데 까지 확장시켜야 한다. 문화적 의미에서, 시민성은 다양성을 인식하고 또한 동시에 공통된 관심을 확인하는, 차이와 동일성의 정치를 비롯한 시민과 시민간의 수평적 연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및 문화적 변화를 설명하는 비판적인 시민성 교육의 참조점들을 찾고 있는 교육자들에게 비판적 교육이 차이와 동일성의 정치, 가능성의 언어, 주장과 사회적 권한구현을 위한 전망,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사회운동의 해방적 잠재력을 강조함은 매력적이다.²²³⁾ 이러한 입장에서 Mouffe는²²⁴⁾ 시민성의 민주적 개념이 모든 차이, 다양성, 다원성을 사적인 것에 속하는 것으로 분리시키지 않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함께 구성하는 방식을 찾아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비판적으로 보다 더 참여적인 민주사회를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성인교육은 진보주의 및 급진주의 성인교육 전통에 자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통에서, 능동적인 시민성을 위한 성인교육에의 참여 전략과 정책이 개발되고, 교육에 그리고 정치적 실행에 관여하는 행동에의 참여가 촉진된다 하겠다.

3)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

위험사회에서 경제적 요구에서 형성된, 상당히 인간자본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지배적인 평생학습 담론에 대한 필연적인 도전이자 반대되는 입장으로 시민성을 위한 성인교육이 제기된다. 점점 더 소비자 지향적이고 그리고 시장화 되는 세계 속에서 이제 중심무대가 되고 있는 평생학습을 비

223) R. Usher et als., op. cit., p. 40.

224) C. Mouffe, The civics lesson, *New Statesman and Society*, 7 October. 1988, p.30. cited in R. Usher et als., p. 41.

판적으로 고찰하여, 성인학습의 성격의 변화와 범위의 확대를 촉구하는 입장에 사회적 목적의 성인교육(adult education of social purpose)이 자리한다.

이러한 교육으로서의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교육은 네 가지 서로 다른, 동시에 서로 중복되는 차원을 이루고 있는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을 통해 제시될 수 있다. 즉 내포적인 시민성을 위한 학습(learning for inclusive citizenship), 다원적인 시민성을 위한 학습(learning for pluralistic citizenship), 반성적인 시민성을 위한 학습(learning for reflexive citizenship) 그리고 능동적인 시민성을 위한 학습(learning for active citizenship)이 그것이다. 여기서 네 가지 시민성은 성인학습이 점점 더 진행되어감에 따라 사회적 목적의 성인교육이 더욱 뚜렷해지는, 하나의 연속선을 이루는 것으로 간주된다.

먼저 내포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learning for inclusive citizenship)의 개념 및 특성을 살펴보면²²⁵⁾ 다음과 같다.

점점 더 경제적 및 사회적 배제 상태가 심화되고, 소외, 사회적 결속 감퇴라는 상황에서 성인학습은 내포적일 필요가 있다. 공적 서비스의 사영화로 인한 배제, 박탈에 따른 교육 접근에 있어서의 차이와 이러한 차이의 심화에 대응하여 교육적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들이 학습을 통한 보다 더 내포적인 시민성으로의 이동의 보기가 되고 있다. 즉 유럽사회기금(The European Social Fund)의 저소득층 집단들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기여, 영국 블레어정부의 빈곤층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보조를 지원하려는 개인학습계좌 주창 등이 그것이다.

내포적 시민성을 위한 학습은 사회적 결속과 같은 것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전체 사회에서 모두를 위한 학습을 의미한다.²²⁶⁾모두를 위한 학습이란 예를 들면, 모든 수준에 있는 노동자들 간의, 고용된 사람과 실직자들 간의 상호연계를 강조하고, 그리고 연대를 고양하는 식으로 비판적으로 노

225) R. Johnston, op. cit., p.182.

226) Ibid.

동시장 발달을 분석하는 학습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또 한 예로, 호주의 성인 및 지역사회교육협회(The AAACE: The Australian Association of Adult and Community Education)와 호주 원주민과의 제휴를 위한 평의회(The Australian Council for Aboriginal Reconciliation)에 의한 원주민과 함께 하는 학습써클 개발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써클을 통하여 백인 다수에 속한 주요 집단과 개인들은 토지권, 인종평등 및 사회정의의 기본적인 국가적 문제들에 대한 원주민 시각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고양하였다.

내포적 시민성을 위한 학습의 초점은 개인학습과 집단학습 양자 모두에 두어질 수 있다. 내포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에서의 그들의 역할을, 사회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그리고 이러한 것을 사회 정의와 사회결속에 대한 관심 속에 포함할 수 있는 학습과 행동을 상기시키는데 기여하며, 뿐만 아니라 불리한 처지에 있는 학습자집단들에게 서로 다른 그리고 긍정적인 학습정체성으로의 길을 열어주는 잠재력을 지닌다.²²⁷⁾ 그것은 많은 면들에서 여전히 자유주의 성인교육의 광범위한 전통 속에 있는,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으로 간주된다.

다음으로 다원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learning for pluralistic citizenship)을 살펴볼 수 있다.

다원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은 내포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을 훨씬 넘어선다. 이는 모던과 포스트모던 양자의 측면들을 통합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보편적 인권의 실재를 인정하면서도 또한 다양성과 문화적 다원주의를 포용하는 시민성 학습이다. 다원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은 좌와 우간의 구분과, 또 그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초월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원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은 세계시민성 혹은 지역시민성에 대한 초점을 뒤편으로써 세계화, 국가정부의 쇠퇴 그리고 생태학적 위기에 대한 관심을 고려할 수 있다. 다원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은 개인화의 영향, 생활정치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점점 더해 가는 상호연관에 반응하는 잠재력을 지닌다.²²⁸⁾

227) Ibid.

민주적인 정치는 무엇보다도 특수성과 차이를 위한 여지를 마련해야 할²²⁹⁾ 것이다.

정말로 차이와 정체성에 관한 대화와 이에 대한 초점은 Hake가 국가주의, 지역주의, 인종주의, 민족성, 외국인혐오증(Xenophobia) 그리고 기초주의와 같은 그러한 정체성의 이전의 원천들이라고 일컬은 것²³⁰⁾으로 역행하려는 점점 심화되는 경향들 속에서,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수적인 것 같다.

다원주의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은 비인간적인 계약성에 기초하는 이익사회와 무비판적이고 낭만주의적인 공동사회를 넘어서는, 적극적으로 이 질성을 포용하고 검토하는 공동체의 재개념화와 재운영화를 위한 전망이라는 잠재력을 지닌다.²³¹⁾ 다원적 시민성을 위한 학습에서 우리는 공통된 흥미와 공통된 문화에 대한 탐색과 정체성과 차이의 정치를 연관시키는, ‘다양성 속에서의 연대’²³²⁾개념을 검토하고, 촉진하고 그리고 개발하기 시작할 수 있다.

여기서, 다원주의적 시민성을 세계적 수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지구상의 인류의 그리고 각 사회에 있어서의 위기에 직면하여,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국가적 및 세계적 수준에서 시민성을 촉진시키는 사회적 및 보편적 목표들의 중요성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²³³⁾

Cogan은 그의 저서, *21세기를 위한 시민성(Citizenship for Twenty-first Century)*에서, 세계의 동향들과 아울러 시민성의 다섯 가지

228) Ibid. p.183.

229) C. Mouffe, The civics lesson, *New Statesman and Society*, 7th October. 1988.

230) B. Hake, Lifelong learning and the European Union: a critique from a “risk society” perspective, In J. Holford, C. Griffin and P. Jarvis eds., *Lifelong Learning: Reality, Rhetoric and Public Policy*, Conference Proceedings (Guilford: Department of Educ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Surrey, 1997), p.150.

231) R. Johnston, op. cit., pp.183-184.

232) I. Martin, Introduction, In J. Crowder, I. Martin and Shaw, M. eds., *Popular Education and Social Movements in Scotland Today* (Leicester: NIACE, 1988).

233) S. Walters, op. cit.

속성들을 묘사한다.²³⁴⁾ 그는 지방들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시민성의 개념들은 모두 정체감, 권리와 자격의 개념, 책임 의무와 임무에 대한 입장, 공적인 일들에서 능동적이 되는데 대한 관심, 그리고 기초적인 사회 가치들의 수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그는 세계경제에로의 이동의 증가, 기술정보 사용의 증가, 인구 증가, 환경 문제, 그리고 세계적 이주에 따른 세계적 동향들에 조화될 수 있는 다차원적 시민성 개념을 제시한다.

시민성에 대한 다차원적 견해에 기초하여 실시된 한 조사에서, 참여한 다국적 시민교육정책전문가들은 21세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자질, 기술, 및 구체적인 능력들을 구성하는 시민 특성으로서 여덟 가지를 제시하였다.²³⁵⁾ 시민의 여덟 가지 특성을 점차적으로 중요한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세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문제를 보고 거기에 접근하는 능력.
- 다른 사람들과 협동적인 방식으로 일하고, 그리고 사회에서의 자신의 역할/ 임무에 대해 책임지는 능력.
-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수용하는 능력.
- 비판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사고하는 능력.
-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
-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생활방식과 소비습관을 바꾸려는 의지.
- 인권에 대해 민감히 반응하고 그리고 인권을 옹호하는 능력.
- 지방,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정치에 참여하려는 의지와 능력.

이러한 특성들은 참여적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는데, 향후 21세기를 살아갈 사람들은 그들의 지방, 지역, 국가, 및 세계 환경에

234) J. Bishop, *Citizenship for the twenty-first century*, Review of *Citizenship for the Twenty-First Centur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Education*, edited by John J. Cogan and Ray Derricott (London: Kogan-Page, 2000),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45(1), February 2001, pp.163-165.

235) J. Cogan, *Multidimensional Citizenship: Education Policy for the 21st Century*, An Executive Summary of the Citizenship Education Policy Study (Tokyo: Sasakawa Peace Foundation. 1997), pp.9-10.

서 사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사회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 이는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비판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사고하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그리고 세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문제 혹은 도전들에 접근하고 할 능력을 지님으로써 충분히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세 번째로 반성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learning for reflexive citizenship)을 살펴볼 수 있다.

반성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은 반성적, 자기비판적이며 역동적이다. 그것은 위험사회의 복잡성, 불확실성 그리고 다양성을 의미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반성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은 시민성의 맥락에 있어서, 시민의 권리와 책임, 그 상호연관성을 해석하고 검토하는 일을 포함한다. 권리는 시민성에서 명백히 중요하며 그리고 성인학습은 사람들이 권리에 대해 알고 행사할 위치에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위험사회의, 즉 대중에게 요구되는 더 큰 반성의 맥락에서, 성인학습자들은 시민의 권리와 책임 양자 모두의 개념에 보다 더 능동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시민성의 서로 다른 권리와 책임을 위한 성인학습에 대한 광범위한 강조는 다음과 같은 보다 더 대안적인 아이디어를 제기한다. 즉 전일제 혹은 정시제 고용에 있어서, 자원봉사활동·지역사회활동·환경활동·탁아 혹은 가사활동에 있어서, 혹은 서로 다른 다양한 학습 또는 시민서비스 형태들에 있어서, 사회에 참여하는 시민 지불이 곧 시민 수입(a citizen's income-payment)²³⁶⁾이라는 아이디어이다. 이는 새로운 학습접근의 전망을 제공하며, 유럽의 여러 곳에서 이미 상당한 흥미를 끌어왔다.

Alheit는 사회에서의 다양한 참여 형태와 선택에 대한 지불을 포함하는, 모두를 위한 시민서비스 문제를 제기한다.²³⁷⁾ 그는 이로써 전체 사회에 대한

236) P. Alheit, A provocative proposal: from labour society to learning society, In *Lifelong Learning in Europe*, 2, 1996, pp. 13-15, cited in R. Johnston, *Ibid.*, p.184.

237) *Ibid.*

모든 시민의 관여와 책임이 배양되는 동시에 실업이 감소될 수 있다고 본다.

반성적 시민성의 중요한 차원으로서 성인학습 환경 속에 학습과 교수 양자 모두에 있어 모든 사람들의 잠재력에 초점을 두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더욱 개방된 그리고 지식의 전통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평등주의인식론을 포함하는 여지를 충분히 지니고 있는²³⁸⁾ 점이다. 이러한 반성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 접근은 서로 다른 사회적 역할을 위한 학습의 각기 다른 형태들을 위계적이고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이 접근은 광범위한 다양한 사회집단들 가운데에서 개인적 장점, 출발점, 흥미와 능력에 따라 학습들이 실시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제공한다.²³⁹⁾

끝으로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learning for active citizenship)을 살펴볼 수 있다.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은 내포적, 다원적 그리고 반성적 접근을 통합하는, 그리고 동시에 사회적 목적에 관련된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에 있어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구별되는 맥락을 제공할 수 있다. 능동적인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은 다른 더욱 개인주의적이고, 경제적이며 그리고 통제받는 평생학습의 측면들과 반대되는 잠재력을 지닌다. 능동적인 시민성은 국가의 또는 경제의 직접적인 영향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대안적인 정치적 대표 및 참여 형태들에 대한 전망을 제공하는 시민사회에서 이룩된다.²⁴⁰⁾

Welton은 시민사회 학습을 현대 위험사회 속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사례 깊은 접근을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인 것으로 본다.²⁴¹⁾ 능동적인 시민성은 넓은 스펙트럼을 이루는 행동에 의한 학습을 포함한다. 즉 성인교육학급

238) Ibid.

239) A. Rogers, *Adult Learning and Development*, (London: Cassell, 1992), cited in R. Johnston, Ibid., p.184.

240) R. Johnston, Ibid., p.185.

241) M. Welton, In defence of civil society: Canadian adult education in neo-conservative times, In S. Walters ed., *Globalization, Adult Education and Training: Impacts and Issues* (Leicester: NIACE, 1997), p.71.

들 또는 집단들에서부터 학습씨클들로, 나아가 자원 조직들로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 다른 유형의 공동체집단들에 이르기까지의 연속선을 찾아 낼 수 있다. 이러한 집단들 모두에 있어 공통되는 것은 그것들이 학습에 관여해있고, 각각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개별적인 혹은 집단적인 목소리를 촉진시키고 개발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서의 능동적인 학습의 예로서, Elsdon은 그의 경험적 연구²⁴²⁾에서, 영국에서 사람들이 자원 조직들에 참여함으로써 자원조직에서의 능동적인 멤버쉽이 학습과정 및 결과로 전환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응답자의 50%이상이 더욱 정치적 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그리고 응답자의 25%는 더욱 정치적으로 능동적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또 다른 보기로서, 호주의 원주민과의 조화에 대하여 학습하는 학습씨클들(Australian Study Circles on Aboriginal Reconciliation)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학습씨클 활동을 함으로써, 학습씨클에 참여하는 회원들 혹은 소집단들의 점점 더 많은 수가 원주민과의 조화에 대하여 이를 단지 학습프로젝트로서만이 아니라 그들이 할 역할이 있는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일부로서 보기 시작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공동체 행동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²⁴³⁾

능동적 시민성 교육에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Tobias는 그의 연구²⁴⁴⁾에서 능동적인 시민성을 위한 성인교육 프로그램(adult education programs for active citizenship)을 공공 정책 및 사회문제들에 관한 공공 의식을 촉진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도전하려는 혹은 고양하려는 데 명백히 뜻을 둔 프로그램들로 규정한다.

242) K. Elsdon, Voluntary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a critique and suggestions, In *The Role of Adult Learning in Building Local and Regional Communities*, Proceedings ESREA Conference, 1, 1997, Strobl, pp. 23.

243) C. Morgan, Interview 14.12.97, Silver Sands, South Australia, 1997.

244) R. Tobias, op. cit., p.418.

Tobias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뉴질랜드에서의 능동적인 시민성을 위한 성인교육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교육기관들이 능동적인 시민성을 위한 성인교육 실행에 있어 광범위하게 다양하였다고 보고한다.²⁴⁵⁾ 그는 성인교육의 보수주의 및 실용주의 전통을 따르는 대부분의 형식교육기관들은 능동적인 시민성교육을 거의 시행하지 않았으며, 자유주의 전통을 따르는 소수의 몇몇 대학은 개별 직원들의 관심에 의존하여 시행하였을 뿐이라고 제시한다. 그는 교육을 탈정치화하는 이러한 전통의 성인교육들은 성인교육과 사회정치적 행동 간의 경계를 강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즉 능동적인 시민성을 위한 성인교육에의 어떠한 체계적인 기획도 또 그러한 성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일관된 정책도 결여됨으로 인해서, 결국 신자유주의이데올로기 및 다국적 자본주의 세력을 정당화하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만 약간의 자원 조직체들을 비롯하여, 뉴질랜드의 노동자교육협회(WEA)가 국가기금의 철회를 비롯한 상당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인 자유주의-진보주의 전통 속에서 능동적인 시민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인교육프로그램들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공적인 논쟁과 그 시대의 사회운동들에 기여하였다고 보고한다.

Tobias의 연구에서, 조사 대상시기인 1980년대에서 90년대 초에 관련하여, 한국 사회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또한 1980년대 말 이후 1990년대로 이어지는 시기는 정치의 민주화,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자발적 인식과 행동, 비판과 실천의 중요성 및 공간이 근본적으로 확대된 시기이다. 그리고 사회운동 조직의 각종 사회단체들이 시민 의식형성(나아가 실천행동)을 지향한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들을 실시하기 시작한 그리고 지속해오게 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한국의 사회교육사를 고찰한 연구 결과를 보면,²⁴⁶⁾ 이전의 관주도적 사회교육에서, 1980년대엔 인력양성, 여가선용 및 교양, 그리고 시민의식 함

245) Ibid., pp. 426-427.

246) 이옥분, 한국의 사회교육사, 평생교육연구, 제4권, 제1호, 1988, pp.115-140.

양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된 점이 특징으로 드러난다. 여기서 시민의식개발형 사회교육은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에서 실시해왔는데, 1980년대 시민생활환경 실태조사 및 환경감시단 조직, 소비자보호, 시민권익 옹호 등으로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며, 시민들의 비판의식을 고양시켰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네 가지 유형의 시민성 즉 내포적 시민성, 다원적 시민성, 반성적 시민성 그리고 능동적 시민성은 명확히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민성의 연속선상의 특징들로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능동적 시민성 형성을 지향하는 성인교육은 곧 이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 된다.

지금까지 성인교육자들은 적어도 두 가지 유형의 사명에 입각하여 프로그램들을 계획해왔다. 즉 하나는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조건의 변화 혹은 향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인간조건의 기본 조건들을 위협하는 사회 현상 속에서 이제 성인교육은 무엇보다도 사회변화의 대행자, 사회적 사명의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성인교육자들은 사회적 목적을 향한 실천의식을 표현해야 한다. 성인교육자들은 세계를 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대행자들이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의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 논의를 다음과 같은 < 표 4 >로 정리해볼 수 있다.

< 표 4 > 각 시민성 유형에 따른 성인학습의 특성

시민성 유형별 성인학습	내포적 시민성	다원적 시민성	반성적 시민성	능동적 시민성
시민성의 정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배제 상태의 심화, 소외, 사회적 결속 감퇴 상황에서 요청되는 시민성	내포적 시민성을 훨씬 넘어섬. 기본적인 보편적 인권의 실재를 인정하면서 또한 다양성과 문화적 다원주의를 포용하는 시민성	대중에게 더 큰 반성이 요구되는 위험사회 맥락에서 자기비판적, 역동적인 시민성	내포적, 다원적, 반성적 시민성을 연속선상에서 통합하는 시민성. 시민사회에서 실현되는, 행동으로 표출되는 시민성
시민성학습의 잠재력	불리한 처지에 있는 학습자집단들에게 긍정적인 학습 정체성으로의 길을 열어줌	생활정치, 이질성,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상호연관에 반응함	서로 다른 사회적 역할을 위한 학습 형태들(교육/학습의 주체)을 위계적이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봄	경제적 필요에 의해 지배되는 평생 학습에 반대됨, 사회운동과 학습이 연계됨
시민성학습의 초점	전체 사회에서 모두(개인/집단)를 위한 학습	세계시민성, 지역 시민성에의 관심, 국가 정부의 쇠퇴 및 생태학적 위기에 관심 두는 학습	시민의 서로 다른 권리와 책임 양자에 대한 반성적 학습	사회운동에서의 학습과 실천행동
시민성학습의 예	유럽사회기금(ESF)의 저소득층 집단들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지원, 영국블레이어정부의 '개인학습계좌' 주장	'다양성 속에서의 연대'를 위한 학습	일과 고용의 맥락에서 적극적인 정책으로의 이동을 위한 성인학습: 시민 지불이 곧 시민 수입(a citizen's income-payment)이라는 아이디어	Elsdon(1997)의 연구결과: 자원조직에 참여한 멤버십이 정치적 능동성으로 전환됨. 그리고 학습프로젝트를 넘어서 사회운동으로 인식되는 호주 원주민과의 조화를 위한 학습씨클들
시민성학습이 속한 전통	자유주의 성인교육의 전통(합리적 입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는 학습자 집단들에게 긍정적인 학습정체성의 길을 열어주는 잠재력)	공동체 주의와 포스트모던 전통(적극적으로 이질성을 포용, 재개념화를 위한 전망을 가능케 함)	진보주의 성인교육 전통(학습과 교수양자 모두에 있어 모든 사람들의 잠재력에 초점을 두는, 평등주의 인식론에 기초)	진보주의 및 급진주의 성인교육 전통(성인학습자들의 정치적 실행의 참여, 행동촉진, 사회운동가와의 연계 강조)

4) 사회운동에서의 능동적 시민성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민사회의 한 측면으로서 사회운동의 대두와, 사회운동 속에서 그리고 사회운동을 통하여 일어나는 학습은 성인교육자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끌고 있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세계에서 시민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는, 비판적 분석과 실천행동과를 결합시키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해방적 잠재력이 주장되어 왔다.²⁴⁷⁾ 이러한 운동은 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 서로 다른 주체에 대한 내부자 이해, 서로 다른 소수 이익집단의 주장을 촉진하는 실천,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권한구현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운동은 문화적 다양성, 정체성, 및 서로 다른 주체의 문제를 조명하는 사회 운동들에 관계되는, 보다 더 광범위하게 기초된 시민성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하여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권리와 책임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두는, 사회적으로 의식 있는 능동적 시민을 위한 교육과 연결된다.

2001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제1차 세계사회포럼 선언²⁴⁸⁾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중심적 관심사가 되는 새로운 세계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대변한다. 즉 자유시장과 화폐만이 유일한 가치 척도로 인정받는 지배논리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고자 다국적 기업과 반민주적 정책에 의한 금융해계모니, 문화파괴, 대중매체 커뮤니케이션 독점, 자연파괴, 삶의 질 파괴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한다. 그리하여 환경, 건강, 민중의 생활환경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그리고 공공의 부와 자연자원을 사적 부문으로 이동시키는 메커니즘으로서의 사영화에 반대하여 연대를 강화하고, 주요 관심사를 중심으로 공동 행동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자마이카 오코 리오 선언에 참석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온 참석자들은 도전해오고 있는 세계화에 마주해 부상하고 있는 능동적 시민성 형태와 그리고 지방 활동 및 풀뿌리활동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²⁴⁹⁾

247) R. Usher, et als., op. cit., p.45.

248) [세계사회포럼] 제1차 포르투 알레그레 선언문. (사)인터넷시민학교 자료실 (http://www.goodcitizen.or.kr/pds/view.asp?b_code=test&b_index=156&page=3&b_num=).

오코 리오 선언에 참석한 사람들은 순전히 민주적이고 지속 가능한 학습 사회와 그리고 경제세계화가 도처에서 조성하고 있는 수동성, 빈곤, 취약성 및 혼돈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있음을 인식한다. 그리하여 모든 차별이 배제되고 그리고 평화가 가능한 평등한 세계를 위해 일할 것을 서약한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성인교육회의(ICAE)가 그동안 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기 소리를 되찾도록 후원할 것을 촉구한다. 오코 리오 선언 참석자들은 성인교육 실천에서 비판적일 것을 서약하며, 함께 시작할 실천 행동을 위한 공약들을 제안하고 있다.

1999년 10월 10-16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NGO대회에서 채택된 서울NGO 밀레니엄 선언문에서는, 우리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리들이 전망하는 세계는 바로 인간중심적·민주주의적이고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며, 모든 사회가 정의·평등·존엄·만인의 다양성과 인권에 대한 존중을 중추로 삼고, 유엔 헌장 원칙대로 평화와 인간 안전이 준비, 갈등과 전쟁을 대체하는 세계이다. 또 남녀노소가 모든 차원에서 진정한 평등을 공유하고, 국가의 힘이 군사력이나 국민소득이 아닌 자국민들을 위한 자유, 인간 안전, 양질의 삶과 교육, 주거와 건강을 기꺼이 보장하고 지구공동사회를 위해 타국과 적극 협력하려는 의사에 의해 결정되며, 세계화의 경제성장이 사회개발, 지속가능한 환경, 그리고 전 인류의 복지를 위해 활용되는 세계이다.²⁵⁰⁾

이 외에도 시애틀에서 열린 WTO 3차 각료회의를 세계의 NGO들이 압박한 일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전 지구적 시민행동네트워크의 구축은 능동적 세계시민성 발휘의 본보기들이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 기초해 볼 때, 사회운동에서의 학습과 실천행동은 능동적인 시민성을 위한 성인교육의 정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 관련하여 성인교육자들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249) Adult Learning--A Key to Democratic Citizenship and Global Action (Declaration of intention, Ocho Rios, Jamaica), *Adult Learning*, 13(3), November 2001, pp.27-28.

250) 허영식, 전계서(1999), p.179.

성인교육자들은 그들의 특정한 관심에 대한 옹호와 그리고 능동적인 시민성이라는 더욱 광범위한 관심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사회운동과 학습의 연계를 개발하는데 상당한 잠재력을 지닌다. 커리큘럼 협의와 학습파트너쉽을 위해서는 성인교육자들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역할과 태도가 요구될 것이다. 성인교육자들이 현대 위험사회 속에서 능동적인 시민성을 위해 기여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전통적인 역할, 목표 그리고 작업맥락이 비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즉, 대행자로서 참여하는 동시에 리더쉽 훈련, 관리 및 정보의 기술들 등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실천적/전문기술적 역할 채택 사이에 있는 긴장 그리고 사회운동에 대한 능동적인 지원과 파트너쉽에 있어 보다 더 많이 개입하는, 정치적인 역할과 다른 단체들 및 사회운동들과의 생산적인 연계, 그리고 공통되는 시민성 및 사회목적의 목표들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²⁵¹⁾

시민사회 속에서 이미 다양한 범위의 성인학습이 일어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 지배되는 평생학습에 반대되는, 시민성을 위한 능동적인 학습을 형성하고 개발하기 위한 상당한 잠재력이 존재한다.

현 사회현상들을 변화시키려는 사회적 목적의 성인교육을 뒷받침하고 있는 가치들은 여전히 타당하다고 하겠다. 점점 더 확산되고 형태들이 다양해지는 성인학습 맥락에서 성인교육자들이 사회적 목적의 학습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더욱 온당한 교육 목표와 유연한 파트너쉽 그리고 프락시스에 있어 더욱 반성적인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4. 능동적 시민성 교육을 위한 합리적 논거

앞서 논의된 능동적 시민성의 요소, 능동적 시민성에 관련한 성인교육 전통,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 내용을 토대로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합리적 논거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표 4 >참조). 이러한 논거들은 시

251) R. Johnston, op. cit., p.187.

민들의 정치사회 현실 인식 및 개선에 대한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민성 교육에 이론적 기초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합리적 논거 1 :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의 유형에는 내포적인 시민성을 위한 학습(learning for inclusive citizenship), 다원적인 시민성을 위한 학습(learning for pluralistic citizenship), 반성적인 시민성을 위한 학습(learning for reflexive citizenship) 그리고 능동적인 시민성을 위한 학습(learning for active citizenship)이 있다.

여기서 네 가지 시민성은 성인학습이 점점 더 진행되어감에 따라 사회적 목적의 성인교육이 더욱 뚜렷해지는, 하나의 연속선을 이루는 것으로 간주된다.

내포적 시민성은 경제적 및 사회적 배제 상태가 심화되고, 소외, 사회적 결속 감퇴라는 상황에서 요청되는 시민성으로, 내포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 학습에서는 이전의 공적 서비스의 사영화로 인한 배제, 박탈에 따른 교육 접근에 있어서의 차이와 이러한 차이의 심화에 대응하여 교육적 균형을 잡으려 시도한다.

다원적 시민성은 내포적 시민성을 훨씬 넘어선다. 이는 모던과 포스트모던 양자의 측면들을 통합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보편적 인권의 실재를 인정하면서도 또한 다양성과 문화적 다원주의를 포용하는 시민성이다. 다원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은 좌와 우간의 구분과 또 그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초월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세계시민성 혹은 지역시민성에 초점을 둬으로써 세계화, 국가정부의 쇠퇴 그리고 생태학적 위기에 대한 관심을 고려해 넣을 수 있다.

반성적 시민성은 자기비판적이며, 역동적인 시민성이다. 반성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은 위험사회의 복잡성, 불확실성 그리고 다양성을 의미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시민성의 맥락에 있어서, 시민의 권리와 책임, 그 상호연관성을 해석하고 검토하는 일을 포함한다. 위험사회의, 즉 대중에게 더 큰 반성이 요구되는 맥락에서, 성인학습자들은 시민의 권리와 책임 양자 모

두의 개념에 보다 더 능동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능동적 시민성은 내포적, 다원적, 반성적 시민성을 통합하는 넓은 스펙트럼을 이루는 행동에 의한 학습을 포함한다. 능동적인 시민성은 국가의 또는 경제의 직접적인 영향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대안적인 정치적 대표 및 참여 형태들에 대한 전망을 제공하는 시민사회에서 실현된다.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은 내포적, 다원적 그리고 반성적 접근을 통합하는, 그리고 동시에 사회적 목적에 관련된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에 있어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구별되는 맥락에 자리해 있다.

합리적 논거 2 : 내포적 시민성, 다원적 시민성, 반성적 시민성,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은 각각 나름의 잠재력을 지닌다.

내포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에서의 그들의 역할을, 사회에 대한 그들의 책임과 그리고 사회정의와 사회결속에 대한 그들의 관심 속에 포함할 수 있는 학습과 행동을 상기시키는데 기여하며, 뿐만 아니라 불리한 처지에 있는 학습자집단들에게 서로 다른 그리고 긍정적인 학습정체성으로의 길을 열어주는 잠재력을 지닌다.

다원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은 또한 개인화의 영향, 생활정치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상호 연관에 반응하는 잠재력을 지닌다. 이는 비인간적인 계약성에 기초하는 이익사회와 무비판적이고 낭만주의적인 공동사회를 넘어서는, 적극적으로 이질성을 포용하고 검토하는 공동체의 재개념화와 재운영화를 전망할 수 있게 한다.

반성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은 지식의 전통적인 개념을 넘어서 교육과 학습 양자 모두에 있어 모든 사람들의 잠재 능력을 인정한다. 반성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 접근은 서로 다른 사회적 역할을 위한 학습 형태들을 위계적이고 보수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이 접근은 광범위한 다양한 사회집단들 가운데에서 개인적 장점, 출발점, 흥미와 능력에 따라 학습들이 실시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제공한다.

능동적인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은 다른 더욱 개인주의적이고, 경제적 인, 통제되는 평생학습의 측면들과 반대되는 잠재력을 지닌다. 이미 다양한 범위의 성인학습이 일어나고 있는 시민사회에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 지배되는 평생학습에 반대되는, 시민성을 위한 능동적 학습을 형성하고 개발하기 위한 상당한 잠재력이 존재한다.

합리적 논거 3 : 내포적 시민성, 다원적 시민성, 반성적 시민성,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은 각각 나름의 학습 초점을 지닌다.

내포적 시민성을 위한 학습은 사회적 결속과 같은 것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전체 사회에서 모두를 위한 학습을 강조한다. 내포적 시민성을 위한 학습의 초점은 개인학습과 집단학습 양자 모두에 두어질 수 있다. 이는 영국 블레어정부의 가장 빈곤층에게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보조를 지원하려는 개인학습계좌 주창, 유럽사회기금(The European Social Fund)의 저소득층 집단들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지원, 그리고 모든 수준에 있는 노동자들 간의, 고용된 사람과 실직자들 간의 상호연계를 강조하고 그리고 연대를 고양하는 학습들에서 나타나진다.

다원적 시민성을 위한 학습에서는 공통된 흥미와 공통된 문화에 대한 탐색과 정체성과 차이의 정치를 연관시키는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다양성 속에서의 연대’²⁵²⁾ 개념을 검토하고, 촉진하고 그리고 개발할 수 있다.

반성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은 시민성의 서로 다른 권리와 책임을 위한 성인학습에 대해 강조한다. 반성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은 새로운 학습접근의 전망을 제시하는 대안적인 아이디어를 제기한다. 즉 서로 다른 다양한 학습 또는 시민서비스 형태들에 있어서, 사회에 참여하는 시민 지불이 곧 시민 수입(a citizen's income-payment)²⁵³⁾이라는 아이디어이다. Alheit는²⁵⁴⁾ 이러한 방식으로 전체 사회에 대한 모든 시민의 관여와 책임

252) I. Martin, Introduction in J. Crowder, I. Martin and Shaw, M. eds., *Popular Education and Social Movements in Scotland Today* (Leicester: NIACE, 1988).

253) P. Alheit, cited in R. Johnston, op. cit., p.184.

이 배양되는 동시에 실업이 감소될 수 있다고 본다.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은 성인교육학급들 또는 집단들에서부터 학습 씨클들, 나아가 자원 조직들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 다른 유형의 공동체집단들에 이르기까지의 연속선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집단들 모두에 있어 공통되는 것은 그것들이 학습에 관여해있고, 각각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개별적인 혹은 집단적인 목소리를 촉진시키고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합리적 논거 4 : 내포적 시민성, 다원적 시민성, 반성적 시민성,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은 각각 나름의 성인교육 전통을 지닌다.

내포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은 합리적 입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는 학습자집단들에게 서로 다른 그리고 긍정적인 학습정체성으로의 길을 열어주는 잠재력을 지니는 것이기에, 많은 면들에서 여전히 자유주의 성인교육의 광범위한 전통 속에 있는 성인학습으로 간주된다.

다원적 시민성을 위한 학습은 적극적으로 이질성을 포용하고 검토하는 공동체의 재개념화와 재운영화를 위한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주의와 포스트모던 전통에 속해 있다고 보겠다.

반성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은 학습과 교수 양자 모두에 있어 모든 사람들의 잠재력에 초점을 두는, 평등주의인식론에 기초해 있다. 이는 위험사회의, 즉 대중에게 요구되는 더 큰 반성의 맥락에서, 성인학습자들이 시민의 권리와 그 책임 양자 모두의 개념에 보다 더 능동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기에 적어도 진보주의 전통에 자리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은 조직 및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시민성을 위한 성인교육에의 참여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고자하는, 그리고 특히 그들의 회원들이 교육에 그리고 정치적 실행에 관여하는 행동에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진보주의 및 급진주의 성인교육 전통에 속한다.

254) Ibid.

합리적 논거 5 : 시민사회에서 능동적인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의 정수는 사회운동에서의 학습과 실천행동이다.

시민사회의 한 측면으로서 사회운동의 대두와, 사회운동 속에서 및 사회운동을 통하여 일어나는 학습은 성인교육자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끌고 있다.

시민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촉진하고 비전을 제시함에 있어, 비판적 분석과 실천행동과를 결합시키는 사회운동은 성인교육적 잠재력을 지닌다. 즉 사회운동은 시민사회의 주체로서의 개인이 사회 환경을 인식하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합적 행위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실천으로 체화하는 성인교육 과정인 것이다. 시민으로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려는 의지와 역량의 표출인 능동적 시민성은 시민사회에서 학습된다.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교육은 사회운동과 관련되어 실현된다.

합리적 논거 6 : 능동적 시민성이 실현되는 사회운동을 통한 성인학습 맥락에 관련하여, 성인교육자들은 세계를 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성인교육자들은 그들의 특정한 관심에 대한 옹호와 그리고 능동적인 시민성이라는 더욱 광범위한 관심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사회운동과 학습의 연계를 개발하는데 상당한 잠재력을 지닌다.

지금까지 성인교육자들은 현 상태 유지와 사회적 조건의 변화 혹은 유지라는 두 가지 유형의 사명에 입각하여 프로그램들을 계획해왔다. 인간조건의 기본 조건들이 위협받는 사회 현상 속에서 이제 성인교육은 무엇보다도 사회변화의 대행자, 사회적 사명의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진정한 시민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변화를 지향한 적극적인 시민의식화와 시민 참여를 목표로 하는 성인시민교육이 요구된다. 이는 곧 현실 사회 조건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실천적 행동 능력을 갖춘 적극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능동적 시민성 교육이라 하겠다.

IV.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현실과 전망

사회적 요청에 따른 점점 더 확산되고 심화되는 민주시민교육에 직면하여, 시민성 형성을 위한 성인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 노력이 절실하다.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시민들의 정치사회 현실 인식 및 개선에 대한 능동적 참여 촉진에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능동적 시민성 함양을 통해 시민사회운동에 기여하는 능동적 시민성 교육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사회변화를 위한 성인교육으로서 요청되고 있는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실제로서, 시민사회단체들에서 실시되어오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의미를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현실을 시민사회단체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끝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제시와 아울러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전망을 간략히 제시한다.

1. 능동적 시민성교육의 실제로서의 민주시민교육

지난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제5차 세계성인교육회의²⁵⁵⁾에서는 “성인교육과 민주주의 : 21세기의 도전”을 “미래를 위한 의제” 중 첫 번째로 들고, 빈곤의 완화와 민주적인 과정의 공고화, 인권의 보호와 강화, 평화의 문화의 증진, 활동적인 시민정신의 장려, 시민사회 역할의 강화, 성의 평등의 보장, 국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협력관계 등에서 모든 시민의 창조성과 능력을 성인교육과제로 요구하는, 성인들에 대한 시민교육을 부각시키고 있다.

25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해외교육정보, 제2호. 1998, pp.81-93.

시민교육은 사회구성원들이 그 사회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이념이나 가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정치체제나 사회체제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면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나가도록 하는 교육이다.²⁵⁶⁾ 시민교육은 좁은 의미로는 정치교육을 지칭하며, 넓은 의미로는 정치생활 뿐 아니라 경제, 사회, 도덕 등 제 생활영역을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 및 사회적 활동에로 까지 관련된 전반적 교육현상을 의미한다.²⁵⁷⁾

성인시민교육의 기본 관점은 시민사회의 주체적, 자발적, 능동적 인식 및 실천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견지하는데 있다. 시민교육의 본질은 시민이나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민주주의가 미약한 사회일수록 시민사회의 능동적 자발성, 주체적 학습능력이 미약하다. 권위주의적 사회일수록 시민사회의 비판과 행동을 억압하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은 시민사회의 자생적 학습 및 실천의 능력에 근본적으로 좌우된다.²⁵⁸⁾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교육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성인시민교육은 민주시민성을 함양하는 민주시민교육으로 귀결된다.

민주시민교육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각종 사회현상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비판 능력을 함양시키는 동시에 적극적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의미한다.²⁵⁹⁾ 민주시민교육은 국가부문에 대한 시민사회의 형성과정과 함께 성장하면서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의 가치, 이념, 사고, 행동 등을 형성함과 아울러 그들 간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해나가는 교육의 과정이다. 민주시민교육은 국가의 일방적 정치사회화에 대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하는 비판적 성인교육의 일환이다.²⁶⁰⁾

256) P. H. Martorella, Teaching social studies in middle and secondary schools (New York: Macmillan, 1991).

257) 김미란, 전계논문.

258) 성낙돈, 전계논문(2000), p.206.

259) 홍익표, 전계논문.

260) 한승희,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쟁점, 민주시민교육포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

사회운동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사회운동 조직의 각종 사회단체들은 인적 요소의 동원·충원의 의도를 갖고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교육프로그램들은 변화된 한국사회 현실에서 사회운동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성인교육적 기능을 하고 있다.²⁶¹⁾ 즉 사회운동에 연관된 이러한 시민사회단체 민주시민교육에서, 시민사회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능동적 시민성이 길러질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시민들의 정치사회 현실 인식 및 개선에 대한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는, 시민사회운동에 기여하는 능동적 시민성 교육이라 하겠다. 성인시민교육의 기본 관점이 시민사회의 주체적, 자발적, 능동적 인식 및 실천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견지하는데 있는 것도 그러한 까닭에서다. 90년대 성장한 시민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이 사회운동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성인교육적 기능을 한 것은 곧 능동적 시민성 교육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교육 현황 및 문제점

우리 사회에서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현실을 간략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제시 되었듯이, 사회운동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사회운동 조직의 각종 사회단체들이 운영하기 시작한 교육프로그램들은 변화된 한국사회 현실에서 사회운동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성인교육적 기능을 하고 있다.

90년대 성장한 시민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은 정부 혹은 관(官) 주도적 자율적 시민교육의 모형으로부터 시민사회가 시민들의 자율적 사회인식의 세계를 심화·확장할 수 있는 교육의 모형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였다.²⁶²⁾

시민교육 미래만들기 워크숍: 지금 시민운동에는 어떤 시민교육이 필요한가? (2003년 7월 25일-26일, 동양인재개발원)에서 발표된 자료.

261) 엄기형, 전개논문, p.15.

여기서는 1980년대 후반이후 한국사회의 변화, 시민사회의 성장 등 새로운 사회현실에 따라 나타난, 시민사회단체들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로 실시되어오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교육 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민사회단체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은 조사사업 규모의 방대성으로 인해 연구자 개인이 직접 실시하기 곤란하여, 기존의 조사 자료들을 토대로 하고 있다. 즉 민주시민교육 현황은 『한국민간단체총람2003』과 이를 근거로 「시민의 신문」에서 정리한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 현황을 분석하고 있는 『평생교육백서』에 기초한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 분석은 한국시민단체협의회에서 조사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조사’결과 요약 자료²⁶³⁾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민주시민교육 기초조사 사업의 결과에 기초한 연구²⁶⁴⁾를 토대로 하고 있다.

1) 민주시민교육 현황

먼저 시민사회단체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흔히들 ‘비정부기구’(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NGO)로 불린다. 비정부기구(NGO)란 개념은 UN이 전문성을 가진 국제적 단체들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공식회의에 정부대표가 아닌 조직들을 참관인 자격으로 불러들일 때 사용하는데서 유래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비정부기구는 기업이나 특수한 이해집단까지 포함하므로 시민사회단체의 특성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 한편으로는 시민사회단체를 시민사회단체의 공적 조직(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통상 ‘시민단체’로 불리며, 비정치성, 비영리성, 자발성,

262) 성낙돈, 전계논문(2001), p.84.

263) 한국시민단체협의회,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2001)’ 결과 요약, 시민운동정보센터 자료실 (<http://www.kngo.net>).

264) 한승희, 전계논문(2003).

및 공공성 등을 특성으로 한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주체로서 시민사회단체의 위상을 뚜렷이 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에 많이 분포하는 사회단체나 사회복지단체 등을 포함하지 못한다.²⁶⁵⁾ 평생교육법이 정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범주 안에는 좁은 의미의 ‘시민단체’와 사회갈등 및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사회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가 결합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단체는 그 설립연도 및 정치적 노선 등에 따라, 1987년 이전에 설립된 탈정치적 성격의 시민사회단체(예: YMCA), 1987년에서 1990년대 중반 사이에 설립된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비민중적인 보수 지향의 온건한 성격을 지닌 시민사회단체(예: 경실련),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친노동운동 혹은 친민중운동적 시민사회단체(예: 참여연대)로²⁶⁶⁾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시민사회단체는 그 활동영역, 그 사업의 포괄성 정도, 그 조직화의 정도, 소재지, 및 법인으로서의 등록 유무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개념은 그 사용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명료한 규정을 내리기 어렵다 하겠다. 본 연구의 민주시민교육 현황 고찰에서 기초해 있는 통계분석²⁶⁷⁾의 경우 시민사회단체를, 좁은 의미의 ‘시민단체’와 사회갈등 및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사회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규정하는, 평생교육법에서의 정의에 입각해 있다. 즉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의 자발적인 능동적 참여로 이루어진 비영리조직으로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복지 등 공공 이익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조직들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 현황을 가장 포괄적으로 조사·정리한 『한국민간단체총람 2003』과 이를 근거로 「시민의 신문」에서 정리한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시민사회단체 분야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265) 교육부, 평생교육백서, 제4호, 2000, p.288-289.

266) 김민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과 활성화 운영방안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1999.

267)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백서, 제7호, 2003.

< 표 5 > 시민사회단체 분야별 분포

구분	시민사회	지역자치 빈민	사회서비스	환경	문화	교육 학술	종교	노동	경제	국제	전체
단체수	1004	216	1293	409	438	140	94	295	6	42	3937
부문별 비율(%)	25.50	5.59	32.84	10.39	11.13	3.56	2.39	7.49	0.15	1.07	100.0

자료: 한국민간단체총람 2003

시민운동단체 10개 분야 중 상위 3개 부문은 사회서비스(32.8%), 시민사회(25.5%), 문화(11.13%)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분야는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사업 및 관련 재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복지사업 영역의 단체들이 포함된다. 상위 3개 부문을 합하면 전체의 66.4%로서, 이는 몇 개 분야 즉 시민사회(25.2%), 사회서비스(18.5%), 문화(15.8%) 분야에 집중 분포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시민사회 분야를 더 세분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①시민사회일반: 사회전반의 개혁과 발전, 민주화, 의식개혁 등 종합적인 사업, ②소비자생활: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교통·생협·생활·소비자운동, ③여성, ④청년·학생, ⑤법·통일 분야의 단체 등으로 나뉜다. 시민운동단체 중 시민사회 부문 7개 분야 중 상위 3개 부문은 시민사회일반(25.90%), 여성(23.21%), 소비자생활(19.52%) 순서였다.

< 표 6 > 시민사회단체 중 시민사회부문 단체 분포

구분	시민사회 일반	여성	청년·학생	법·행정·정치	인권 추모사업	평화·통일· 민족	소비자 생활	전체
단체수	260	233	68	31	104	112	196	1004
부문별 비율(%)	25.90	23.21	6.77	3.09	10.36	11.16	19.52	100.0

자료: 한국민간단체총람 2003

설립연도에 따른 분포를 보면, 1980년대에 설립된 단체가 17.5%, 1990년대에는 전체 시민사회의 절반에 해당하는 49.4%가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 시민사회단체의 66.9%가 최근 20년 사이에 설립되어 1980년대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 표 7 > 분야별 시민단체의 설립연도

전체 빈도수 : 3,544개 / 단위 : %

구분	시민사회	지역자치 빈민	사회 서비스	환경	문화	교육 학술	종교	노동	경제	국제	전체
1940~49	2.02	-	1.83	0.56	0.77	8	2.5	2.43	-	-	1.78
1950~59	1.79	-	13.3	0	2.81	0.8	-	3.64	-	5.13	5.59
1960~69	4.26	0.48	7.42	0.56	7.93	4.8	12.5	8.5	16.7	10.3	5.73
1970~79	6.61	0.48	4.83	2.53	5.88	3.2	16.3	12.2	-	15.4	5.73
1980~89	15.1	7.69	22.1	5.62	18.16	25.6	25	21.5	-	20.5	17.5
1990~99	53	69.7	40.7	66	51.15	47.2	37.5	40.9	66.7	43.6	49.4
2000	7.06	8.65	5.83	11.8	4.86	1.6	2.5	3.24	-	2.56	6.35
2001	6.73	5.29	3.25	8.71	4.86	4	3.75	3.64	16.7	-	5.02
2002	3.36	7.69	0.83	4.21	3.58	4.8	-	4.05	-	2.56	2.88

자료:한국민간단체총람 2003

이는 시민사회 부문 시민사회단체의 설립연도 비율에서도 나타나는데, 1980년대에 15.1%, 1990년대엔 53%의 높은 비율을 보여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후로 급증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도 시민사회단체의 설립이 꾸준히 계속되는 가운데 특히 지역자치·빈민 분야와 환경 분야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전반적 운영 실태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8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그 가운데 74개 단체로부터 유효한 자료를 얻어 분석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과 활성화 운영방안 연구」(김민호 외, 1999)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⁶⁸⁾

첫째,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개인성장·여가선용·가족생활 등 교양위주의 내용이 48.3%로 가장 많았고, 정치·경제·사회·환경 등 시민의식을 다룬 내용이 34.5%로 다음 순위를 나타냈다. 시민의식을 다루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많은 사례들에서 대학교수나 전문가 등이 초빙되어 환경의식·정치의식·소비자의식 향상을 위한 현실의 사회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일상생활과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여부와 교육전담 부서의 유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응답한 시민사회단체의 70.3%가 교육 프로그램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30% 정도는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거나, 과거에는 실시하였으나 현재 실시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이 같은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는 주로 예산과 시설과 인력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학습참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참여동기와 같은 참여유형, 교수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유형과 기관의 특성에 따라 학습참여자 계층이 폭 넓게 퍼져있고, 그들의 인구학적 특징과 참여동기 또한 다양한 만큼 이에 대해 일률적인 내용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교수방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강의식이 가장 많고, 토론·현장탐방·실습 등을 부차적 교수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강의 등에서 각종 교육설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열악한 시설환경과 각종 설비의 미비 때문이었다.

넷째, 운영재원을 비롯한 교육지원 체제의 측면에서, 시민사회단체의 교육운영 경비는 참여자들의 수강료와 회원들의 회비 또는 행사 수익금으로 자체 충당되며, 일부는 외부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268)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백서 제5호, 2001, pp.347-348.

2)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실시됨으로써 민주적인 시민문화 형성에 기여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편 민주시민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법적·제도적인 뒷받침, 단체 간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제약과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한국시민단체협의회에서 조사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조사’²⁶⁹⁾ 결과를 요약한 자료²⁷⁰⁾를 살펴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시민교육의 실시목적은 지역 및 사회적 문제를 이해 혹은 계도(42.2%), 단체 활동에 필요한 능력 배양(20.6%)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역문제와 사회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이를 교육에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시되고 있는 교육내용 분야는 소비자/환경/생활 관련(43.9%) 분야가

269) 이 조사(2000년 11월20일- 12월 16일 실시)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조사 및 Fax/e-mail조사가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전국의 비영리단체와 자원봉사센터에서 2000년 한 해 동안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예정인 프로그램의 (1)전반적인 현황(프로그램 실시목적, 홍보방법, 프로그램 운영의 장애요인, 프로그램 개선 중점 사안, 프로그램 전문양성교육의 필요성, 총 사업비 중 교육사업비 비율, 교육담당 실무자의 직위, 교육프로그램의 수를 질문내용으로 함) 과 그리고 (2)각 프로그램의 특성(교육 형태, 교육 대상, 교육 분야, 교육비 확보방법, 교육장소, 자치단체의 지원내용, 교육방법, 1회 교육시간을 질문내용으로 함)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대상은 전국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이다. 표본크기는 단체 389곳(표집오차:±3.5%, 95% 신뢰수준)으로, 표본추출을 위해서 「2000한국민간단체총람」과 「진보네트워크」에 등록된 단체들 가운데서 지역별로 16개 광역시도별 단체 비율을 고려하여 비례할당 하였으며, 분야별로는 「2000한국민간단체총람」의 분류기준에 근거한 18개 분야와 자원봉사센터를 추가한 총20개 분야가 비슷한 비율이 되도록 동수할당 하였다. 선정된 700여개의 단체에 배부된 설문지 중 회수된 것 가운데서 분석에 적절치 않은 14부를 제외한 389부가 분석되었다. 그리고 보다 더 심도 있는 응답내용을 얻어내기 위해 소수의 전문가에 대한 면담이 실시되었다. 전문가 면담조사의 대상은 직접 개별면접이 가능한 시민사회단체 경력 10년 이상의 각 단체장, 실무책임자, 학자 1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전문가 면담을 위한 질문은 현행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점, 정부, 시민사회단체, 실제 교육자들의 역할에 대한 내용들이었다.

270) 한국시민단체협의회,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2001)’ 결과 요약, 시민운동정보센터 자료실 (<http://www.kngo.net>).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자원봉사/문화관련(24.2%) 분야, 법·행정/정치·경제 관련(23.1%) 분야 순서로 나타났다. 이 내용 분야는 조사에서 표집된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 응답 단체의 성격에 일차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인데 하지만, 환경 분야와 자원봉사 분야의 교육에 비해 행정·법률, 정치·선거, 반부패, 지방자치, 통일·평화·민족, 경제, 노동, 인권, 시민운동 활성화와 같은 민주시민교육 관련 분야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현재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우선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인식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민주시민교육 기초조사²⁷¹⁾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한 연구²⁷²⁾에서도 보면, 민주시민교육이 궁극적으로 시민운동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하여 아니라는 응답을 한 경우가 7%에 불과한 것에 비하여, 민주시민교육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갖는가라는 질문에 32%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하나의 시민사회운동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에 대한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내부 혼란이 내재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하겠다.

이상에서와 같이 두 조사의 결과를 고려할 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민

271) 이 조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2002년 서울대의 한승희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여 진행된 ‘민주시민교육 기초조사분석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본 조사는 2회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첫 번째 조사는 2002년 10월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자유롭게 설문페이지에 접속하여 응답하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두 번째 조사는 2003년 5월 25일부터 6월 15일 까지 약 20일 동안 각 시민사회단체에 설문지를 우편으로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된 대상단체는 2003년 ‘시민의 신문사’에서 발간한 『한국민간단체총편람2003』을 참고로 하여 선정된 전국 1000개의 시민사회단체였다.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각 단체에서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상황은 어떠하며 운영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셋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활동가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활동가들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전국적으로 배포된 설문지중 140통이 회송되고 146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설문문에 응답하여 회송률 14%, 응답률 14.6%를 보였다. 이 조사 결과 보고는 이상의 두 차례의 설문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총 201명의 설문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272) 한승희, 전계논문(2003), p.10.

사회단체들의 인식 제고와 아울러, 교육내용 분야의 다양화가 모색되는 가운데서도 특히 시민성 형성을 위한 내용을 기초로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고 보겠다.

한국시민단체협의회에서 특히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별 면담 조사의 결과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이론적 체계가 확립되지 못했음이 크게 지적되었다. 즉 현행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민주시민교육의 이론적 취약성을 들고 있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이 불명확하며, 교육기관에 따라 내용과 방법의 편차가 심하고, 교육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조사사업의 결과에 기초한 연구²⁷³⁾에서도 이론적 개념적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개념적 혼란을 드러내는 시민교육의 방향 정립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시민교육 방향의 모호성은 특히 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함양시키려는 시민성 개념의 불명확성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에서 실현하려는 시민성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할 경우, 민주시민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그리고 교육담당자의 역할 정의가 일관된 상호관련성을 지닌 유기적인 것으로서 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III장에서 제시된 내포적, 다원적, 반성적 시민성 그리고 이 모두를 포함하는 능동적 시민성 개념은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시민교육 방향에 관련하여 참고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시민단체협의회의 조사 결과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시민교육의 문제점으로, 일반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식의 부족²⁷⁴⁾이 드

273) 상계논문(2003), p.16.

274) 전(前) 프리드리히나우만 재단 한국지부장 Dr. Ronald Meinardus에 의하면, 한국 민주시민교육 실천상의 약점으로서, 민주시민교육 행사들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수가 적은 이유인 ‘정치적 주제들에 대한 무관심’, 행사들에 더 많은 참여자들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참여자의 수동적 역할’, 그리고 행사 참여자들이 스스로 그 이론적 지식들을 적용해볼 수 있는 ‘실전을 위한 학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충분한 시간의 결여’를 들 수 있다(Dr. Ronald Meinardus, 한국 민주시민교육 실천상의 약점, 한국민주시민교육원 교육자료, <http://www.cyber-democracy.com>).

러난다. 또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의 조사결과에 기초한 연구에서도 현 단계 민주시민교육안의 이질적이고 다양한 교육방식의 혼재²⁷⁵⁾를 들고 있는데, 이는 결국 시민성을 실제경험으로서 제공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겠다.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은 능동적 시민성 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하기에, 민주시민교육 강좌는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에 그치는 강좌이어선 안될 것이다. 그 성공은 강좌 수강이후 학습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 모습으로 실천될 수 있는냐에 달려 있다. 즉 강좌 수강이후 자발적인 동아리 결성 등 지속적인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고,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의 사회문제들에 관련한 실천행동, 프락시스에로 까지 이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정수는 사회운동에서의 학습과 실천행동이기에 ‘사회운동의 두 가지 축, 즉 의식화와 조직화의 연계’²⁷⁶⁾가 교육에서 중요할 것이다. 능동적 시민성 교육 실제로서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의 장안에 갇혀서는 안되며, 사회운동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능동적 시민성을 함양하는 성인교육에서, 성인교육자들은 사회를 보다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대행자들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운동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성인교육 기능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 또한 자신들을 성인교육자로 간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의 조사결과에 기초한 연구에서, 시민사회단체의 대부분 시민운동가들이 스스로를 교육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운동가나 조직가로 생각하고 있음²⁷⁷⁾을 지적한다. 이는 시민의식화를 위한 성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성인교육자로서의 역할은 간과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소수의 사례이긴 하나, 이 조사에서 조직화의 사례로 든 광명YMCA 혹은 녹색모임의 경우 그 활동가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오히려 교육자로서 규정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고 있었던²⁷⁸⁾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하겠다.

275) 한승희, 전계논문(2003), p.18.

276) 상계논문, p.19.

277) 상계논문.

278) 상계논문.

3.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전망

우리 사회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운동과 성인·사회교육을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시민 일반의 인식과 참여를 증대시키려고 하였다. 이로써 사회개조를 위한 사회운동과 성인·사회교육의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촉진적 관계가 형성되었다. 사회인식과 참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교육’중심의 사업의 도입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주의 학습을 위한 사회교육·성인교육의 터전으로 성장하게 되었다.²⁷⁹⁾ 이러한 시민사회단체들에서 실시되는 시민교육 활동과 교육프로그램들은 단지 사회운동이 내포하는 교육적 전략으로서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시민사회 형성, 발전에 기여하는 고유한 영역으로서의 능동적 시민성 교육으로 가치매김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그리고 능동적 시민성 교육 이 셋은 상호관계를 형성해내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즉 시민사회에서 출현하는 사회운동들 속에서 능동적 시민성이 함양되고, 이러한 능동적 시민성은 다시 사회운동으로 발휘됨으로써 결국 시민사회 형성, 발전에 기여하는 순환적 상생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잠재력을 경제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목표들에 관련하여 전망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위한 대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의 실제적 문제들에 대한 집합적 인식을 지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에 반응하기 위한 진보적 훈련을 쌓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훈련은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교육은 인간자본보다는 인간가치를 강조한다. 그것은 세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교육은 사회변혁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성인교육이다.

279) 성낙돈, 전계논문(2001), p.86.

Ⅲ장과 Ⅳ장에서 살펴본 내용들에 기초해볼 때,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 능동적 시민성 교육은 능동적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한다.
- 능동적 시민성 교육은 시민사회를 형성, 발전시키는 교육이다.
- 능동적 시민성 교육은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운동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 능동적 시민성 교육은 사회운동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독자적인 고유한 영역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 능동적 시민성 교육은 학습자로서의 시민, 성인교육 전문가,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파트너쉽을 필요로 한다.
- 능동적 시민성 교육은 일반 사회에서의 사회문제들에 관련한 실천행동으로 표출되는, 즉 궁극적으로 사회운동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오늘날 세계화의 물결아래 신자유주의로 인해 시민사회의 공공 생활영역이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성인교육 부문에서는, 인간자본의 시각에서 교육과 훈련의 시장화로의 추세가 점점 더 지배적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에서, 성인교육 본래의 기능을 되살려내어 사회적 목적의 가치들을 실현할 교육을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보다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를 지향하는 성인교육으로서 능동적 시민성 교육에 관심을 갖는다. 이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 시작되고 있는 시민사회 성숙을 위한 성인시민교육 논의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은,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이론적 기초를 형성해보려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먼저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배경 맥락으로서 사회변화, 시민사회, 사회운동과 관련하여 성인교육을 논의하였다. 그런 다음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이론적 기초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논거들을 제시함으로써,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이론적 맥락을 구성하였다. 끝으로 우리 사회의 시민사회단체 민주시민교육을 중심으로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현실을 살펴보고, 그 잠재력을 전망하고,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변화를 위한 성인교육이 위치해 있는 성인교육의 전통은 무엇인가?

둘째, 성인교육은 사회변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시민사회와 성인교육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시민사회에서 요구되는 성인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운동과 성인교육의 관계는

어떠한가? (사회운동들에서의 성인교육의 성격은 어떠한가?)

넷째, 사회적 목적의 전통에 입각한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이론적 기초요소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실제로서,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논거는 무엇이며,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전망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들에 관련하여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교육의 발전 흐름을 살펴볼 때, 성인교육은 두 가지 본질적인 기능을 갖는 것으로 정리된다. 하나는 사회·경제적 발전에 작용하는 경제적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더 나은 사회에 대한 비전을 창출하고, 사회정신을 향상시키는 것을 추구하는 사회적 및 도덕적 기능이다. 이는 성인교육을 지속시켜온 두 가지 전통이다.

성인교육이 사회변화를 야기하는 데 있어 그 전통을 살펴보면, 성인교육은 사회적 변혁에의 기여자였고, 또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하다. 이러한 전통에 입각해 있는 성인교육을 사회적 목적의 성인교육(adult education of the social purpose)이라 일컫는다.

둘째, 사회변화와 성인교육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성인교육이 직접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입장과 교육이 사회변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변화를 위한 실천행위인 프락시스에 있어서 교육과 변화는 변증법적 관계에 놓여있기에, 교육은 사회변화 과정의 통합적 부분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 비판적인 성인교육자들은 시민사회를 급진적인 학습과 사회변화의 특전의 영역으로 간주한다. 시민사회는 민주적 투쟁, 사회운동 그리고 정치적 변화에 가담하기 위한 지점으로서 간주된다. 시민사회에서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통하여 상호작용하고, 문화와 정체성을 창조한다. 사회운동과 그리고 그 동반자적인 NGO들은 국가와 시장의 개입으로부터 시민사회를 보호한다. 이러한 시민사회 보호 과정을 통하여, 사회운동은 시민사회 민주화를 돕고 그럼으로써, 시민사회는 시민성 발휘의 자리가 된다. 시민사회의

활동들은 종종 무형식적 및 비형식적 성인교육의 보기들이다. 즉 성인교육은 시민사회 창조 및 유지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지닌다.

사회운동과 성인교육과의 관계를 보면, 성인교육은 민주적 사회진보 운동에 기여하는 하나의 대의이다. 성인교육은 근본적인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핵심인 사회의식을 개발함으로써 사회운동에 기여한다. 사회운동은 시민사회 주체인 개인이 사회 환경을 인식하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합적 행위에 참여하는 행동이다. 사회운동은 적극적인 실천으로 체화되는 성인교육 과정인 것이다.

넷째, 능동적 시민성이란 참여적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권한 강화(empowerment)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율성, 책임, 협력, 그리고 창의성을 학습하고 실천할, 기회들을 요청한다. 능동적 시민성은 참여, 의사소통, 공정성과 같은 권리주체로서의 자질을 갖추고서 시민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다. 시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살아갈 생활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인식을 변혁의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기 위한 역량이 능동적 시민성이다.

인간생존의 기본 조건들을 위협하는 현실에서 생존을 위해 단지 적응하려는 차원이 아닌, 시민이 주체가 되어 사회현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능동적으로 실현하도록 하는 교육이 능동적 시민성 교육이다. 능동적 시민성 교육은 시민들의 정치사회 현실 인식 및 개선에 대한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는 교육이다. 능동적 시민성 교육은 민주적 시민사회운동에 기여한다. 사회운동에서의 학습과 실천행동은 능동적인 시민성을 위한 성인교육의 정수이다.

80년대 후반 이후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운동의 대의에 호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성인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영역을 발전시켰다.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실제로서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교육 현황 분석에서, 시민사회단체의 66.9%가 최근 20년 사이에 설립되어 1980년대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 내부의 혼란이 내재함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우선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인식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무엇보다도 민주시민교육의 이론적 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이 불명확하며, 교육기관에 따라 내용과 방법의 편차가 심하고, 교육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해진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내포적, 다원적, 반성적 시민성 그리고 이 모두를 포함하는 능동적 시민성 개념은 시민사회단체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정립에 관련하여 시사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식의 부족은 시민성을 실제경험으로서 제공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겠다.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은 능동적 시민성 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하기에, 민주시민교육 강좌는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에 그치는 강좌이어선 안될 것이다. 능동적 시민성 교육 실제로서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의 장 안에 갇혀서는 안되며, 사회운동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의 대부분 시민운동가들이 스스로를 교육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운동가나 조직가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운동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성인교육 기능을 고려할 때, 활동가들 또한 스스로를 성인교육자로 간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 전문가들이 현 시민사회단체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민주시민교육의 이론적 체계가 확립에 기여할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논거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능동적 시민성 교육은 네 가지 서로 다른, 동시에 서로 중복되는 차원을 이루고 있는,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을 통해 제시될 수 있다.

합리적 논거 1 :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의 유형에는 내포적인 시민성을 위한 학습(learning for inclusive citizenship), 다원적인 시민성을 위한 학습(learning for pluralistic citizenship), 반성적인 시민성을 위한 학습(learning for reflexive citizenship) 그리고 능동적인 시민성을 위한 학습(learning for active citizenship)이 있다.

합리적 논거 2 : 내포적 시민성, 다원적 시민성, 반성적 시민성,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은 각각 나름의 잠재력을 지닌다.

합리적 논거 3 : 내포적 시민성, 다원적 시민성, 반성적 시민성,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은 각각 나름의 학습 초점을 지닌다.

합리적 논거 4 : 내포적 시민성, 다원적 시민성, 반성적 시민성,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은 각각 나름의 성인교육 전통을 지닌다.

합리적 논거 5 : 시민사회에서 능동적인 시민성을 위한 성인학습의 정수는 사회운동에서의 학습과 실천행동이다.

합리적 논거 6 : 능동적 시민성이 실현되는 사회운동을 통한 성인학습 맥락에 관련하여, 성인교육자들은 세계를 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에서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잠재력을 경제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목표들에 관련하여 전망해볼 수 있다. 세계화 맥락에서 기술공학 지식의 개발, 국가경쟁력 강화, 기업의 생산성 증대가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위해 사회의 실제적 문제들에 대한 집합적 인식과 진보적 훈련을 쌓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훈련은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 능동적 시민성 교육은 능동적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한다.
- 능동적 시민성 교육은 시민사회를 형성, 발전시키는 교육이다.
- 능동적 시민성 교육은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운동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 능동적 시민성 교육은 사회운동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독자적인 고유한 영역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 능동적 시민성 교육은 학습자로서의 시민, 성인교육 전문가,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파트너쉽을 필요로 한다.
- 능동적 시민성교육은 일반 사회에서의 사회문제들에 관련한 실천행동으

로 표출되는, 즉 궁극적으로 사회운동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에서 제시된 논의와 그리고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합리적 논거들 및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방향성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변화를 지향하는 시민성 교육 연구 및 실천에 시사를 주는 이론적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결론 및 제언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세계시장화로 초래된 기업들의 세계적 자본 이동, 초국적 기업들 간의 경쟁, 지식에 있어서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지식기반근로자들에 대한 수요 증가는 교육체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기술공학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들과 노하우를 창출하기 위해 적합한 교육 개발이라는 압력아래 인간자본이 요청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평생학습이 등장한다. 평생학습은 인간자본시각에서 세계적으로 교육과 훈련의 시장화를 추동하는 핵심 개념이 되고 있다.

평생학습의 대변자들은 바람직한 변화는 시장/기술공학적으로 추동되는 변화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추동적(market-driven) 변화들은 한편 다른 것들의 희생을 초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추동되는 변화의 진정한 효과에 관련해있다. 즉 이른바 새로운 질서는 정말로 불가피한 것인가? 새로운 경제질서는 인간 생활의 질을 고양시키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어떠한 사회적, 환경적 대가를 치르고서 이러한 새로운 세계질서를 실현하고 있는 것인가?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 정의와 평등이 자리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밝히려는 교육적 노력으로서 시민성 교육이 자리한다고 보겠다. 시민사회 형성의 성공적 실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의 정신,

태도 그리고 세계현상에 대한 비판적 이해 그리고 변화를 목표로 하는 실천활동들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도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교육은 사회에서 시민사회 주체로서의 시민의 의식고양과 능동적 실천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진정한 시민사회의 실현을 위한 역동적 기제로서 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성인교육의 잠재력이 시사된다. 민주주의란 그 핵심이 실천에 있는 것이기에. 사회적 실천행동에 관련한 능동적 시민성 교육은 세계화의 지배적 형태에 대항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오늘날 전지구적 그리고 지역적 당면 문제들에 봉착하여 세계시민사회를 회복하고, 세계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능동적 세계시민성 교육이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평생학습 시장 중심의 성인교육 경향의 균형을 되찾고, 그 본래적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많은 연구 노력들이 요구된다.

한편에서 평생학습이 세계자본주의 세력에 의해 인간자본 시각에서 교육과 훈련으로 추동되고 있긴 하지만, 진정한 학습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 일에 관련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목적의 전통을 되살려 시민사회 구성원들에게 보다 더 능동적인 시민성을 준비시키고,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실천 노력이 성인교육에 요청된다 하겠다.

그리고 이제 성인교육자들은 사회운동 조직들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운동에 대한 능동적 지원과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습 파트너십 형성 등에 있어 성인교육 전문가들과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협력, 시민사회단체 시민교육 담당자와의 협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끝으로 향후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이 연구에서는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배경 맥락으로서 시민사회, 사회운동을 논의하고,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이론적 기초요소들, 논거들을 제시함으로써,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이론적 맥락을 구성하였다. 즉 능동적 시민성 교육에 관련한 기초 연구라 할 것이다. 앞으로 능동적 시민성 교육에 관련한 보다 더 구체화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

어, 능동적 시민성을 형성하는데 효과적인 성인교육적 활동들은 무엇인지, 성인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능동적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들이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사회운동가, 성인교육자, 성인학습자들의 능동적 시민성 실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아울러 능동적 시민성 교육 결과, 사회적 맥락에서 능동적 시민성이 어느 정도로 실현되는지 등은 향후 연구되어야 할 과제들이라 하겠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평생교육백서. 제4호. 2000.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백서. 제5호. 2001.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백서. 제7호. 2003.
- 권두승. 한국 사회교육의 변천에 관한 사회학적 분석.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1.
- 김근혜. 한국시민운동단체의 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2.
- 김미란. 시민·사회단체의 시민교육 현황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1998.
- 김중서 외 3인 공저. 평생교육개론. 교육과학사. 2000.
- 성낙돈. 한국 민주주의 시민교육 평가: 참여사회아카데미의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제6권. 제1호. 2000.
- _____. 시민단체 민주시민교육의 발전과제. 성인교육학회. 안드라고지. 제4권. 제1호. 2001.
- 손준중. 평생교육 담론의 세계적 수렴현상에 대한 비판적 논의. 평생교육학연구. 제7권. 제2호. 2001.
- 신진주. 한국의 성인 정치시민교육 프로그램 분석.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 양희준. 시민운동단체 교육활동 사례연구: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2.
- 엄기형. 한국 사회운동조직의 교육프로그램 성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6.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해외교육정보. 제2호. 1998.
- 유팔무·김호기 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1995.

- 이규환. 사회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7.
- _____. 사회교육론. 배영사. 1992.
- 이옥분. 한국의 사회교육사. 평생교육연구. 제4권. 제1호. 1988.
- 이혜주. 민주시민성과 사회교육의 관련성. 사회교육학연구. 제3권. 제2호. 1997.
- _____. 사회참여를 위한 성인시민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평생교육학회.경남대학교 사회교육원 주최(2002년 8월 21일-23일). 제1회 평생교육워크숍 자료.
- 정유성. 사람, 삶, 되살림2: 새로운 교육문화 사회운동론. 한울. 1998.
- 정은주. 민주시민교육의 이념과 방향성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3.
- 조영달 편. 한국시민사회의 전개와 공동체 시민의식. 교육과학사. 1997.
-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 이론. 한길사. 1993.
- 하일민. 시민사회의 철학. 한길사. 1995.
- 허영식. 지구촌시대의 시민교육. 학문사. 1999.
- 허영식. 미래지향적 시민교육의 이론과 실제. 원미사. 2000.
- 한국교육연구소. 시민성의 이념과 시민교육의 과제. 한국교육연구. 제3권. 제1호, 1996.
- 한상길. 사회교육학. 교육과학사. 1995.
- 한승희. 북미 성인교육의 보수주의적 배경과 비판적 성인학습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이론. 제10권. 제1호. 1996.
- _____. 전환기에 선 한국 성인교육연구- '비판적 성인학습론'을 지향하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평생교육연구. 제3권. 제1호. 1997.
- _____. 성인교육의 비판적 담론과 한국사회교육연구.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평생교육연구. 제4권. 제2호. 1998.

- _____. 평생교육: 실천담론의 전개와 그 쟁송지대적 성격.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평생교육학 연구. 제6권. 제1호. 2000.
- _____. 시민지식연대: 사회교육의 새로운 역할.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평생교육학 연구. 제6권. 제2호. 2000.
- _____.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쟁점. 민주시민교육포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 시민교육 미래만들기 워크숍: 지금 시민운동에는 어떤 시민교육이 필요한가? (2003년 7월 25일-26일, 동양인재개발원)에서 발표된 자료.
- 홍익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아태평화재단 정책연구 시리즈. 99-13호. 2000.
- Darkenwald, G. G. and S. B. Merriam. *Adult Education: Foundations of Practice*. 백종역 역. 성인교육의 이론과 실제, 덕성여자대학교 출판부. 1986.
- Illesley, Paul J. *The Undeniable Link: Adult Education and Social Change*.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주최 국제학술세미나, 북미성인교육의 최근 동향 (1997년 11월 17일)에서 발표된 원고.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평생교육연구. 제3권. 제1호. 1997.
- Paterson, R. W. K. *Values, Education and the Adult*. 김수일 역. 평생교육론. 양서원. 1989.
- 김영래·김혁래. 한국 비정부조직(NGO)의 현황과 과제(한국정치학회 국회학술발표회 제출원고). 시민운동정보센터 자료실. (<http://www.kngo.net>)
- [세계사회포럼] 제1차 포르토 알레그레 선언문. (사)인터넷시민학교 자료실. (http://www.goodcitizen.or.kr/pds/view.asp?b_code=test&b_index=156&page=3&b_num=)
- 한국시민단체협의회.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2001)’ 결과요약. 시민운동정보센터 자료실. (<http://members.kr.inter.net/kccm>)
- Dr. Ronald Meinardus. 한국 민주시민교육 실천상의 약점. 한국민주시민교육원 교육자료. (<http://www.cyber-democracy.com>)

- Allan, J., Braham, P. and Lewis P. eds., *Politics and Economic Forms of Modernity*. Cambridge: Polity. 1990.
- Allman, P. Paulo Freire's: education approach: a struggle for meaning. In G. Allen and I. Martin eds., *Community Education : An Approach for Educational Reform*.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1987.
- Aronowitz, S. and Giroux, H. *Postmodern Education*. Minneapolis, Min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1.
- Arvidson, L. and Stenøien, J. Knowledge and democracy: Old and new social movements as learning environments in the post-war welfare state. In P. Remes, S. Tøsse, P. Folkenerone and Bergstedt B. eds., *Social Change and Adult Education Research: Adult Education in Nordic Countries*. Jyväskylä, Finland: Institute of Educational Research, University of Jyväskylä. 1997.
- Bauman, Z. *In Search of Politics*. Cambridge: Polity. 1999.
- Beck, U., Giddens, A. and S. Lash. *Reflexive Modernization*. Cambridge: Polity. 1994.
- Beder, H. Dominant paradigms, adult education, and social justice. *Adult Education Quarterly*. 37(2). 1987.
- Bendix, R. *Nation-Building and Citizenship*.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4.
- Bercrombie, N. A., Hill, S., and B. Turner. *The Penguin Dictionary of Sociology*. 1984.
- Bergstedt, B. Postmodern learning process—the composition of knowledge in new social movements. In *Social Change and Adult Education: Adult Education Research in Nordic Countries, 1990/1991*. University of Norway. 1992.

- Bhola, H. S. Adult education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the case of South Africa. *Adult Basic Education and Training Journal*. 1(1). 1997.
- Bishop, J. Citizenship for the Twenty-First Century. Review of *Citizenship for the Twenty-First Centur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Education* edited by John J. Cogan and Ray Derricott. London: Kogan-Page. 2000.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45(1), February 2001.
- Boggs, C. *Social Movements and Political Power*.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86.
- Brookfield, S. *Adult Learners, Adult Education and the Community*. Milton Krynes: Open University Press. 1983.
- Bron, A. Adult education and the civil society in a comparative and historical perspective. In B. Bron, and M. Malewski, eds., *Adult Education and Democratic Citizenship*. Wroclaw: Wroclaw University Press. 1995.
- Bron, Jr M. Democracy building and adult education: The case of Russia. pp.317-318. In *Die Zukunft des lebenslangen Lernens(The Future of Lifelong Learning)*. Festschrift zum 75. Geburtstag von Franz Pöggeler.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02.
- Castells, M. Urbanization and social change: The new frontier. *The Challenge of Social Change*. 1991.
- Cogan, J. *Multidimensional citizenship: Education policy for the 21st century. An Executive Summary of the Citizenship Education Policy Study*. Tokyo: Sasakawa Peace Foundation. 1997.
- Crewe, I. and Searing, D. Citizenship and civic education. lecture given at the RSA, London on 21 May, 1996.

- Cunningham, P. M. The social dimension of transformative learning. *PAACE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1998.
- Cunningham, P. M. U.S. educational policy and adult education: Social control; social demand; and professional adult educator participation. *Conference proceedings of the 36th Annual Adult Education Research Conference*. (83-90) Edmonton, Alberta, Canada: University of Alberta. 1995.
- Cunningham, P. M. International influences on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In J. M. Peters and P. Jarvis eds., *Adult Education: Evolution and Achievements in a Developing Field of Study*.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91.
- Toh, S. H. and Cawagas, V. H. *Peaceful Theory and Practices in Values Education*. Quezen City: Phoenix Publishing House, Inc. 1990.
- Dykstra, C. and Law, M. Popular social movements as educative forces. In M. Hyams ed., *Proceeding of the 35th Annual Adult Education Research Conference*. Knoxville: University of Tennessee. 1994.
- Elsdon, K. Voluntary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a critique and suggestions. In *The role of adult learning in building local and regional communities*. Proceedings ESREA Conference, 1. 1997. Strobl.
- Elsy, B. Voluntarism and education as civil society and the third way for personal empowerment and social change.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2(1). 1993.
- Evans, B. *Radical Adult Education: A Political Critique*. New York: Croom Helm. 1987.

- Eyerman, R. and Jamison, A. *Social Movements: A Cognitive Approach*.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1.
- Fieldhouse, R. Tradition in British university adult education and the WEA. In C. Duke ed., *Liberal Adult Education: Perspectives and Projects*. Warwick: Continuing Education Research Centre, University of Warwick. 1992.
- Finger, M. New social movements and their implications for adult education. *Adult Education Quarterly*. 40 (1). 1989.
- Freire, P. *Pedagogy of the Oppressed*. Middlesex: Penguin. 1972.
- Freire, P. *Education : The Practice of Freedom*. London: London Writers and Readers Publishing Cooperative. 1974.
- Giroux, H. *Schooling and the Struggle for Public Lif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8.
- Giroux, H. *Schooling for Democracy: Critical Pedagogy in the Modern Age*. London: Routledge. 1989.
- Gregory, W. A. B. Emancipatory Adult Education and Social Movement Theory. the degree of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berta, Edmonton, Canada. 1997.
- Hake, B. Remaking the study of adult education: The relivance of recent developments in the Netherlands to the search for disciplinary identity. *Adult Education Quarterly*. 42(2). 1992.
- Hake, B. Lifelong learning and the European Union: a critique from a "risk society" perspective. In J. Holford, C. Griffin and P. Jarvis eds., *Lifelong Learning; Reality, Rhetoric and Public Policy*. Conference Proceedings. Guilford: Department of Educ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Surrey. 1997.
- Hall, B. Continuity in adult education and political struggle. *Convergence*. 11(1). 1978.

- Hall, B. Learning and global civil society: Electronic networking in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Canadian Adult Education and Training*. 3(3). 1993.
- Hall, B. Adult education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global economic change. In P. Wangoola and F. Youngman eds., *Towards a Transformative Political Economy of Adult Education: Theoretical and Practical Challenges* (105-126). Dekelb, IL: LEPS Press. 1996.
- Hamilton, E. *Adult Education for Community Development*. New York: Greenwood Press. 1992.
- Hampton, W. Adult education and the active citizen. *International Journal of University Adult Education*. 29(1). 1990.
- Hanson, R. *The Democratic Imagin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85.
- Hart, M. Critical theory and beyond: Further perspectives on emancipatory education. *Adult Education Quarterly*. 40(3). 1990.
- Heaney, T. When Adult Education Stood For Democracy. *Adult Education Quarterly*. 43(1). 1992.
- Heater, D. *What is Citizenship?*. Cambridge: Polity. 1999.
- Hill, R. A. Conceptualization of citizenship education in 21st century. ERIC ED 309-101.
- Holford, J. Why social movements matter: Adult education theory, cognitive praxis, and the creation of knowledge. *Adult Education Quarterly*. 45(2). 1995.
- Holst, J. Social movements and civil society: Implications for radical adult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the degree of Ed. D.

- dissertation.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Dekalb, Illinois. 2000.
- Horton, M. and Freire, P. *We Make the Road by Walking: Conversations on Education and Social Change*. B. Bell, J. Gaventa, and Peters, J. eds.,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90.
- Howlett, D. Social movement and development education. In C. Depass and D. O'Sullivan. *Social Commitment and Adult Education*. Cork: Cork University Press. 1989.
- Ilsley, P. J. The undeniable link: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and social change. In M. W. Galbraith and B. Sisco eds., *Confronting Controversies in Challenging Times: A Call for Action*. New Directions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No.54.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92.
- Jarvis, P. *The Sociology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London: Croom Helm. 1985.
- Jarvis, P. ed. *Twentieth Century Thinkers in Adult Education*. London: Routledge. 1991.
- Johnston, R. Adult learning for citizenship: towards a reconstruction of the social purpose trad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8(3). May-June 1999.
- Kaizer, P. J. *Culture, Transnationalism and Civil Society: Aga Khan Social Services in Tanzania*. London: Praeger. 1996.
- Kellner, D. and O'Hara, H. Utopia and marxism in Ernest Bloch. *New German Critique*. 9. Fall 1976.
- Korsgaard, O. The impact of globalization on adult education. In S. Walters ed., *Globalization, Adult Education and Training: Impacts and Issues*. (15-26). London: Zed books. 1997.

- Lovett, T. ed. *Radical Approaches to Adult Education: A Reader*. London: Routledge. 1988.
- Magendzo, Salomón. Popular education i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Education for social mobilization?. *Harvard Educational Review*. 60(1). February 1990.
- Marshall, T. H.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and Other Essay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0.
- Martin, I. Introduction. In J. Crowder, I. Martin and Shaw, M. eds., *Popular education and social movements in Scotland Today*. Leicester: NIACE. 1988.
- Martin. I. Citizenship debate asks some awkward questions *Adult Learning*. 13(10). June 2002.
- Martorella, P. H. Teaching social studies in middle and secondary schools. New York: Macmillan. 1991.
- Merriam, S. B. and P. M. Cunningham, eds., *Handbook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89.
- Merriam, S. B. and Brockett, R. G. *The Profession and Practice of Adult Education: An Introduc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97.
- Merrifield, J. Finding our lodestone again: democracy, the civil society and adult education. In P. Armstrong, M. Zukas, and Miller, N., eds., *Breaking Boundaries, Crossing Borders*. Proceedings of the SCUTREA 27th Annual Conference. London: SCUTREA. 1997.
- Mezirow, J.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91.

- Mezirow, J. Transformation theory and cultural context: A reply to Clark and Wilson. *Adult Education Quarterly*. 41(3). 1991.
- Newman, M. *Defining the Enemy: Adult Education in Social Action*. Sydney: Stewart Victor. 1994.
- Newman, M. Locating learning in social action. In *Social action and emancipatory learning*. Sydney: School of Adult Education, UTS. 1995.
- Nordhaug, O. Adult education in the welfare state: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commi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5(1). 1986.
- O'Sullivan, D. *Social Commitment and Adult Education*. Cork: Cork University Press. 1989.
- Pandak, C. A. *Rebuilding Civil Society*. Frankfurt: Peter Lang. 1999.
- Paulston, R. G. Education as anti-structure: Nonformal education in social and ethnic movements. *Comparative Education*. 24(1). 1980.
- Paulston, P. and Altenbaugh, R. Adult education in radical U.S. social and ethnic movements. T. Lovett ed., *Radical Approaches to Adult Education: A Reader*. London: Routledge. 1988.
- Preston, R. Critical Approaches to Lifelong Educ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45(5-6) November 1999.
- Quigley, B. A. To shape the future: Towards a framework for adult education social policy research and 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2(2). 1993.
- Ramirez, G. Strengthening civil society and democracy: challenges for adult education in Latin America. *Issues in the Education of Adults: Global Transformation and the Education of Adult*. 8(15). 1997.

- Ruzicka, R. The teacher's role in promoting active citizenship in a transforming Society. *Educational Practice and Theory*. 22(1). 2000.
- Scott, A. *Ideology and the New Social Movements*. London: Unwyn Hyman. 1990.
- Smith, M. K. *Local Education: Community, Conversation, Praxis*.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1994.
- Spencer, B. Old and new social movements as learning sites: Greening labor unions and unionizing the greens. *Adult Education Quarterly*. 46(1). 1995.
- Stubblefield, H. W. and Rachal, J. W. On the Origins of the term and meanings of adult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dult Education Quarterly* 42(2). 1992.
- Tobias, R. The boundaries of adult education for active citizenship: institutional and community contexts.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9(5). September 2000.
- Inglis, T. Empowerment and Emancipation. *Adult Education Quarterly*. 48(1). Fall 1997.
- Torres, C. A. *The Politics of Nonformal Education in Latin America*.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90.
- Turnbull, R. Editor's review: 'Fanon, pas mort?.' *Edinburgh Review* 106. 2001.
- Turner, B. S. Outline of a Theory of Citizenship. *Sociology*. 24(2). 1990.
- Usher, R. Bryant, I. and R. Johnston. *Adult Education and the Postmodern Challenge: Learning Beyond the Limits*. New York: Routledge. 1997.

- Walters, S. Lifelong learning within higher education in South Africa: Emancipatory potential?.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45(5-6). November 1999.
- Welton, M. Social revolutionary learning: the new social movements as learning sites in *Adult Education Quarterly*. 43(3). 1993.
- Welton, M. Civil society as theory and project. In D. Wildemeersch, M. Finger and Jansen, T eds., *Adult Educa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Reconciling the Irreconcilable?*. No.36. New York: Peter Lang. 1997.
- Welton, M. In defence of civil society: Canadian adult education in neo-conservative times. In S. Walters ed., *Globalization, adult education and training: impacts and issues*. Leicester: NIACE. 1997.
- Westwood, S. When class became community in Adult Education. In A. Rattansi and D. Reader eds., *Rethinking Radical Education*. London: Lawrence and Wishart. 1992.
- Williams, R. Adult education and Social Change. *What I Came to Say*. London, Radius. 1989.
- Xun, Xuan Cheng. Explorations of the two essential functions of adult education and its evolution in China. *The Adult Education Quarterly*. 44(2). Winter 1994.
- Young, F. The political economy of adult education and development: The case of Botswana 1966-1991. Thesis submitted for the doctor of philosophy at the University of Hull. 1995.
- Zacharakis-Jutz, J. *Highlander folkschool and the labor movement, 1932-1953*.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31 940.

'Adult Learning--A Key to Democratic Citizenship and Global Action'(Declaration of intention, Ocho Rios, Jamaica). *Adult Learning*. 13(3). November 2001.

CONFINTEA V. The Hamburg Declaration on Adult Learning. Hamburg from 14-18 July, 1997.

The European Commission. *Learning for active citizenship*. The European Commission. 1997. <http://europa.eu.int/en/comm/dg22/citizen-en.html>.

UNESCO. Recommendation of the Development of Adult Education.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19th session, Nairobi, 26 November, 1976.

ABSTRACT

A Sociological Study of Adult Education for Developing Active Citizenship

- In the Contexts of Civic Society and Social Movements -

Jeon, Hyun-Shim

Dep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of adult education, social change, civic society and social movements as well as to review active citizenship as part of promoting social change.

Above all, the writer intended to search for the rational theoretical backgrounds of active citizenship adult education in light of the importance of active citizenship concepts.

In order to achieve the aim of my study, problems for the study are stated as follows:

1. The tradition of adult education considered to be of help to promote social change.
2. The relationships of adult education with social change.
3. The relationships of adult education with civic society and

social movements (Which role adult education the civic society seeks plays? Which character adult education in social movements has?).

4. The concepts of active citizenship education, its approaches, citizenship categories and so on (What does active citizenship mean in light of the adult educational social purpos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re are two functions of adult education economic and social. It is imperative to achieve the social function of adult education in order to create a better society through fostering social consciousness.
2. There are two standpoints of discussions of adult education. One is the standpoint which denies adult education as one means of changing society and the other is the standpoint which approves its potentiality of changing society. Adult education and social change are dialectically interrelated.
3. Radical scholars of adult education insist that civic society can be put into reality through democratic social movements and political struggle in order to democratize the society. They insist as well that the adult education for active citizenship is absolutely needed for the democratization of standstill society.

4. Active citizenship means the quality of being able to participate for democratizing society. Adults can be empowered through the education of active citizenship.

It is recommended that adult educations undertaken by social-civic organizations for the social change put more emphasis on forming active citizenship so that adults can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praxis to make society.